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주요섭 소설의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송 소 용(SONG XIAOYONG)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주요섭 소설의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지도교수 송 명 희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송 소 용(SONG XIAOYONG)

송소용(SONG XIAOYONG)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25일

위원장 문학박사 정덕준 (인)

위 원 문학박사 박산향 (인)

위 원 문학박사 조동구 (인)

위 원 문학박사 김남석 (인)

위 원 문학박사 송명희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연구	7
3. 연구 방법과 범위	14
II. 디아스포라와 탈식민주의	18
III. 주요섭의 해외 생활과 소설	33
1. 주요섭의 해외 생활	33
2. 디아스포라 소설	43
IV. 주요섭 소설의 디아스포라 의식	49
1. 민족정체성 의식	54
가. 일제 식민체제의 민족 억압	54
나. 백인사회의 인종차별	66
다. 억압에서 표출된 민족정체성 의식	77
라. 강화되는 민족정체성 의식	93
2. 서발턴 의식	99
가. 서발턴의 저항	101
나. 서발턴의 방황	117
다. 서발턴의 몰락	133
라. 저항에서 몰락으로	143

IV. 결론	147
* 참고문헌	155



Study on Conscious of the Diaspora in
Ju YoSeop's Novels

SONG XIAOY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essay analyzes Ju YoSeop's diaspora life and novels during his stay in Beijing and Shanghai, China and America with the viewpoint of post-colonial. Based on the *Killing* and *the Price of First Love* in his Shanghai period, *the Study in America* and *Catch Hold of Cloud* in his American period, and *the Restaurant in Bongcheon Station* in his Beijing period, this essay also analyzes the subaltern life in Ju YoSeop's novels as well as the other consciousness occurred in the subaltern life and the ethnic identity due to immigration.

People remember Ju YoSeop always because he is the writer of *the visitor in Sarang room and Mother* or the anti-conventional school literature. However, his literature surprisingly shows a tendency and look of diversity. Since he visited a lots of countries, his special immigration experience exercises a great influence on his novels. During his stay in Shanghai, America and Beijing before liberation, he created lots of novels with great study value, among which the diaspora novels on the background of China and America should be spoken highly.

Chapter I the Introduction illuminated the study purpose and necessary, previous study, study method and study range.

Chapter II the Diaspora and post-colonial defines the diaspora and post-colonial. In the post-colonial, the definition of subaltern, the other and ethnic ident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diaspora.

Chapter III Ju YoSeop's life and novels generally concludes his life

experience in China and America, as well as his diaspora novels during this time. It also analyzes Ju YoSeop's life environment and the difference of his inner world in Shanghai, America and Beijing, including how these factors influenced his novels.

Chapter IV the Ethnic Identity studies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the white race ethnic discrimination in his diaspora novels, also studies how the two factors influenced the ethnic identity consciousness. The final conclusion is that the ethnic identity consciousness in Ju YoSeop's novels increases gradually. The Subaltern Consciousness studies the process of subaltern's resistance, confusion and wane. The final conclusion is that the subaltern in Ju YoSeop's novels is on the wane after resistance.

Ju YoSeop's diaspora novels spread the immigration space to Shanghai, America and Beijing, especially the Study in America and Catch Hold of Cloud could be the earliest novels on the background of America and Mexico in Korean literature history, which is quite extraordinary. Meanwhile, Ju YoSeop's diaspora novels provide a precious resources for the representation and study of Korean immigr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is essay is not limited to few works to comment on Ju YoSeop's novels and tried the best to prove his core literature is the diaspora novels. It proves his immigration experience and the diaspora novels play a big role in Korean modern literature. This essay studies on Ju YoSeop's diaspora novels, it deserves if there is any complement or help in the level of revaluation.

Key words: Ju YoSeop, Diaspora, oversea immigrant, post-colonialism, consciousness of national emancipation, subaltern

I.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주요섭 문학에 관한 연구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와 몇몇 대표작에 한정되어 있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주요섭이 일본, 중국, 미국으로 돌아다니는 그의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비롯되는데, 그 시기의 기초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 그래서 그의 장편소설 『구름을 잡으려고』는 2000년이 되어서야 단행본으로 묶였고, 『1억 5천만 대 1』, 『망국노군상』은 단행본이 출간되지 않은 상태이다.²⁾ 또 하나의 이유는 주요섭이 광복 이후 『코리아 타임스』 주필, 한국문학번역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자신의 작품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인 것³⁾으로 보인다.

한국 근·현대 문학의 주요 작가들 가운데 가장 잘못 평가된 대표적인 작가가 주요섭이다. 1935년 11월 『조광』에 발표한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그의 대표작으로, 그 이듬해 1월에 같은 지면에 발표한 「아네모네의 마담」이 그 다음가는 대표작으로 평가되었기에 주요섭은 연애소설을 쓴 작가로 간주되어 평가가 절하되었다.⁴⁾

1) 강진구,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문론집』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251면.

2) 주요섭 저, 이승하 엮음, 『주요섭 단편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185-186면.

3) 위의 책, 197-198면.

김윤식과 김현이 공저한 『한국문학사』에는 주요섭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주요섭을 아래와 같이 축소 평가한 바 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그의 말기까지도 합친 그의 유일한 대표작으로서 성인의 연정을 동심을 통하여 바라본 가작이었다. 이곳에서는 이미 초기의 미숙한 프로문학적인 요소는 가시어지고 예술적인 향취까지 풍겨주고 있으며, 이것이 이 작품을 그의 대표작으로 만들어준 문학적인 조건이 되었다.⁵⁾

하지만 “주요섭은 결코 「사랑손님과 어머니」로만 기억될 작가가 아니다. 주요섭 문학은 의외로 다양한 경향과 면모를 갖고 있다. 반세기에 이르는 창작 생애에 주요섭은 4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으며 3편을 유작으로 남겼다.”⁶⁾ 소설 이외에 수필, 동화, 평론, 시, 연극 등 여러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적지 않은 외국 문학작품을 번역하였다.

주요섭은 1902년 12월 23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하여 평양 숭실고등보통학교와 일본 도쿄아오야마(青山)중학교를 수료했다. 1921년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상해 호강대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30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⁷⁾ 잠시 국내에 머물렀지만, 1934년

4) 이승하, 「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무대 소설의 의의」, 『국제비교한국학회』17권3호, 비교한국학, 2009, 399면.

5)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426면.

6) 최학송,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39집, 민족문학사학회, 2009, 150면.

7) 위의 논문, 161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요섭이 1929년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학송 연구논문에는 주요섭이 1930년에 귀국한 자료를 제시한다. “1930년 2월 6일발 『동아일보』는 「주요섭씨환향(朱耀燮氏還鄉)-미국에 필업(畢業)후」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스탠퍼드 대학 교육과를 졸업하고 문학사의 학위를 받은 주요섭이 1930년 2월 4일 오후 3시에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앞으로의 타산은 우선 조선 각지를 다니며 시찰한 후 출판 사

다시 중국 북경으로 가서 보인대학교(輔仁大學校)에서 교수직을 맡았다. 그는 1943년까지 계속 북경에 머물며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조선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발표했다.

주요섭은 여러 나라를 경험하며 넓은 시야와 국제적 감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독특한 이주경험은 그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주요섭은 오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통해 국내나 해외에서만 생활했던 작가들과 달리 스스로를 경계에 위치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경계의식으로 인해 식민지 조국을 떠나와 해외를 떠도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을 동시대 어느 작가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포착할 수가 있었다.”⁸⁾

주요섭이 해방 전 중국 상해, 미국, 중국 북경에 살면서 창작한 소설은 연구 가치가 높다. 그 중 중국과 미국을 배경으로 쓴 디아스포라 소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제강점기 한국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상해, 미국과 북경으로 확대된 것은 한국소설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의 상해는 상업과 공업이 발전한 세계적인 도시로 근대적 문명의 모델이 되는 유토피아적인 공간이었다. 식민지 시기 중국과 관련된 한국문학들은 주로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상해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러나 “상해는 자본주의적 근대성이 만개한 국제도시로서의 긍정적 면모와 식민성의 굴욕감을 환기시키는 부정성이 착종하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한국문학의 토양을 다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⁹⁾ 한국문학 속에서 상해의 의미를 실증적인 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선구적인 손지봉¹⁰⁾의 연구에 따르면 1920-30년대 동안 상해를

업에 종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도한다.”

8) 강진구, 앞의 논문, 250면.

9) 강지희, 「상해와 근대문학의 도시 번역」, 『이화어문논집』29집, 이화어문논집, 2011, 28면.

10) 손지봉, 「1920-3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부속대학원 석사논문, 1988.

무대로 삼은 국내 소설은 21편이다. 이중 주요섭은 3편을 발표하였다. 주요섭은 1921년부터 1927년까지 상해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인력거꾼」, 「살인」, 「첫사랑 값」도 이 시기에 발표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해 당시의 사회 상황이 잘 드러나 있고 이것이 문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북경은 한국 해방 전 한인문학의 또 하나의 중심지이다. 이 시기 북경에는 중국의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많은 한국의 문인들이 다녀갔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은 북경에서 창작되었거나 북경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경 한인문학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으며 김사랑, 한설야, 신채호, 이육사 등 몇몇 작가들의 북경 생활과 문학을 다룬 연구가 한두 편씩 있을 뿐이다.¹¹⁾

주요섭은 1934년부터 1943년까지 북경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문인들 중에서 북경 체류 기간이 제일 길고 작품 창작 수가 가장 많은 작가 중의 한 명이다. 그런데 주요섭의 북경 이주 생활과 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 주요섭 문학은 흔히 ‘사랑’을 중심으로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해외 이주를 제재로 한 작품의 가치는 소홀히 평가되고 있다.

주요섭의 1927-1930년 미국 유학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도 연구할 가치가 매우 크다. 20세기 초, 일제 통치 아래 조선민중들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었기에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황금을 찾아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재미한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당시 재미한인의 생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

11)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국어교육』142집, 한국어교육학회, 2013, 143면.

은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섭이 미국을 배경으로 창작한 소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유미외기」와 『구름을 잡으려고』이다. 이 두 편의 소설은 주요섭의 의식세계와 작품경향의 변화를 추정해보는 데 유용하고, 한국소설의 공간 확장과 소재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

중편소설 「유미외기」에서는 조선인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인 청년 ‘이전’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한다. 이 소설을 통해 유학생 이전이 미국에서 민족적, 인종적 차별을 받으며 주변화 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장편소설 『구름을 잡으려고』는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경험담과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일종의 ‘다큐멘터리’ 소설이다.¹²⁾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박준식을 통하여 미국 이주노동자의 생활 모습을 꺾진하게 그려냈다.

주요섭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 느꼈던 경험은 그의 작품에 풍부한 체재를 제공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요섭의 작품 연구는 주로 그의 대표작 「사랑손님과 어머니」, 「살인」, 「인력거꾼」에 집중되어 왔다. 게다가 주요섭의 생애와 작품을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강진구와 서승희의 연구 논문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요섭은 해외 체류 과정에서 매춘부, 유학생, 노동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 등 다양한 인물들과 만난다. 이들은 주요섭의 작품에서 주인공과 서사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대상으로, 그의 소설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의식’과 서발턴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서발턴 의식’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요섭의 디아스

12) 주요섭, 『나의 문학적 회고- 재미있는 이야기꾼』, 문학, 1966, 198면.

포라 소설이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떠도는 조선 이주민의 삶을 중국과 미국으로 이주공간을 확장하면서 탁월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또한 매춘부, 노동자, 지식인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요섭의 문학적 가치가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대표로 한 몇몇 대표작에 한정되어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뛰어넘어 주요섭 문학의 요체가 디아스포라 소설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그의 다양한 이주 경험과 이 과정에서 창작한 디아스포라 소설이 갖는 현대한국소설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도 증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주요섭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그의 생애와 작품을 결합하여 분석한 연구, 주요섭이 외국에 살았던 시기에 발표한 작품을 분석한 연구, 예를 들면 서발틴, 젠더, 디아스포라 등의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섭의 생애와 작품을 결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최학송의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¹³⁾은 주요섭이 해방 전에 발표한 작품을 연구했다. 그는 주요섭의 ‘홍사단 입단 이력서’, 등단작 ‘이미 떠난 어린 벗’ 등 여러 자료를 새로 발굴하여 그의 생애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관련된 내용도 보충하였다. 그리고 해방 전에 창작한 소설 목차를 새로 정리했다. 그는 주요섭의 사상 경향은 기독교, 민족주의, 사회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거치지만, 해방 전에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주요섭이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현지 조선인의 삶을 작품화한 당시에 현지인도 작품에 등장시킴으로써 한국문학의 배경 확장 및 소재의 다양화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임윤정의 「주요섭 소설에 관한 연구 -작품론적 접근」¹⁴⁾은 주요섭의 생애와 작품 활동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주요섭의 작품을 초기(20년대), 중기(30년대), 후기 (해방 후부터 60년대까지), 그리고 말기(60년대)를 시기별로 분석했는데, 주요섭의 작품 세계가 매우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게 다양하고 굴곡 심한 변모 속에서도 일정한 흐름을

13) 최학송,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앞의 논문, 149-175면.

14) 임윤정, 「주요섭 소설에 관한 연구 -작품론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0.

갖는 문학적 요소들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주미는 「주요섭 소설 연구」¹⁵⁾에서 주요섭의 생애를 이끈 인생 경험과 그의 문학적 인식을 형성하게 한 배경을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크게 세 가지의 의미영역으로 나누고 작가의 내면세계를 작품과 작가의 결합을 통해 도출해 내었다.

이주일은 「주요섭 소설의 분석 연구」¹⁶⁾에서 주요섭의 문학을 주로 그의 단편소설 중심으로 고찰했다. 그는 주요섭의 작품세계, 작품 속의 인간상, 문장의 특징을 분석했다. 그는 주요섭 작품에서 한국적 여인상, 궁핍에 살아가는 반골인, 유랑민으로 나눈다. 그리고 초기작에는 주로 반항아 또는 유랑민이 등장한 반면 후기작에는 도시 소시민이 등장하였다고 분석한다.

주요섭이 외국에서 살았던 시기에 발표한 작품을 연구한 내용은 상해, 미국, 북경으로 나누어 발표한 논문이 많다.

김호웅은 「1920-30년대 한국문학과 상해 -한국 근대문학자의 중국관과 근대 인식을 중심으로」¹⁷⁾에서 주요섭이 중국 상해에서 창작한 소설을 중심으로 작가의 문화관과 인간성을 밝혔다.

이승하는 「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무대 소설의 의의」¹⁸⁾에서 「인력거꾼」, 「살인」, 「첫사랑 값」을 분석했다. 그는 상해라는 도시와 그 시대 상황에 대한 묘사, 상해의 매춘부와 조선인 유학생의 처지에 대한 묘사는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으며, 1920년대 중국 상해의 이모저모가 잘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5) 이주미, 「주요섭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3.

16) 이주일, 「주요섭 소설의 분석 연구」, 『명지어문학』19집, 명지어문학회, 1990, 215-229면.

17) 김호웅, 「1920년대-30년대 조선문학과 상해-조선 근대문학자의 중국관과 근대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23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7-41면.

18) 이승하, 앞의 논문, 399-427면.

강지희는 「상해와 근대문학의 도시 번역 - 주요섭의 소설을 중심으로-」¹⁹⁾에서 상해의 식민성과 유토피아성을 지닌, 주요섭의 상해 체험 시기 쓴 소설 「인력거꾼」, 「살인」, 「첫사랑 값」을 분석한다. 주요섭은 분열을 겪는 ‘환승중인 주체’로서의 번역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학송은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²⁰⁾에서 보인대학교(輔仁大學校) 교수가 된 주요섭의 북경 생활을 고찰하고, 북경에서 창작하였거나 북경 생활을 다룬 다양한 작품을 분석한다. 그의 논문은 주요섭이 북경에서 창작한 소설 전반에 대해 충실히 분석함으로써 북경 시절의 주요섭 문학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의 논문은 북경 한인문학 연구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춘식은 「일제 강점기 재중 조선인 소설 연구」²¹⁾에서 주요섭이 중국 상해에 거주하며 창작한 소설 「인력거꾼」과 「살인」을 신경향파 소설로 간주하고, ‘문화의 이질성 충돌’을 통해 작가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의 편향은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양국화는 「한국작가의 상해지역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주요섭, 주요한, 심훈을 중심으로」²²⁾에서 주요섭의 상해 지역 학교 수업 과정과 활동 체험을 연구하고, 그의 상해 지역 체험을 문학적 표현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섭이 미국에서 살던 시기에 창작한 작품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

19) 강지희, 「상해와 근대문학의 도시 번역 - 주요섭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9집, 이화어문학회, 2011, 25-49면.

20)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국어교육』 142집,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13, 143-164면.

21) 장춘식, 「일제강점기재중조선인소설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03. : 장춘식은 중국 조선족이지만 한국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므로 중국 발표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22) 양국화(梁國花), 「한국작가의 상해지역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주요섭, 주요한, 심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1.

우미영은 「식민지 시대 이주자의 자기 인식과 미국 - 주요섭과 강용홀의 소설을 중심으로-」²³⁾에서 주요섭과 강용홀의 소설 네 편을 비교하고 연구했다. 주요섭의 「유미외기」와 『구름을 잡으려고』를 분석하고, 주요섭 소설에서 동양인 의식은 조선을 떠나면서 형성된 저항적 서양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그 의식은 하층민의 연대감으로 발전했으며, 이 작품들은 ‘보편’으로 구성된 ‘서양’ 특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식민지 시대 조선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다.

강진구는 「한국소설에 나타난 멕시코 이미지 연구」²⁴⁾에서 멕시코 이민자를 최초로 다룬 이해조의 『월하가인』과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대상으로, 작품에 재현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했다. 멕시코 이주 한인과 멕시코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는 멕시코 이주 한인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이미지가 단기적으로 멕시코 동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지만, 결국은 ‘팔려온 노예’라는 스테레오타입을 덧씌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서승희는 「근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윤리 -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중심으로-」²⁵⁾에서 주요섭의 장편소설 『구름을 잡으려고』가 디아스포라 서사로서 지니는 특징과 의미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주요섭의 미국 유학 체험을 고찰하고 그의 글쓰기가 이전 상해시절과의 다른 점을 지적했다. ‘근대 이민 과정의 재현과 멕시코라는 공간의 이중적 함의’와 ‘황인종-남성-노동자 디아스포라의 이상과 실제의 간극’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름을 잡으려고』를 분석했다. 근대 이주 노동자들의 역사를

23) 우미영, 「식민지 시대 이주자의 자기 인식과 미국 - 주요섭과 강용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17집, 한국근대문학회, 2008, 325-359면.

24)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멕시코 이미지 연구」, 『어문론집』60집, 중앙어문학회, 2014, 211-237면.

25) 서승희, 「근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윤리 -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6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159-185면.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은 물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잠식된 식민지적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결론을 맺는다.

서발턴, 젠더, 디아스포라 관점 등의 특정한 연구 주제에 맞추어 분석한 연구도 있다.

주요섭 작중 서발턴 인물에 대한 연구는 김광옥의 「주요섭 소설 속의 서발턴 연구」²⁶⁾가 논의되었다. 그 연구에서 주요섭 소설을 탈식민주의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김광옥은 주요섭 작품의 서발턴 인물을 서발턴 노동자, 디아스포라 서발턴, 젠더화된 서발턴 여성으로 부류로 나누고, 이런 서발턴 인물들의 발화 양상을 작가가 재현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지식인이 서발턴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섭 문학의 의의도 함께 규명했다. 그는 주요섭 소설 속 서발턴 인물들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밝혀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주요섭이 여러 나라에서 유학하고 취직한 특수한 경험을 디아스포라 관점으로 연구한 논문은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²⁷⁾가 있다. 필자인 강진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를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요섭’과 ‘주요섭 문학에 나타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면모를 주요섭의 생애를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이 작품에 끼친 영향을 탐색했다. 저자는 주요섭의 해외 이주 생활과 그의 작품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면서, 주요섭은 “비록 완전한 형태의 디아스포라적인 삶은 아니었지만, 해외 체류를 통해 국내나 해외에서만 생활했던 작가들과 달리 스스로를 경계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의식 덕분에 식민지 조국을 떠나와

26) 김광옥, 「주요섭 소설 속의 서발턴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13.

27) 강진구,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문론집』 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247-274면.

해외를 떠도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을 동시대 어느 작가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포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연구는 주요섭의 대표작 몇 편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요소를 온전하게 발굴할 수 없었다. 그는 중편소설 「첫사랑 값」과 장편소설 『구름을 잡으려고』를 분석하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다른 디아스포라 작품을 논의하지 않아서 작가와 텍스트의 사상 변화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주요섭의 작품 중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는 송소용의 「서발턴 여성의 억압과 자유 -주요섭 소설 「살인」을 중심으로」²⁸⁾, 김영은의 「주요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식민지 시대 작품을 중심으로」²⁹⁾, 김학균의 「주요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서발터니티”연구」³⁰⁾에서 주요섭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중국에서도 주요섭의 작품이 논의되었다.

주주(周姝)는 「유학 체험과 주요섭의 문학 창작」³¹⁾에서 주요섭의 유학 체험을 고찰함으로써 주요섭 문학 작품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의식 세계를 추정한다. 그리고 그의 유학 체험을 토대로 한 소설의 양상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규명하여 유학 체험과 주요섭의 문학 창작의 관계를 밝힌다.

장려화(張麗華)는 「1920-1945年韓國現代記行文中的北京認識」³²⁾ (「

28) 송소용, 「서발턴 여성의 억압과 자유」, 『한어문교육』34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287-306면.

29) 김영은, 「주요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식민지 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30) 김학균, 「주요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서발터니티” 연구」, 『배달말』49집, 배달말학회, 2011, 147-169면.

31) 주주(周姝), 「유학 체험과 주요섭의 문학 창작」, 중국해양대학 석사논문 (中國海洋大學碩士論文), 2013.

1920-1945년 한국 현대 기행문에 드러난 북경에 대한 인식」)에서 북경에 대한 한국 현대 지식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경기행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현대 한국 지식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 식민지 현실에서 살아가는 한국 지식인들의 중국 문화인식 및 근대화에 대한 추구 및 그 본질적 특징을 연구했다. 1920-1940년대 한국 현대지식인들의 중국 문화인식, 자국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근대의식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재희(李在喜)는 「異域視角的上海想象-以寓居上海的韓國作家 (20世紀20/30年代)爲例-」³³⁾(「이국 시각으로 본 상해에 대한 상상-상해에서 거주한 한국 작가 (20세기 20/30년대)를 중심으로-」)에서 상해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1920-1930년대 상해에 거주했던 한국작가의 생활체험을 고찰했다. 그는 그들의 소설을 통해 상해 하층민의 생활 현황과 이 시대에 상해에 거주했던 한국인의 인생을 연구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섭의 생애를 고찰했고, 이 시기 상해에서 창작했던 대표작 「살인」, 「인력거꾼」, 「첫사랑 값」 등의 소설을 언급했다.

장춘식(張春植)은 「朝鮮族移民小說與身份認同」³⁴⁾(「조선족 이민소설과 정체성」)에서 전기 이민 자각과 후기 이민 자각 소설, 조선작가 이민을 소재로 창작했던 소설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비교를 통해 전기 이민 자각과 후기 이민 작가의 차이가 민족 정체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중국 조선족 이민문학은 주요섭과 최서해의 소설부터 시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요섭의 이민 생활과 소설에 대한 연구는 많

32) 장려화(張麗華), 「1920-1945年韓國現代記行文中的北京認識」, 山東大學碩士論文, 2014.

33) 이재희(李在喜), 「異域視角的上海想象 -以寓居上海的韓國作家 (20世紀20/30年代)爲例-」, 華東師範大學碩士論文, 2013.

34) 장춘식(張春植), 「朝鮮族移民小說與身份認同」, 『民族文學研究』, 現當代作家評論, 2008.

지 않은 편이다.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강진구의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서승희의 「근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윤리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중심으로-」 두 편이다. 하지만 두 연구는 주요섭의 몇몇 디아스포라 소설만을 연구하고 있어 폭넓게 다루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강진구의 연구는 주요섭 문학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요약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소설 텍스트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요섭의 디아스포라의 삶과 소설의 관계, 그리고 소설에 나온 작가의 의식변화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었다.

서승희 연구는 장편소설 『구름을 잡으려고』 단 한 편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 전반에 대해 폭넓게 들여다 볼 수 없었다. 이런 점 때문에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3.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생애와 디아스포라 작품을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다. 식민지 지배 아래 나타나는 이주 조선인의 서발턴 의식, 타자의식, 민족정체성 의식은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이다.

주요섭이 창작한 디아스포라 소설들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와 지식인을 막론하고 계급, 민족, 인종, 젠더의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형성된 지배와 종속 문제, 즉 일제의 탄압과 수탈, 하층민 서발턴의 억압, 여성의 주변화, 유색인종의 차별 대우 등의 문제가 그의 작품 곳곳에

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요섭의 이주 생애와 그의 디아스포라 작품을 탈식민주의 비평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탈식민주의³⁵⁾ 비평(postcolonial criticism)은 지배와 종속 관계를 매개로 하거나 그에 도전하거나 반영하는 문화적 형상물의 분석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탈식민주의가 분석해야 할 대상은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다방면에 걸쳐 다른 민족, 인종, 문화 사이에 형성된 지배와 종속 관계뿐만이 아니라 같은 인종이나 문화권 내에서 형성된 지배와 종속 관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최근 탈식민주의 문학은 과거의 “반외세 국수주의적 성향을 초월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민족문화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서” 복합적이고 중요한 문제들, 이를테면 “망명의식, 소유권 및 상속권 박탈의 문제, 파생과 제휴의 문제, 정체성의 위기, 중심문학과 주변문학, 소속과 자리 뺏김의 문제, 그리고 지배문화의 불가시적인 억압과 임의적인 정체성 부여문제” 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³⁶⁾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주요섭의 이주 생애와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연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해외 한인 이민의 삶에 대한 인식과 해외 이민 문학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족정체성 의식은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권을 잃어버린 조선인들은 일제의 혹독한 민족적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일제의 탄압과 착취를 견디지 못한 조선인들은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기도 했고, 생계를

35) 바트-무어 길버트, 이경원 옮김,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23면.

옮긴이 이경원은 탈식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 식민주의 비판과 극복을 위한 담론의 실천이라고 정의할 때, 그 실천의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탈식민주의 계보나 정체성은 달라진다고 했다.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를 근간으로 하는 제3세계가 주체가 될 때 탈식민주의는 피해자의 저항이고, 모더니티의 자기성찰을 주도하는 서구가 중심이 될 때 탈식민주의는 가해자의 반성이 된다. 본 연구는 전자를 선택하여, 즉 탈식민주의는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시점으로 전개할 것이다.

36) 송명희, 『트랜스내셔널리즘과 재외한인문학』, 지식과교양, 2017, 49면.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기도 했으며, 일제의 대규모 집단이주 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야만 했다. 이렇게 떠난 조선인들은 피식민지인이라는 낙인을 갖고 새로운 땅과 낯선 언어와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다층적인 억압, 특히 일제의 식민통치와 이민과정에 겪는 인종차별 때문에 그들은 민족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가진다.

또 조선 이주민들이 이주한 국가에서 경험한 최하층의 서발턴의 삶은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주요섭의 눈에는 일제 식민지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조선 이주민들의 삶이 자주 목격되었고, 그는 소설을 통해 이주민 서발턴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민족적, 계급적, 젠더적, 인종적 차이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서발턴 인물들이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가족의 이산으로 서발턴의 생활을 하게 된 매춘부, 유학생, 조선 여성, 조선 노동자 같은 다층적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들은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주요섭은 일제강점기의 이주조선인들이 거주국에서 피지배인으로 억압받으며 사는 모습에 주목했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문제의식을 갖고 서발턴의 생활상을 다양하게 재현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섭의 중국 상해, 미국, 중국 북경 시기의 디아스포라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을 분석하려고 한다. 주요섭이 해외에 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기간이다. 현대 한국소설사를 살펴보면 간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은 다수 창작되었지만 중국 상해나 북경, 그리고 미국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은 희귀하다. 그런데 주요섭은 이 무렵에 중국 상해, 미국, 중국 북경을 옮겨가며 살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를 소재로 한 소설을 많이 창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문학은 일제시기에 조국을 잃고 해외에 흩어진 이주 조선인의 재현과 연구에

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주요섭이 상해에 머물던 시기에 창작한 디아스포라 소설 「살인」, 「첫사랑 값」, 미국에 머물던 시기에 창작한 디아스포라 소설 「유미 외기(留美外記)」, 『구름을 잡으려고』, 북경에 머물던 시기에 창작한 디아스포라 소설 「봉천역 식당」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 작품들에서 조선이주민의 서발턴의 삶과 그들이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민족정체성 의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의 전개는 I 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방법과 범위를 살펴볼 것이다.

II 장 ‘디아스포라와 탈식민주의’에서는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탈식민주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 장 ‘주요섭의 해외 생활과 소설’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던 주요섭의 삶과 그 당시 발표한 디아스포라 소설의 특성과 주제의식을 개괄해 보면서, 주요섭이 살았던 해외 거주 지역에 따라 내면세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IV 장 ‘주요섭 소설의 디아스포라 의식’에서는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나타나는 ‘민족정체성 의식’을 살펴보고, 주요섭이 이주한 지역과 사상 변화에 따라 민족정체성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요섭이 상해에서 발표한 소설에서는 민족정체성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후 미국과 북경에서 발표한 소설에서는 민족정체성 의식이 점차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발턴 의식’을 통해서는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등장하는 서발턴이 저항과 방황을 거듭하다 몰락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소설에서 나타난 서발턴 의식은 주요섭의 생활 환경과 그의 사상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II. 디아스포라와 탈식민주의

디아스포라(diaspora)는 민족 분산 또는 민족 이산으로 번역한다. 이 단어는 단지 같은 민족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원적으로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 전치사 dia (영어로 ‘over’, 우리말로 ‘~를 넘어’)와 동사 spero(영어로 ‘to sow’, 우리말로 ‘뿌리다’)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은 뒤 그곳으로 자국민을 이주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때 디아스포라는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후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유랑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영어 대문자 ‘D’로 시작하여 ‘Diaspora’로 표기하는데,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바빌론 유수 이후 팔레스타인 밖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거류지’ 또는 ‘팔레스타인 또는 근대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가리킨다.³⁷⁾

1990년대에 들어서 디아스포라가 전 지구적 현상이 되고, 한국인들의 해외이주도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 연구 역시 활발해졌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망명·난민·이주노동자·민족공동체·문화 차이·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³⁸⁾

디아스포라가 폭넓게 사용되면서 디아스포라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37)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3-4면.

38) 위의 책, 5면.

논란이 학자들 사이에 일어났다. 최인범은 기존의 디아스포라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속성들을 제시한다.

첫째 한 기원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하고, 둘째 정치적, 경제적, 기타 압박요인에 의하여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모국을 떠난 것이다. 셋째 고유한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넷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족에 대해 애착과 연대감을 갖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국과의 유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야 한다.³⁹⁾

디아스포라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모국을 떠나 해외에 흩어져 산다.⁴⁰⁾ 이들은 이주국의 차별 때문에 소외당하지만, 이주국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모국을 떠나왔다는 공통적인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가지며 향수와 귀환의 욕망을 표출한다. 그들은 모국과 동족에 대한 지속적인 애착을 보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디아스포라’ 개념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이 개념은 ‘재외한인’이나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넓은 범주와 결부되어 ‘초국적 도시성’ ‘초국적 정체성’ ‘이주민의 정체성’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 등과 결부되어 쓰이고 있으며, ‘디아스포라 공간’,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디아스포라의 지위’ 등의 새 어휘도 대량 양산되고 있다.⁴¹⁾

한국인은 20세기 초부터 1945년 해방 이전의 이주는 일제강점기 식민통

39) 위의 책, 7면.

40) 조은주,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시학』, 국학자료원, 2015, 40면.

41) 윤정화, 「재외한인작가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이화여자대학 박사논문, 2010, 66면.

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일어났다. 즉 일제에 의한 식민주의⁴²⁾는 대규모 이산을 낳았다. 하지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그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탈린 치하의 고려인 강제이주, 일제지배 하의 강제징용, 한국전쟁 이주, 사할린 거주 한인들, 해외 이민 등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입증한다. 블라디보스토크, 타슈켄트, 하와이, 멕시코, 우토로(일본 교토 징용 조선인 촌락) 등지로의 이주는 강대국의 힘에 유린을 당한 한민족의 수난사를 반영하는 증거들이다.

문학작품은 한국인의 이주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단서다. 따라서 디아스포라가 당한 고통과 상처를 글로 기록하고, 그 꺾박과 고난의 부당성을 환기시키는 작업은 중요하다. 2001년 나이폴(Vidiadhar Naipaul)이 “선진제국이 제3세계에 입힌 상처를 고발해온 역사의 증인자”라는 이유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것은 그 한 예이다. 나이폴처럼 억압된 역사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작가가 한국에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주요섭을 바라볼 때, 그는 ‘제3세계의 상처를 고발해온 역사의 증인자’라 할 만하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들은 탈식민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존 맥클라우드의 문학적 맥락 내에서 탈식민주의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에 관여한다고 밝힌다.

- 1) 식민주의 역사를 지닌 나라 출신의 작가들이 쓴 텍스트, 과거든 현재든 주로 식민주의 작동과 유산에 관한 텍스트 읽기
- 2) 식민주의 역사를 지닌 나라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쓴 텍스트 혹은 이산의 경험과 그것이 초래한 많은 결과를 주로 다룬 이주

42) 이에 대해서는 존 맥클라우드, 박종성 옮김,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아카데미, 2003, 24-37면 참조. 식민주의는 식민화시키는 국가가 타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옳고 적절하다는 생각을 정당화한다.

가족 후손이 쓴 텍스트 읽기

- 3) 식민주의 담론의 이론에 비추어 식민주의 시대 동안 생산된 텍스트 다시 읽기, 제국의 경험을 직접 전달하는 텍스트와 그렇지 못한 텍스트 둘 다 다시 읽기⁴³⁾

주요점은 식민지 역사를 지닌 나라의 출신자이며, 피식민의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이고, 식민지 경험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디아스포라 작품들은 탈식민주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식민주의 담론은 탈식민주의 이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식민주의 담론은 재현과 재현양식이 피식민지인을 식민통치에 순종하도록 하는 식민권력의 근본적인 무기로서 사용된 다양한 방식을 탐구한다.

트리니다드 출신의 작가 샘 셀번(Sam Selvon)은 1979년에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 - 동인도인, 트리니다드인, 서인도인 (Three Into One Can' Go- East Indian, Trinidadian, West Indian)」이란 제목의 강연 서두에서 그의 유년시절 트리니다드의 산 페르난도 거리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인도인 어부를 회상한다. 새미란 어부는 육신이 마비되었으며 종종 어린이들에게 조롱당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일을 나갔던 새미가 어떤 백인을 데리고 왔다. 셀번은 백인을 조수로 삼은 새미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낀 반면 다리를 저는 인디언 새미에 딸린 백인 조수에게 동정과 낙담의 감정을 가졌다. 어린 셀번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미가 아니라 백인이 주인이어야 했다. 셀번이 이런 일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어렸을 때에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기도록 배워온 방식을 예증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셀번은 “인도인은 단지 인간

43) 위의 책, 61면.

쓰레기인 반면 백인은 존경받기로 되어 있는 직감”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컬럼버스가 항해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부터 식민지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유럽국가의 해외 침략 행동에 따라 식민주의 정책을 펼친다. 산업 혁명 이후 영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식민지를 건설한다. 이때 서구 국가들이 동양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일본도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강해진 후 대외 침략 전쟁을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쉘번의 백인-주인, 제3세계인-노예의 이분법적 도식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엘레케 뵈머(Elleke Boehmer)는 그녀의 저서 『식민주의 및 탈식민주의 문학(Colonial and Postcolonial Literature)』에서 식민 국가들의 식민행동을 살펴보면, 식민주의를 “영토에의 정착, 자원의 약탈과 개발, 그리고 점령지 토착민들을 다스리려는 시도”⁴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를 건설하는 국가들은 자국민을 피식민지 국가에 정착시켜 자원을 약탈하고, 점령지 토착민들을 다스리려는 시도를 통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식민주의는 식민화시키는 국가가 타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옳고 적절하다는 생각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사물의 식민 질서 내에서 피식민지인들이 그들의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의식을 식민화’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영속화시켰다. 식민주의는 사람을 설득해서 논리를 내재화하고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식민주의자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재현하는 방식들에 관한 가치와 가정을 영속시킴으로써 작동한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의해 식민지가 된다. 일제는 정치적으로 조선의 영토를 침략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원을 약탈하고, 조선인이 열등의식을 가지도록 문화통치를 실시한다. 일제의 식민지배

44) 위의 책, 24면.

는 내선일체라는 명분 아래 ‘동화주의(同化主義)’를 목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제는 ‘일본과 조선의 현실적 수준, 문명화의 차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음부터 민족적으로 차별 정책을 시도한다. 이런 점에서 일제의 식민정책은 동화(同化)를 위해 ‘일본의 지도계발에 의한 조선의 문명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방안으로 산업 개발, 민풍 개선, 교육 보급 등을 내세웠다. 산업 개발로 산업을 발달시켜 생활상의 여유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그 다음에 교육을 보급하고, 이와 동시에 조선인의 생활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민풍개선’을 추진하였다.⁴⁵⁾

일제치하의 『국어』 교과서는 조선아동에게 동화교육을 시행하여 황국신민으로 양성하고자 했다.⁴⁶⁾ 일제는 일본인의 정체성을 이식하기 위해 조선아동과 조선국토를 황국신민이자 일본국토로 소속시키고 있다. 조선 영토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고, 조선인에게 일본정신을 끊임없이 세뇌시켰다.

조선은 이러한 일제의 식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는 한편,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시도한다. 조선이 식민지에 벗어나려던 시기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피식민지인 역시 식민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식민주의 운동을 시도하고 있었다.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제국주의적 지배 방식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한다.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 조건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피식민지의 역사적 현실을 텍스트로 정립하고 은밀하게 작동하는 제국주의 담론을 가시화한다. 또한 제국주의 담론의 해체를 시도함으로써 사회·역사적 조건의 변혁과 새로운 삶의 형식을 모

45) 김도형, 『일제하 한국사회의 전통과 근대인식』, 해안, 2009, 21면.

46) 김순전·박채홍·장미경·박경수·사회영·김서은·유철, 『일제강점기 일본어교과서 국어독본을 통해 본 식민지조선 만들기』, 제이앤씨, 2012, 409면.

색한다. 특히 해방과 독립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촉발되는 인식론적 혁신, 변화된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는 문화적 변용과 창조, 제국주의적 세계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탈식민주의는 매우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 ‘탈식민주의의 삼총사’로 불리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ide), 호미 바바(Homi K. Bhabha),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뿐만 아니라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탈식민주의의 ‘시작’으로 간주된다.⁴⁷⁾ 그런데 사이드를 탈식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로 간주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사이드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하고 유구한 탈식민주의의 전통을 부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무어-길버트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등장을 탈식민주의의 출발점이 아닌 분기점으로 본다. 그는 그 이전을 ‘탈식민주의 비평’, 그 이후를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구분한다. ‘탈식민주의 비평’은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식민지 타자의 목소리가 거세고 줄기차게 발현되던 서인도제도의 반(反)식민 민족문학, 그리고 미국의 할렘 르네상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를 무대로 한 영연방 문학을 포함한다. ‘탈식민주의 비평’이 제3세계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독립운동이었다면, ‘탈식민주의 이론’은 서구 이론과 자본의 개입으로 진행되는 문화적 신탁통치이다. 앞에서 밝힌 대로 ‘탈식민주의 이론’의 분야에는 서구에서 활동하는 제3세계 이민 출신 지식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사이드, 바바, 스피박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식민지 피지배자의 타자 신분 또한 주목되는 개념이다.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늘 ‘열등

47) 이에 대해서는 바트 무어-길버트, 이경원 옮김,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5-28면 참조.

한' 타자를 필요로 한다. 동일자의 반대개념인 '타자(the Other)'는 자신들과 다른 속성을 지닌 부류, 계층 및 인종을 일컫는다.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보함으로써 타자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식민 지배자는 피식민지인을 감시, 훈육, 통제,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명령과 권위에 순응시키려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식민지인의 후진성과 야만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 피식민지인들은 '타자로서 식민지배자에 대한 폭로와 반항'을 주제로 하는 탈식민주의 깃발을 들고 나온다. 20세기 초, 뒤부아(W.E.B Du Bois)는 유럽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범아프리카주의를 주장하여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와 레오폴 세다르 생고르(Léopold Sédar Senghor)는 네그리튀드로 일컬어지는 흑인 정체성 회복운동을 전개했다. 서인도제도의 월컷(Walcott), 해리스(Wilson Harris), 브래스웨이트(E.K. Brathwaite) 등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토양에 기초한 탈식민적 문학작품과 비평이론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이 남긴 지적 유산은 오늘의 탈식민주의가 서구의 제도권 학계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불가결한 디딤돌이 되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에 맞선 저항담론이다. 저항담론은 '역담론 혹은 대응담론(counter-discourse)'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식민지배자의 권위와 명령을 거부하고, 자치권과 독립 쟁취를 목표로 삼는다.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푸코의 지적처럼 식민지인 입장에서 지배 권력에 맞선 저항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정신의 탈식민화와 민족해방을 위한 이론적, 이념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3세계 반제국주의 운동의 기수로 평가받는 파농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을 통해 식민주의의 작동 메커니즘과 그로 인해 억압당하는 자를 고발했다.

그가 생각하는 탈식민화는 무력투쟁을 동원한 식민지의 해방 및 식민지인의 자기해방이다. 그에 의하면 억압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력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1978년 사이드(Edward Side)는 『오리엔탈리즘』을 출판해서,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제국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증명했다. 1980년대에는 두 명의 걸출한 탈식민주의 이론가가 등장한다. 호미 바바(Homi K. Bhabha)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그들이다.

호미 바바는 “식민주의 담론은 무한히 양가적이며, 분열된, 그리고 불안정한 것으로 읽어낼 가능성을 탐구”⁴⁸⁾했다. 그는 비판적인 탈식민적 글쓰기에서 특히 양가성(ambivalence), 흉내(mimicry), 혼종성(Hybridity) 같은 핵심 개념은 식민 담론, 반식민적 저항, 탈식민적 정체성에 관한 논쟁에서 시금적이 되어왔다. 바바의 ‘양가성’과 ‘혼종성’ 같은 주장은 식민 지배와 그 영향력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탈식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양가성’은 지속되는 식민적 영향력의 현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종적·문화적 우월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⁴⁹⁾

잔모하메드에 따르면 식민적 지배관계는 일반적으로 “흑과 백, 선과 악, 우월과 열등, 문명과 야만, 지성과 감정, 합리성과 관능성” 등 “이원적 알레고리”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통적 식민 담론은 식민적 지배 관계를 인종의 본질적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화적 결과로 합리화한데, 지배자는 본질적으로 피지배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바바에 의하면 전통적 식민 담론은 본질적 우월성에 기초한 지배자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것은

48) 존 맥클라우드, 박종성 옮김, 앞의 책, 46면.

49)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 김문환 옮김,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256면.

지배 주체가 피지배자에게 행사하는 식민 권력의 ‘의도성’과 ‘일방성’을 보인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면서 그는 ‘양가성’과 ‘혼종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피지배자가 식민 권력의 일방적 지배를 해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양가성’은 식민 담론의 ‘내적 일관성’을 부정하는 식민 담론의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 또한 ‘혼종성’은 식민 지배의 기반인 식민 주체의 ‘통일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식민 주체의 ‘분열’을 일으킨다.⁵⁰⁾

탈식민주의의 주요 용어인 서발턴(subaltern)은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로부터 그 영감과 용어를 빌려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발턴(Subaltern)이란 인도의 대표적 서발턴 연구가 라나지트 구하가 밝힌 것처럼 처음에는 “남아시아 사회에서의 종속 -그것이 계급·카스트·연령·젠더·지위 또는 그 밖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 일반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 계급 등의 거대 담론에 의해 배제되고 억압되어 그 존재가 인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자리 잡았다.⁵¹⁾

가야트리 스피박은 기존의 지배적인 담론들에서 배제된 피식민지인·이민자·노동자·소수자·여성 등 종속적인 처지에 놓여 있거나 주변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발턴’을 사용한다. 서발턴은 ‘하위주체’, ‘하위계급’, ‘하층민’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서발턴은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억압집단을 나타내기 위한 혹은 기존의 피억압집단에서 배제된 집단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 지배와 종속이 기증하는 모든 곳의 억압받는 사람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하나로 고정된 폐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어쩌면 자리가 역전될 수도 있는 열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⁵²⁾ 즉 서발턴은

50) 고부웅,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시성사, 2004, 226면.

51) 강옥초,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8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2, 135면.

현재에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만 필요할 경우 지배집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력이다.

스피박에 따르면, 서발턴 연수 집단의 작업에서 “어떤 서발턴 의식 또는 농민의식을 조사하고 발견해서 확정한다는 것은 실증주의적 프로젝트-적절한 실행을 통해 견고한 기반에 또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에 도달하리라고 상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발턴은 ‘엘리트의 사유’ 없이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서발턴을 재현하려는 작업 중에 서발턴 연구 집단의 작업에는 항상 저 재현에 반하는 암시들이 담겨 있다. 즉 서발턴 의식은 엘리트의 흡인력에 종속되며, 결코 전면적으로 복원될 수 없고, 수령된 기표로부터 항상 비스듬히 어긋나며, 실로 노출될 때조차 지워지고, 비환원적으로 담론적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⁵³⁾

송명희는 디아스포라 문학을 탈식민주의 비평으로 분석하면서 탈식민주의 비평으로 디아스포라 문학을 연구해야 할 필연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탈식민주의 비평(postcolonial criticism)은 지배와 종속 관계를 매개로 하거나 그에 도전하거나 반영하는 문화적 형상물의 분석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즉 탈식민주의가 분석해야 할 대상은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다방면에 걸쳐 다른 민족, 인종, 문화 사이에 형성된 지배와 종속 관계뿐만이 아니라 같은 인종이나 문화권 그 자체 내에서 형성된 지배와 종속관계에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지배와 종속관계의 재생산이 전 계층과 성별 사이에서 분명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과 거주국의 주류집단 사이에 형성된 불가시적 긴장관계, 나아가 이주민들이 주류집단으로부터 겪는 불평등한 차별 등 재외한인의 경험, 심지어 모국인 한국문화와 재외한인문화 사이에 형

52) 송소용, 앞의 논문, 291면.

53) 안준범, 「서발턴 역사 개념의 형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9, 37면.

성된 중심과 주변의 관계 등은 탈식민주의적 시각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⁵⁴⁾

민족, 인종, 문화 사이에 형성된 지배와 종속 관계, 이주민과 거주국 주류집단 사이에 형성된 불가시적 긴장관계, 나아가 이주민들이 주류집단으로부터 겪는 불평등한 차별 등은 당연히 탈식민주의 비평으로 디아스포라 문학을 접근하게 한다.

송명희는 디아스포라 문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나타나는 재외한인의 경험-이주, 차별, 적응, 문화접변, 동화, 공동체, 민족문화와 민족 정체성 등-을 형상화하거나 주제로서 구현한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대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논의에서 각별히 주목해야 할 문제는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국에서 발생하는 민족정체성 의식과 억압 체제에서 나온 서발턴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은 재외한인의 경험, 이주·차별·적응·문화접변·동화·공동체·민족문화·민족정체성 등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지는 않다. 그의 소설들은 이주민들의 서발턴의 삶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서발턴 의식과 타국에서 경험하는 민족정체성 의식 등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도 민족정체성 의식과 서발턴 의식과 같은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접변 등의 문제는 민족정체성 의식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⁵⁶⁾은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중시하는 개념으로

54) 송명희, 『캐나다한인 문학연구』, 지식과교양, 2016, 23면.

55) 송명희, 위의 책, 22면.

56) 이에 대해서는 정영훈,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13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개인이나 집단을 주변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고 규정하는 일과 관련된 일련의 관념체계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두 가지의 용례로 쓰인다.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객관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존재의 의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전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들을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후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스스로가 소속이나 존재의의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양자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고유적 특성이 유지되면 자기존재에 대한 강한 긍정으로 나타나고, 자기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고유적 특성을 유지하고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자기존재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고유적 특성에 대한 애착심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고유적 정체성의 약화와 포기로 이어진다.

개인의 행동과 심리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정체성이다. 즉 자기 자신을 누구로 보는지, 주변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미래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자아의 발전에 따라,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되기 마련이다. 물론 정체성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것이라 해도, 정체성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거나 변화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자아의 안정적 유지나 집단 속에서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유지·고수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그것이 어느 부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대표적 속성이나 본질적 부분 그리고 비교 우위에 있으며 현실적 유용성이 있는 부분들은 유지·보전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적 특성 또는 소속의식을 가리키며, 정체성처럼 두 가

집, 재외한인학회, 2002, 5-38면 참조.

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객관적 특성-개성이라는 측면과,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존재를 어느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가의 주관적 민족의식 측면이다. 전자는 종족·혈통이나 문화 같은 객관적 지표들로 구성되지만, 후자는 개개인의 귀속의식이나 민족의식 같은 소속의식으로 나타난다. 객관적 요소를 보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흔히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민족 문화에 동화되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또 소속의식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은 민족적 공동 운명 의식이나 동포애와 애국심 같은 본격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사상의 심리적 토대가 된다.

디아스포라는 민족 공동체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생존하며 자체 민족의 영역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순적 존재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고향과 타향에 속하는 이중적 정체성, 제3의 공간에 속하는 정체성 등으로 파악된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이주한 공간의 특수성과 이주지에서의 체험, 이를 수용하는 주체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가변적인 것이다.⁵⁷⁾ 탈식민주의 문학이 흔히 “망명 의식, 소유권 및 상속권 박탈의 문제, 파생과 제휴의 문제, 정체성의 위기, 중심문학과 주변문학, 소속과 자리 뺏김의 문제, 그리고 지배문화의 불가식적인 억압과 임의적인 정체성 부여문제” 등을 다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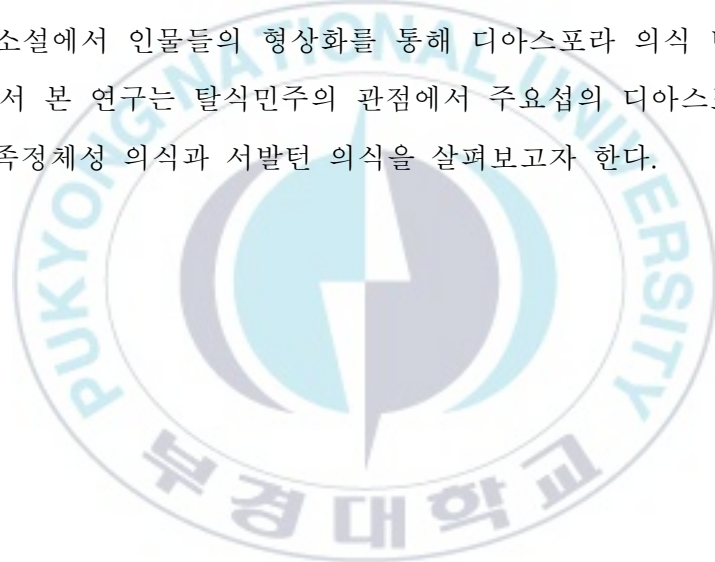
주요섭 작품 속 인물들은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라 일제의 억압으로 인한 비자발적 동기들에 의해 디아스포라가 되어 해외에서 유랑하였다. 이들 인물들은 사회 최하층인 서발턴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층적인 억압을 받으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타자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낙인을 갖고 이국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류문

57) 조은주, 앞의 책, 31면.

58)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 열음사, 1992, 16-17면.

화에 편입하려 하지만 주류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주민을 착취하고 배척한다. 더욱이 미국이 배경인 소설에서는 백인의 황인종 식민지인에 대한 차별까지 부각된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의 인물들은 이국의 낯선 언어와 문화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류문화에 들어가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서발턴과 더불어 민족정체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다. 주요섭은 해외 이주 기간에 접촉한 여러 디아스포라들의 경험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기록해 나갔다. 그는 중국 상해와 미국, 그리고 중국 북경 등을 배경으로 쓴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인물들의 형상화를 통해 디아스포라 의식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의식과 서발턴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주요섭의 해외 생활과 소설

1. 주요섭의 해외 생활

주요섭은 1902년 음력11월 24일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1915년 기독교 계통의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지만 3학년이던 1918년 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중학부에 편입한다. 하지만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을 선택하고, 평양에서 등사판 지하신문을 발간하였다.

주요섭 선생 관련 자료에 기록돼 있지 않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아일보 1922년 7월 21일자 1면 사고(社告)에 그의 고향인 평양 숙천분국 기자에 ‘주요섭(朱曜燮)’이란 이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 숭실중학 3년 때 동경으로 가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중학부에 편입, 3·1운동 후 귀국해 등사판 지하신문을 발간하다가 10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상해 호강대학으로 가기 전 잠시 평양 숙천분국의 기자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⁵⁹⁾

주요섭은 그의 「나의 문학 편력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일구일구년삼월 일일 독립만세운동이 터졌을 때 나는 「검은나비당」이라는 사밀결사의 일원이 되었다. 밤마다 비밀장소에서 원고를 써서 등사해 가지고 새벽에 몰래 무료로 집집마다 돌려주는 독립신문의 기자 겸 논설위원 겸 등사직공 겸 배달부까지 겸무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⁶⁰⁾라고 피력한 바 있다.

59) 신이, 「D-Story 110 : 동아일보에 모인 문사, 지사들(16) 주요섭」, 동네(동아미디어그룹 공식 블로그), 2011년 10월 24일, 9면.

60) 주요섭, 「나의 문학편역기」, 『신태양』, 신태양사, 1959, 269면.

그는 등사판 지하신문을 발간한 사건 때문에 일제의 출판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개월 동안 옥고 생활을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주요섭은 국내에 잠시 머물다가 일본의 감시를 피해 문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 상해지역으로 떠난다.

상해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무역통상 항구가 되었고 상공업도시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20세기 초에는 발전을 거듭해 중국의 경제·무역·금융·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유의 땅’, ‘모험가의 낙원’으로 아시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세계의 실업가, 정치인, 문화인, 탐험가들이 몰려들었다. 20세기 초, 일제에 맞서던 조선의 정치인들과 문학인들 역시 상해를 혁명의 거점과 동산재기(東山再起)의 발판으로 삼게 되었다. 게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많은 정치인, 문학인, 유학생 등을 상해로 모여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주요섭은 중국 상해에 건너가서 잠시 소주에 있는 안성중학교(晏成中學校) 3학년에 편입했다. 그 이후 상해의 호강대학교(滬江大學校) 중학부 3학년에 편입하였다.⁶¹⁾ 주요섭은 상해에 도착한 후 1927년 호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많은 혁명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안창호가 이끄는 홍사단에 가입해서 홍사단 144호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상해한인유학생회와 상해한인청년회 등의 애국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6년에는 통일된 학생단체 ‘상해한인학우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7년에는 ‘상해한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한다.⁶²⁾ 그는 상해에 홍수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자 수재민구호금 모집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61) 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앞의 논문, 155면.

1921년 3월 상해에 도착한 주요섭은 원래 직접 호강대학교 부속중학교에 입학하려 하였는데 기숙사가 부족하여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소주 안성중학교를 잠시 다니고 (1921.4-6) 다시 호강대학교 부속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923년 중학교를 졸업한 주요섭은 호강대학교에 진학한다.

62) 강진구, 앞의 논문, 252면.

었고, 일본과 영국 자본가들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그들의 잘못을 영어로 작성하여 미국 대학생들에게 전달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운동신경마저 뛰어나 당시 오천 미터 중국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 마닐라 극동 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참가하여 일만 미터에서 3등을 했다.⁶³⁾ 상해에서 그의 행적과 1919년 5월 평양에서 독립신문을 발간하다 체포되고 징역살이를 한 사실을 인정받아 주요섭은 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⁶⁴⁾

상해 유학 시절의 주요섭은 20대 초·중반의 나이였다. 그는 1919년 5월 평양에서 『독립신문』을 발간하다 체포되어 징역살이를 한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문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해지역으로 떠난다. 그 당시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었고, 이에 자극을 받은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 들어와 원동위원부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할 인재를 모으던 시기였다.

상해에 도착한 주요섭은 ‘홍사단’⁶⁵⁾에 가입한다. 홍사단은 “남다른 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고난과 치욕의 비운에 빠진 겨레와 나라를 구하여 그 전도 변영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단체이다”.⁶⁶⁾ 그리고 그가 가입한 ‘상해한인유학생회’, ‘상해한인 청년회’ 등은 모두 구국과 항일을 위한 조직이었다. 그는 ‘상해 5.30운동’과 ‘북벌군

63) 주요섭, 「내가 배운 호강대학」, 『사조』 1권6호, 사조사, 1958, 216면.

64) 「순국선열·애국지사 148명 훈, 포장」, 『조선일보』, 2004.08.14.

65) 동아일보(이름 밝히지 않음), 「홍사단의대회를 십오일부터 개최」, 『동아일보』 1923.2.22.

“조선인 지도기관인 홍사단의 원동대회는 십오일 오전 팔시부터 상해홍사단 단소에 개최되었는데 경과사업보고와 강연과 운동과 연극 등 여러 가지 흥미있는 순서가 만코 대회주석(大會主席)은 안창호씨요 강연회장(講演會長)은 손정도(손정도)씨요 출석한 단원은 사십여명이라더라(상해)” 이 기사문을 통해 1923년 2월에는 상해 홍사단 단원이 40여 명이 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66) 서영훈, 「홍사단과 한결 김윤경 선생」, 『나라사랑』91집, 외솔회, 1995, 289면.

의 상해 진주사건' 같은 중국 혁명 활동에도 직접 참여한다. 홍사단이 개최한 각종 대회에서 강연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당시 발표한 그의 강연문은 「습관」, 「마르크스와 우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민족개조는 가능한가」 등이 있다.⁶⁷⁾ 이 시기 주요섭의 활동이나 연설문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사상에 경도되어 있었으며, 직접적인 혁명운동을 주장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실천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혁명단체 가입과 혁명 활동 참여는 그의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애국의식, 그리고 민족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사상은 그가 창작한 소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요섭은 급진적인 혁명의식과 애국사상을 소설 속에 표출한다. 주요섭이 당시 발표한 소설은 그가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사상, 혁명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요섭은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상해 5.30 운동'과 '북벌군의 상해 진주사건'에 참여하였다. 1925년 5월 초 상해일상내외면공장(上海日商内外綿工場) 주인은 고의로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의 임금지급을 정지했다. 5월 15일 공장노동자인 고정홍(顧正紅)은 군중을 이끌고 공장 안에 쳐들어가 공장가동과 임금지급을 요구하다가 일본 기업가가 쏜 총에 맞아 죽고, 이와 동시에 1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총살이 도화선이 되어 상해 학생과 노동자들이 일본, 영국 등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에 반대한 반제운동인 '상해 5.30 운동'이 일어난다. 당시 주요섭은 호강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상해 노동자 총동맹과업에 참여하였다. '북벌군의 상해 진주(進駐)사건'은 1927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연합의 북벌군이 상해에 들어간 후 장개석(蔣介石)은 북벌군에 있는 공산당을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요섭은 호강대학교에 있는 공산당원을 도와 피신하였다.⁶⁸⁾

67) 최학송,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앞의 논문, 155면.

68) 위의 논문, 156면.

이 시기 주요섭이 참여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그가 마르크스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일제의 ‘동우회사건 기소문’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의 광임대(郭林大) 일파에서는 홍사단이 조선독립의 투사양성 또는 민족의 실력양성을 한 후에 혁명을 단행한다는 것은 미온적임으로써 직접적 혁명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방 상해에 있는 홍사단 원동위원부에서는 주요섭 일파가 사회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조선에서는 주요한 등의 급진분자로부터 수양동우회는 흡사 수양단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청년투사의 획득에 곤란함으로써 실력양성주의를 청산하고 정치적 훈련투쟁을 경(經)하여 직접적 혁명운동을 단행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인하여 안창호는 홍사단운동의 이론통일을 도모하려고 소화 2년(1927) 9월 조선으로부터 주요한을 초치 협의한 결과 홍사단 및 수양동우회를 혁명단체로 변혁하는 것은 사회정세의 변진과 함께 와해될 위험이 있는바 홍사단의 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는 때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됨으로써……69)

주요섭은 사회주의로 이행하여 직접적 혁명운동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6월, 호강대학교를 졸업한 주요섭은 상해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⁷⁰⁾ 스탠퍼드대학교에 진학한 주요섭은 교육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30년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주요섭은 “미국에 오기 전까지 근 7년 이상을 일본과 상해지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상해시절로 대표되는

6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時代) 3』, 한길사, 1986, 840면.

70) 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앞의 논문, 161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1927년 주요섭은 중국 시민으로 입적하여 ‘귀화증’을 땀다.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나 장기간 거주하던 사람들은 활동의 편리를 위하여 ‘귀화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귀화증’을 갖는 사람은 중국 공민으로 인정되어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당시의 생활은 비교적 풍족했던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과 형 요한의 정서적 뒷받침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⁷¹⁾

주요섭은 미국 유학을 하면서 혼자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았다. 그는 미국 생활을 다룬 글에서 유독 ‘생전 처음’이란 어휘를 사용하면서 고향을 강조하고 있다. 상해에서와 달리 가족의 보살핌에서 벗어난 주요섭은 배고픔을 겪어야 했고, 직접 고향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미국이란 땅에 온 지도 벌써 해수로 치면 이년이 되었습시다. 달로 치면 다섯달 났게 안이 되었스나 여러 번 붓을 들 생각은 나었스나 생전 처음하는 고향이라 일할라 공부할라 그저 눈 코 뜰 새 업시 분주해서 이처럼 실례되었습시다. 월여전(月餘前)에 비교적 조흔업을 었고 좀 주저안즐려고 했더니 또 업는 우리 동포로서야 그 생활이 여북 곤란(困難)하겠습닛가 갈사록 생활과 한탄(恨歎)만 느러갈뿐이엿습시다.

우리를 이민(移民)하야온 농주(農主)는 ‘마나리’라는 사당농장(砂糖農庄)의 주인(主人)이엿스며 이주(移住)한 우리 동포의 수는 남녀노소를 합(合)하야 약 이백명(約二百名) 가량임니다. (중략) 일반이 모도 노동자(勞動者)인 까닭에 노동(勞動)할 곳만 잇다번 그만한 생활(生活)은 유지(維持)하겠지만은 지금형편(只今形便)에는 노동을 하라고 하야로 할 곳이 업서서 소위제한적노동(所謂制限的勞動)을 하는 까닭에 매일 불과 사오시간(每日不過四五時間)의 노동(勞動)을 하고 따라서 일주일 수입이 이원내지사원(二元乃至四元)났게 안이 됩니다. 그것으로 식료비로 부족하거던 그중에 단체유지금(團體維持金) 학교유지금(學校維持金)을 내니 엿지 곤란(困難)치 안켓습닛가. 불행히 이집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고로 또 다시 실업자가 되었습시다. 어제 하로 돌아 단넛스나 새업을 엿지못했고 오늘 또 나아가보겟습시다. 학교에 갈라 노동 구하러 단닐라 좀 거북하외다.⁷²⁾

71) 강진구, 「주요섭 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앞의 논문, 254면.

72) 주요섭,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조선인」, 『별건곤(別乾坤)』16-17호, 1928.12.1, 159면.

주요섭이 미국에 고학할 때 쓴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그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갈수록 고생과 한탄만 늘어갈 뿐이었다고 고백한다. 일반적으로 노동할 곳만 있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세계경제공황 직후의 당시 상황은 노동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었다. 노동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매일 불과 너댓 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 수입이 이 원에서 사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받은 적은 돈은 음식비와 단체유지비 그리고 학교등록금을 내기에도 부족한 것이었다. 이러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주요섭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노동자로 몸소 체험한 소감을 글로 기록했다.

내가 직접 노동자(勞働者)가 되어보기 전에 노동계급운운(勞働階級云云)하는 것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 줄 알었습니다. 내가 직접 노동자(勞働者)가 되어보고 또 간간 업(業)이 업서서 배골아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 방황하며 음식점 유리창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서 잇쓸 때 그때에야 참으로 노동계급(勞働階級)의 생활(生活)이 었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퇴동계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퇴동계급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자선사업에서 떠나서 내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⁷³⁾

주요섭은 미국에서 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배가 고파서 거리로 나가 방황하며 음식점 유리창을 물끄러미 쳐다볼 때에야 참으로 노동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에 가졌던 많은 생각이 비현실적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요섭은 자신이 노동계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동계

73) 위의 글, 160면.

급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주요섭은 1930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1931년부터 동아일보사 잡지 『신동아』 주간으로 일했다.

“미국서 돌아오자 집사람이 신동아가 복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신동아에는 창간호부터 관여했었다. 그때도 미국서 갓 돌아 왔을 때였는데 송 사장의 부탁으로 일하게 되었었다. 설의식 선생 주관 아래 창간호의 교정을 보고 있을 때였다. 다음호부터는 설 선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맡아보았는데 원고 부족 총독부 검열 등 어려운 일이 많았다. 실명 외에 용악산인(龍岳山人) 양두식(梁斗植) 멩텅구리 등 가명, 필명으로 마구 쓸 밖에 없었는데 한번은 양두식 선생이 어떤 분이냐고 문의가 와서 모두 웃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들이다. 원고를 모아놓고도 고생이었다. 원고 검열이어서 손을 나누어 복사하고 한편으로 조판, 한편으론 검열을 진행시켰다. 신문사에서 하는 거라 보아 준다는 것이 자그만치 한 달이나 걸리곤 했다. 그만두라는 이야기와 같았다. 총독부의 눈을 속이려고 투고의 자구를 요리조리 수정하느라 모두 땀을 빼기도 하고, 자유천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여서 더했겠지만 부자유스럽기가 감옥 같았다. 2년 뒤 중국으로 떠났다. (작가, 초대 잡지부장 주요섭)”⁷⁴⁾

위 인용문을 보면 조선총독부 간섭이 점점 심해져서 원고 전부를 가지고 가서 검열을 받아야 했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을 김자혜(주요섭의 두 번째 부인)는 아래와 같이 회고한다.

그 당시 현재 광화문 네거리에 서있는 구 동아일보사 2층이 신동아의 산실이었는데 고흥곤씨 한 분을 데리고 글을 쓰고 각 곳으로 기사 취재 방문도 하러 다니고 원고가 다 모이면 조선총독부 검열과에 원고를 전부 가지고 가

74) 신이, 「D-Story 110 : 동아일보에 모인 문사(文士), 지사(志士)들 (16) 주요섭」, 9면.

서 검열을 받아야 했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은 기사들이 검열에 걸려서 붉은 잉크로 덮여져 있는 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 외에 그의 아호인 여심이나 양두식이란 가명으로 숨 가쁜 원고제작에 정신없었다. 75)

1934년 9월, 북경으로 건너간 주요섭은 1943년까지 보인대학교 교수로 재직한다. 1934년 9월 28일 『동아일보』는 「보인대학 교수(輔仁大學教授)에 주요섭씨 취임(朱耀燮氏就任)」이라는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사를 사임한 주요섭이 북경 보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담당과목은 ‘교육학’과 ‘서양 문학’이라고 밝힌다.⁷⁶⁾ 그리고 1936년 주요섭은 동아일보사 계열의 『신가정』⁷⁷⁾ 기자였던 김자혜와 북경에서 재혼했다. 주요섭은 미국 유학 후, 중매를 통해 황해도 출신의 유씨(劉氏)와 결혼했지만 첫 번째 부인과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한 채 독신으로 지냈다. 그런 아픔을 겪은 후, 『신가정』 기자인 김자혜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진다. 당시 주요섭은 『신동아』 주간이었는데, 『신동아』 사장 송진우가 사내에서의 남녀 관계를 금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은 북경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주요섭은 수필 「북경 잡신」에서 북경에 대해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안일하고 고전적이고 고귀하고 사랑스런 곳”, “북평(북경의 옛 명칭)처럼 깨끗하고 공원 같은 도시는 전 중국은 말고 아마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보기 드물 것이다”⁷⁸⁾라고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북경의 고궁에 대해

75) 위의 글, 8면.

76)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앞의 논문, 145면.

77) 신가정(1933년 1월 창간, 1936년 9월 1일 폐간), 당시의 암흑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교양과 지식을 주입시켜 새 가정을 만들어 나갈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간행된 여성 계몽지이다. 1933년 1월 동아일보사(사장 송진우)에서 발행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영업국장인 양원모를 발행인으로 내세웠다. 1936년 8월 「동아일보」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무기정간 처분을 당하게 되자, 『신동아』지와 더불어 1936년 9월 1일 통권 제45호로 강제 폐간되었다.

서 “그것은 친히 보지안코는 거의 믿지 못할 만치 화려하고 웅대하고 신비스러운 것이니까 공연히 그것을 문자로 묘사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자의 짓인 줄 압니다”라고 묘사한다. 북경 명물에 대해 ‘북평 양육(羊肉)·북평 압육(鴨肉)·북평 거지, 북평 먼지’ 등이 있는데, 주요섭은 북평 ‘돈회계’ ‘자전차’ ‘인력거’ ‘이발관’ ‘사진관’ ‘동안시장(東安市場)’ ‘수목’ ‘가두수류(假頭獸類)’ 등을 더 보충하고 싶다고 말한다.⁷⁹⁾ 북경의 구경거리로 그는 ‘고궁’ ‘도서관’ ‘동안시장’ ‘천단’, ‘향산’ 등을 추천한다. 그리고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새나 병아리를 기르거나 호궁(胡弓)을 타며 즐겁게 살아가는 중국 서민들의 여유가 있는 생활 방식에 공감하고, 이것을 “돈이 많아야 취미생활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조선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밝힌다.⁸⁰⁾

보인대학교 교수라는 직업, 좋아하는 여인과의 결혼,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 등은 주요섭에게 시간적·물질적·경제적·정신적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주요섭은 “지구(地球)의 약 삼분의 일쯤은 편답해본 경험이 있거니와 이 북평에서처럼 몸과 정신과 마음의 평화를 누려본 경험이 일찍이 없었다.”라고 회고한다.

하지만 주요섭의 북경 생활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고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표방하며 조선인 민족말살정책을 단행하였다. 북경은 동시대의 국내보다 여유가 있었지만, 1937년 ‘7.7사변’⁸¹⁾후 그는 북경에서도 일제의 주목과 감사를 받

78) 주요섭, 「북경잡신」2, 『동아일보』, 1934.11.13.

79) 주요섭, 「북경잡신」3, 『동아일보』, 1934.11.14.

80)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앞의 논문, 148면.

81) ‘7.7사변’은 노구교(盧溝橋)사건이라고도 부른다. 이 사건은 일본군대가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7년 7월 7일 북경 노구교 근처에서 야간 전투 훈련을 실시하던 일본군 중대는 실탄사격 소리를 듣게 되고 즉시 집호를 했는데, 병사 1명의 행방이 묘연하여 이것을 빌미삼아 일본 군대는 완평성(宛平城)에 들어가고 수사하려고

았다. 1938년 주요섭은 북경 주재 일본 영사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때의 조서 기록을 보면, 주요섭은 당시 ‘북경동성미시가청년회기숙사(北京東城米市街青年會寄宿舍)’에 거주하였으며, 일제는 그를 ‘좌익사상 포지자(左翼思想抱持者)’로 분류하고 “민족주의를 품고 있는 자로서 중국에 있는 한국인과 연락하여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주의중임”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43년 주요섭은 “일본의 대륙 침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아 귀국”하게 된다.⁸²⁾

2. 디아스포라 소설

상해시절에 주요섭이 발표한 소설은 매춘부, 인력거꾼 같은 사회 최하층 인물을 형상화하거나, 조선의 지식인 청년을 형상화한 소설도 있다. 이 시기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극단적이며 파괴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파괴적인 선택은 개인의 이상과 의롭지 않은 사회적 현실과 대립되면서 비극성을 드러낸다. 이 비극성은 독자에게 강한 정서적 충격을 주며 현실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이 시기에 발표한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살인」(1925)과 「첫사랑 값」(1925.9-1927.3, 미완) 등이 있다.

「살인」⁸³⁾에서는 우뽀가 매춘부로 살면서 성적으로 학대받자 포주인 똥똥

했는데 중국군대가 거절한다. 이후 일본군은 노구교에 주둔하며 중국 군대를 공격하고 중·일 양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7.29일 북경이 일본군에게 함락된다.

82)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앞의 논문, 142면.

83) 「살인」은 주인공 우뽀의 국적 때문에 논란이 많은 단편소설이다. 주요섭은 「살인」에서 우뽀의 국적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뽀를 한국인으로 간주하고 연구한 논문도 있고, 중국인으로 보고 연구한 논문도 있다. 필자는 우뽀를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이 작품을 분석하자고 한다. 우뽀를 한국이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 이유는 우뽀의 고향인 “호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한국 전라도 지역을 가리킨

할미를 살해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한다. 이 소설은 우뽀가 부모에 의해 상해까지 팔려가 매춘부가 된 이야기다. 아무 말 없이 억압받으며 살던 우뽀가 한 청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결국 자신을 착취한 포주할미를 죽이고 탈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주로 우뽀가 겪는 억압과 반항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소설의 결말에서는 비참한 현실이지만 비판하지 않는, 풀뿌리와 같은 강인한 반항의식을 우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여주인공 우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결말로 작품은 끝나는데, 그녀는 적어도 자신을 억압했던 현실에서 벗어난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생계를 도모할지, 이국 타향에서 어떻게 도망 다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쇄대문을 박차고 나온 장면은 억압 속에서 주변화된 타자 우뽀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희망을 제시한다.

「첫사랑 값」⁸⁴⁾은 1인칭 관찰자 ‘나’가 리유경의 일기를 소개하고, 일기 속 내용은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화자가 바뀌며 전개되는 액자소설 형식의 미완 소설이다. 주인공 유경은 강력한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을 표출한다. 소설에서 일기장을 통해 내보인 ‘5.3운동’에 대한 기록은 작가의 체

다고 생각했다. 중국 ‘호남(湖南)’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호남성(湖南省)’으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조선 여성들이 상해의 홍등가까지 흘러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자료에 따르면 1936년 상해 거주 조선인 여성의 수는 900명, 남성의 수는 897명인데, 여성 중 사창을 하는 여성의 수가 29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¹⁾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뽀가 중국 상해에서 매춘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 설정이다. 셋째 이유는 주요섭은 이 시기에 일제에 맞서 조국독립을 위해서 혁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마음이 조국을 향하여 있었기에, 최종적인 시선이 조선인에 집중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만약 우뽀의 국적이 중국이었더라도 주요섭이 그려낸 우뽀의 삶은 조선 여성의 고단한 삶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주인공 우뽀의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은 고단하게 살아가는 조선 민중들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의 반어적 표현이며 저항의지이다.

84) 「첫사랑 값」(『조선문단』, 1925, 9-11월호, 1927, 2-3월호)은 주요섭이 상해에서 창작한 중편소설이다. 19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선문단』에 3회가 연재된 후 휴간으로 연재가 중단되다가, 1927년 2월부터 다시 연재되었다. 『조선문단』이 재차 휴간하여 마지막 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소설은 미완성작품으로 남았다.

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소설 결말에는 주인공의 자살 행위가 나오면서 주인공의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유경의 첫사랑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상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민이다. 민족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경은 중국 여자 N과 사랑에 빠지자, 민족 해방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이상과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조국이 자주 독립권을 상실하여 식민화된 상황에서 조선 지식인 유경은 피식민지 타자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조국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N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이상과 사명감은 개인 욕망과 충돌한다. 이 소설에는 디아스포라로서 살았던 주인공의 민족의식과 민족 정체성 문제, 중국 여자 N을 향한 사랑과 조국의 독립 해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유경의 민족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주요섭은 1927년 상해 호강대학교를 졸업하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는 중국 상해에 머물던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디아스포라들을 바라보게 된다. 주요섭은 미국 배경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사실주의적 표현기법으로 하층 조선이주민의 삶을 보여주었다. 주요섭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상해 시절의 급진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요소들은 완화되고, 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몸소 노동을 하며 서발턴의 실체에 구체적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다.

고학생 신분이었던 미국에서의 주요섭은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과 형 주요한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던 상해에서와는 달리 하층 노동자의 생생한 삶을 체험해야 했다. 그는 미국에서 고학생살을 하는 동안, 배가 고파서 거리로 나가 방황하며 음식집 유리창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노동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많은 생각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학은 주요섭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와 그의 소설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주요섭의 미국 배경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교육을 받으려고 미국에 간 지식인이든, 돈을 벌려고 미국에 간 노동자든,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디아스포라 서발턴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 최하층 계급에서 방황하고 몸부림을 치는 인물로 설정된다.

이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디아스포라 생활과 관련된 작품은 「유미외기」, 『구름을 잡으려고』가 있다. 두 소설의 등장인물은 모두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며, 미국 사회 최하층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발턴이다. 서발턴을 소재로 한 이 시기 주요섭의 작품은 사실주의적 표현기법으로 재미 한인 유학생이나 노동자 등 하층 서발턴의 삶을 진실하게 보여준다.

「유미외기」⁸⁵⁾ 발표 당시 북미대륙을 기회와 황금의 땅으로 여기고 일 자리를 찾기 위해, 또는 유학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조선인들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으로 넘어간 조선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주변부로 소외되고, 백인들로부터 유색인종이라 차별받는다. 「유미외기」는 조선인이 처한 서발턴의 현실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인 청년 ‘이전’을 등장시킨다. 고학생 이전은 황금이 널려 있는 미국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려는 꿈을 꾸며 미국으로 건너가고, 고학으로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다. 그러나 그는 800불의 빚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일 자리를 찾아 나선다. 주요섭은 주인공이 일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시각으로 미국 사회의 황금만능주의와 유색인종 차별의 폐단을 발견하고 폭로한다.

85) 「유미외기」는 『동아일보』에 1930년 2월 22일부터 1930년 4월 11일까지 26회 동안 연재한 중편소설이다.

주요섭은 「유미외기」에서 지식인이지만 미국 사회의 서발턴으로서 타자로 전락한 이전이라는 인물을 통해 미국을 선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서양 문물을 비판 없이 수용하려는 조선의 지식인 청년에게 미국 생활 경험자로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구름을 잡으려고』⁸⁶⁾는 미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경험담과 작가 자신의 미국 유학 체험을 토대로 한 일종의 다큐멘터리 소설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리얼리티를 살리며 해외를 떠도는 주인공 박준식의 가난한 일생을 기록했다. 이 소설은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주인공 박준식이 멕시코와 미국 등 북미대륙을 떠돌아다닌 일생을 기록한 디아스포라 소설이다. 서발턴 노동자 신분인 준식은 북미 대륙에서 온갖 차별을 받는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 출신인 그는 운명에 맞서서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제도에 대항하지만, 죽을 때까지 서발턴 하층민 신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주요섭은 주인공 박준식이 민족적, 인종적, 계급적인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 가는 서발턴의 일생을 장편소설로 담아내고 있다.

1934년 주요섭은 북경의 보인대학교 교수로 재임한다. 그는 북경에 와서야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 안전한 직장, 원만한 혼인, 평화로운 생활환경은 그에게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여유가 그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북경 시절에 발표한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는 항상 지식인 1인칭 관찰자가 등장하여 서발턴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들은 서발턴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력자나 관찰자 신분으로

86) 『구름을 잡으려고』는 주요섭의 첫 장편소설로 미국 이주노동자 박준식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은 1935년 2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56회에 걸쳐서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주요섭이 훗날 「나의 문학적 회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에서, 이 소설은 1930년대 초 조선에 있을 때 미리 쓴 것을 1935년 북경에서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는 재조명받고 있는데, 주인공 박준식의 멕시코 생활과 미국 생활에 대한 기록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 자료로 가치가 높다.

등장하고, 서발턴의 생활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시대의 병폐를 폭로하고 한탄한다.

주요섭은 개인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한 우려와 일제에 대한 증오의식이 강해졌다. 1936년 미나미 지로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표방하며 민족말살정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1937년 일제에 의해 만주국이 건설되자 수십만의 조선인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만주문화회’란 단체를 결성해서 조선 작가들에게 만주 발전을 예찬하는 글을 쓰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주요섭은 여전히 소설을 통해 시국에 대한 개탄, 자신의 애국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을 표현했다.

이 시기에 발표한 「대서」, 「북소리 두둥둥」, 「봉천역 식당」에서는 작중 화자 1인칭 ‘나’는 지식인 신분으로 주변의 조선인 서발턴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주요섭은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 형세를 비판하고 조국과 동포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출한다. 「봉천역 식당」은 특히 그러한데, 이 작품은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봉천역 식당」은 일제의 수탈과 침략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한 조선 여인을 관찰하며 일제 침략의 가혹한 현장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봉천역을 자주 지나다니던 화자인 ‘나’가 역내 식당에서 8-9년 사이에 네 차례나 목격한 조선 여인의 변화를 다룬다. 화자는 한 조선 여인이 행복의 절정에 놓인 순진한 여성에서 참담한 서발턴 여인으로 점차 전락해 가는 것을 네 차례에 걸쳐 목격한다. ‘봉천’이란 장소는 일제 중국 침략의 시작점이며, ‘조선 여인’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 교묘하게 이용되지만 하는 ‘불쌍한 만주 한인’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주요섭은 이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조선 여인을 통해 디아스포라들의 고난에 찬 삶을 조명한다.

IV. 주요섭 소설의 디아스포라 의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주요섭이 해방 전에 발표한 디아스포라 소설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창작한 소설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시기의 조선은 일제 식민주의 정책에 의해 영토를 뺏기고,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약탈을 당하며, 조선인이 열등지위와 열등의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일제의 문화통치를 받게 된다. 일제는 산업 개발, 민풍 개선과 교육 보급 정책을 통해 조선을 일제의 피식민지로 만든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보면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억압을 받으면서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지식인과 민족투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 일제의 대규모 집단이주 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강제이주민 등 여러 유형의 이주민이 속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선인 이주민은 조국을 떠나지만, 피식민지의 낙인을 가지고 피식민지인의 굴레와 일제의 민족적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 일제 식민통치하의 인물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이고 주변화된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특히 억압의 정도가 심했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은 필연적으로 이주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인들은 해외로 이주해도 피식민지인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된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인종적으로 차별을 받는다. 이주한 여성의 경우 젠더의 억압을 받으며 이중 타자화, 삼중 타자화되었던 것이다.

주요섭의 소설에서 나온 디아스포라들은 주로 중국과 미국에 이주한 인

물이다.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받지 않지만 불가시적 차별을 받는다. 언어의 불통, 민족과 풍속의 차이, 가난, 정체성의 혼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국에서 주류사회에게서 고립되고 주변화되었다.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는 만주로 이민한 한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중국 동북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 만주국을 건설하고, 중국 동북지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세운다. 이에 따라 일제의 강제정책 때문에 만주지역에 이민하게 되거나 원래 이 지역에 살던 한인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소용돌이에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은 언어·풍속·생활습관·종교 차이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까지 받는다. 인종차별은 자민족중심주의와 출발은 같으며,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단이 모든 집단들 가운데 ‘최고’라고, 자기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태도를 가리킨다.⁸⁷⁾ 미국에 간 아시아 이주민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인종차별이다.

인종주의란 백인이 스스로 백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非)백인의 피부색을 그들 정체성의 전부로 간주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1970년에 제정된 미국 귀화법은 “백인만이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래서 미국은 백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으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부득이 유색 인종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은 백인에 의해 백인을 위해 백인 중심의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 근간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⁸⁸⁾ 따라서 주요섭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미국 백인사회의 인종차별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

87) 크리스티앙 들라캥파뉴, 하정희 옮김, 『인종차별의 역사』, 예지, 2013, 17면.

88)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백인도 흑인도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2007, 29면.

식민통치와 이주, 특히 이주과정에서 겪는 인종차별 체제는 한 민족의 구성원에게 민족정체성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식민통치는 피식민지 민족에게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각성하게 만든다. 한 민족 공동체의 형성은 한민족과는 다른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존재하고, 한민족은 그러한 외부 공동체와 구별된다는 의식이 형성되어 가던 19세기 말에야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일본을 포함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의 결과물이다. 한민족 공동체가 일제의 지배로 인하여 그 존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은 오히려 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한민족의 존재를 입증하는 계기가 된다. 존재하지 않는 민족을 말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식민 체제 하의 한민족 공동체는 다른 민족인 일본 민족에 의해 피지배자 집단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말미암아 한민족 구성원이 동질 집단임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⁸⁹⁾

디아스포라는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생존하는 모순적 존재이다. 그들은 이주한 국가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들이 기존에 지녔던 문화와 가치체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나아가 자신들의 가치관과 규범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서 ‘재사회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이주자들에게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디아스포라는 낯선 환경과 국가에서 고립되고 소외됨과 동시에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인종·민족관계에서 민족정체성은 긍정적인 만남을 위한 기초로서, 안정과 힘의 원천으로서, 혹은 주류로의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편견과 차별의 근거,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사회적 수용의 방해물, 또는 갈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외

89)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민족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125면.

되고 주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그 집단만의 정체성을 발달시킨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으로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아의식의 근거로서 문화적 혹은 국가적 결속을 강조할 때 존재한다. 이민자들은 당연히하던 그들의 모국을 떠나면서 낯선 땅의 이방인으로서 민족정체성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⁹⁰⁾

상이한 정치·경제·사상 체제에서 살아 온 재외한인에게 연대감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은 한민족 정체성이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식민통치와 이주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이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주요섭 디아스포라 소설 속 인물들은 민족적·계급적·인종적, 그리고 여성 인물들은 젠더의 억압까지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다층의 억압을 받으면서 주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주자들은 서발턴 인물로 볼 수 있다.

서발턴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 계급 등의 거대 담론에 의해 배제되고 억압되어 그 존재가 인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등장한 매춘부, 유학생, 노동자, 조선 여인 같은 인물들은 모국의 탄압, 착취, 억압, 궁핍과 같은 악조건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주했지만, 정착 이주국은 그들의 주체적 삶을 박탈하고 중심에서 배제하며 주변화 된 삶으로 몰아넣는다.

소설에서 나온 서발턴 인물들은 지배 권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사회 최하층의 상황을 서술할 능력조차 없다. 심지어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한다. 주요섭은 독특한 이주경험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90) Vincent N. Parrillo,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옮김, 『인종과 민족관계의 이해』, 박영사, 2010, 176면.

있었기 때문에 소설에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서발턴들의 생활상을 기록하여 재현할 수 있었다.



1. 민족정체성 의식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대한 논의에서 민족정체성은 각별히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점이다. 민족정체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을 주변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는 일련의 관념체계로서 민족적 특성 또는 소속의식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민족정체성에 대해 제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은 식민과 이주이다.

가. 일제 식민체제의 민족 억압

1910년 일제는 조선을 강제적으로 점령하여 토지를 의도적으로 약탈했다.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어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했고, 1910년에 실행한 토지조사사업⁹¹⁾과 1920년대에 실시된 산미증식계획⁹²⁾을 통해 농민과 양반의 토지를 빼앗았다. 일제의 토지 수탈이 심해지면서 농민들은 도시로 가거나 해외로 가서 살길을 찾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의 디아스포라 대부분은 일제의 통치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었다. “1909년부터 1925년까지 해외로 이민한 조선인은 30여만 명”⁹³⁾으로 추정된다.

일제는 경제적 약탈뿐만 아니라 문화통치를 통해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의식을 갖도록 만든다. 일제의 식민지배는 내선일체라는 명

91) 1910년부터 준비하여 1918년까지 한국 전역에서 시행된 일제 식민통치의 기초 작업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고도 불렸다.

92)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시행한 일제의 정책이다.

93) 왕가, 「만주국 시기 한·중 소설의 현실대응 연구 -안수길과 양산정의 작품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14, 26면.

분 아래 ‘동화주의’를 목표로 이루어졌다. 식민통치로 인해 조선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치·군사·경제·사상 등 각 측면의 억압을 받은 상황에서 해외로 떠나 민족과 조국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민족투사와 지식인들은 많아지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시한 강제이민 정책은 중국 동북 지역의 한인 이민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10-1918년에 걸쳐 진행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일본인 지주와 동양척식회사에 의해 조선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며 궁핍에 시달리게 되자 많은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년에 1만 호씩 이주시킨다는 계획 아래 조선인들을 집단으로 만주지역에 이주하였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때문에 이주한 인물들은 주로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산한 농민과 수공업자 및 그들의 가족들, 특히 여성이다. 「살인」에서 주인공인 우뽀가 농민이거나 수공업자가 아니지만 그녀가 유린을 당하고 상해까지 매춘부가 된 원인은 일제의 식민약탈과 무관하지 않다. 우뽀가 가난한 농민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큰 기근으로 열흘씩 굶었던 부모는 보리 서 말에 건축 공사 십장에게 그녀를 팔았다. 이 시기 일제가 추진한 공창제 실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이 매춘의 대상으로 도구화되는 폐해를 가져왔는데 우뽀 역시 이 체제의 피해자였다.

『구름을 잡으려고』의 주인공 박준식이 미국으로 이주한 시기는 일제강점기 이전이지만 일제가 조선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무렵이다. 조선 말기에 빈곤과 식량난에 처한 농민들은 우선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 1880년대부터 일본 상인들에게 입도선매 식으로 그들의 농작물을 팔게 되었다. 이것은 농민들이 일본 상인들에게 더욱 빚을 지고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

로 하여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감퇴시켰다. 1876년 강화도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상인들이 조선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기계로 만들어 낸 면직물과 금속 제품 등과 같은 일제 상품들은 당시 조선의 수공업의 기반을 허물어서 농민들과 장인들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만들었다. 주인공인 박준식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것이다.

둘째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해외로 나간 혁명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이다. 나라를 잃은 조선인은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당하게 된다. 일제의 폭정과 전제를 참아내는 것은 민족 생존의 부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무단 통치와 수탈 행위에 대하여 민족적인 저항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일제의 탄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외에서 민족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동북지역· 연해주(沿海州)⁹⁴지역에서 ‘독립의군부’, ‘광복단(光復團)’ 등의 독립 운동 단체들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각종 독립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 상해지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해외 민족운동을 극대화시켰다. 1914년 4월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의 지휘부가 정비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지역의 무력 투쟁을 비롯하여 각종 독립 운동이 고조되어 해외 민족 운동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첫사랑 값」의 주인공 리유정은 유학생이지만 민족 해방과 조국 독립을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는 강력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애국 지식청년으로 이 부류에 속할 수 있다.

셋째 일제의 실력을 확장하기 위해 실시한 강제이민 정책 때문에 해외로 이민하게 된 이주자들이다. 「봉천역 식당」에서 주인공 조선 여인이 어떻게 봉천에 갔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주 한인들이 피난민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게 되었던 ‘만주사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

94)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로, 두만강 위쪽 동해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도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의 결과 찾아낸 부동항이다. 1914년 대한 광복군 정부가 활동한 지역이다.

제국주의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침략전쟁은 만주한인을 곤경에 빠뜨린다. 「봉천역 식당」에 조선 여인의 몰락이 바로 화자 ‘나’의 세 번째 만남부터 가속화된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무관하지 않는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은 많든지 적든지 일제의 식민통치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소설을 발표한 순서에 따라 「살인」(1925. 6), 「첫사랑 값」(1925. 9-11, 1927. 2-3), 「유미외기」(1930. 2. 22- 4. 11), 『구름을 잡으려고』(1935. 2. 17- 8. 4), 「봉천역 식당」(1937. 1)에서 일제의 통치가 소설에 나온 다양한 유형의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들은 일제통치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살인」에서 우뽀의 운명은 계급, 젠더 등의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제의 식민통치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살인」은 “중국 상해의 홍등가까지 흘러든 조선의 시골 출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함으로써 조국을 잃은 우리 민족의 설움을 더욱 꺾진하게 그려냈다”⁹⁵⁾라고 밝힌 이승하의 지적처럼, 일제의 탄압과 약탈은 당시 조선의 농민들을 빈곤에 빠지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삼 년 전 호남에 큰 기근이 있을 때 열여섯 살이던 우뽀는 열흘씩 굶어서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눈이 뒤집힌 아비 어미에게 보리서 말에 팔려 그 때 기근 구제도로 건축 공사 십장인 어떤 양고자에게 처음으로 정조를 깨뜨리었다.⁹⁶⁾

우뽀가 유린을 당하고 매춘부로 전락한 것은 일제 치하의 민족적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기근’이지만, 농민들이 ‘열흘씩 굶어서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눈이 뒤집힌’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빈곤

95) 이승하, 앞의 논문, 412면.

96)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사랑손님과 어머니』, 문학과지성사, 2012, 38면.

을 강요하는 일제의 탄압과 약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공창제 실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매춘의 대상으로 도구화한다.

“일본은 통감부 설치와 동시에 조선인 매음부의 공창화, 그리고 조선의 매음 형태의 일본식 공창제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그것은 거류지의 공창제도화와는 대조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공창제도의 특징은 일본 국내 또는 거류지에서 풍기단속을 위해 유곽을 설치한 것과는 달리 시내에 산재돼 있는 상태에서 매음업을 공허하면서 매음부의 성병 검사를 중심으로 공창화를 실시한 점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선 사회 전반에 매매음을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의식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공창제도 확립 과정에서 매음부의 성병 검사가 일관해서 중시된 것은 일본 군대의 강병책이 중시된 것이 그 배경에 있었으며 그 실질적인 의미는 매음부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 도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⁹⁷⁾

우썸의 비참한 처지는 단순한 개인적 가정문제가 아닌 일제통치 아래 조선여성이 겪게 되는 고난을 대변한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과 관련 있는 문제는 일제가 조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매춘을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 내 통감부의 설치와 동시에 매음부의 공창화, 그리고 조선의 매매음을 일본식 공창제도화로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인정된 것이었다. 즉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일본의 공창제는 조선 여성들에게 피지배민족으로서 인권 유린과 함께 성의 유린이라는 이

97)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4』, 인물과사상사, 2007, 210면.

중적 착취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치로 작용한다.

「첫사랑 값」에서 주인공 유경이 상해로 가서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뇌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라는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주요섭이 중국 상해로 유학 간 이유를 “공부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왜놈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처럼, 그의 자전적 소설 「첫사랑 값」에서 주인공 유경의 고뇌는 주요섭의 고뇌와 동일하다.

「첫사랑 값」에서는 일제가 조선인을 억압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주요섭이 일제의 엄격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주인공 유경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유경은 식민지 지식인이면서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민족투사이다. 유경은 상해에서 유학하면서 독립권을 잃은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해야하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 유경은 “비상한 시기에 처한 청년은 비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목숨도 희생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혁명에 참여하려고 한다.

유경은 ‘상해 5.30 운동’에 참여한 상황을 일기장에 상세하게 묘사한다. “남경로(南京路)에서 학생이 연설하다가 영국 관헌에게 총살이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 “학생자치회 결의로 동맹 파학했다”, “오후마다 대를 나누어 근처 촌락과 공장으로 나아가서 선전 연설과 파공 선동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상해 5.30운동’에서 유경은 회계부장으로 당선되었지만, 같은 회계부에 있는 N 때문에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혁명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런 일(연애)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나 결국 회계부장 자리를 내놓으며 “뒤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잡아당겨서 그만 못 하고 말았다”라고 고백한다.

소설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일제의 식민통치 때문에 유경은 자유연애의 권리를 상실한다. 현재는 자유연애와 국제연애가 혼한 일이지만, 유경이 상해에서 머물던 시기에는 식민지 청년이 국적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기엔 심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경은 중국 여학생 N에 대한 사랑과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는 민족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유경은 중국 여학생 N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깊어진다. N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한 채 자책감에 빠진다. 심지어 혁명 의지를 포기하려 한 자신을 힐난한다. “내가 N를 사랑한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첫사랑이다. 내 양심이 증명한다”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감정을 지우려 한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런 달콤한 맛에 취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멀리서 ‘꽁꽁’ 울려오는 대포 소리를 듣고 있었다. (...후략...)98)

그러나 내가 미친놈이다. 나는 속으로 늘 ‘안 된다. 안 된다.’하였다.99)

(...전략...)또다시 침묵,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하나도 입 밖에 내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더욱이 뒤에서 자꾸 ‘단념해라 단념해라’ 하는 생각이 말문을 꼭 막아놓는다. (...후략...)100)

(...전략...)그러면서도 또 내가 먼저 편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더 큰 것이

98)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67면.

99) 위의 책, 70면.

100) 위의 책, 74면.

하나이다. 그것은 역시 끊임없이 ‘단념해라, 단념해라’하는 양심의 부르짖음이다.¹⁰¹⁾

지금 단념하는 것이 낫다. 연애란 다만 찬스로 되는 것이다. N과 내가 우연한 찬스로 얼마 동안 기뻐도 했고 고민도 당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찬스를 피하고 멀리할 때 자연히 차차 멀어지고 그도 나를 잊어버리고 나도 그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¹⁰²⁾

사랑을 단념하려는 이유는 “이런 달콤한 맛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자책하며 민족과 조국을 해방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는 독신 생활까지라도 하기를 사양치 않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이 꼴을 무엇인가, 조그만 계집애 하나에게 미쳐서 공부도 확실히 못하는 꼴은 무엇인가? 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며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가서지 못한다.

유경이 자살을 선택한 것도 일제의 식민통치와 관련되어 있다. 이 소설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유경이 자살한 과정과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자살을 선택한 원인은 조국 해방을 앞세우다 보니 첫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괴로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경은 식민지 청년으로서 젊어져야 할 책임감 때문에 N을 포기하고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우울증에 빠진다. 그가 첫사랑 N과 자유롭게 사랑하지 못한 원인은 피식민지 민중들은 자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유경이 자살하는 모습을 통해 피식민지 지식청년으로서 조국 해방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을 배경으로 창작한 소설 「유미외기」와 『구름을 잡으려고』에 나온 인물들은 조국을 멀리 떠나 북미대륙에 도착하지만 여전히 일제 식민통

101) 위의 책, 79면.

102) 위의 책, 81-82면.

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구름을 잡으려고』에서는 일제의 농민에 대한 억압 때문에 농민이었던 박준식이 북미대륙에 가기 전에 굶었던 상황,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당시 미국에서 살던 조선인들이 조국을 잃어버리고 분개하는 상황을 통해 재미한인의 민족사명감과 민족정체성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

『구름을 잡으려고』 도입부에서는 준식의 궁핍한 처지가 드러난다. 준식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려고 고향을 떠나 팔백리 길을 걸어 제물포까지 간다. 제물포에 가는 길 내내 길 옆에 밭이 있고, 그 끝없는 밭에서 보리와 쌀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만, “이상한 일로는 지금까지도 그 얻기 쉬운 밥을 얻기 위하여 팔백리 길을 찾아왔다가 얻지도 못하고 낯선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회상하였다. 그는 “어떻게 해야 오늘 저녁밥을 먹을 수 있게 될까?”라고 걱정한다.

“어떻게 해야 오늘 저녁밥을 먹을 수 있게 될까?”하는 걱정이다. (...후략...)

준식은 또 한번 여기저기 웅크리고 앉아 있는 밥 찾는 무리들을 둘러보았다. 그 많은 밭에서 난 곡식은 모두 어디로 갔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밥 한 그릇을 얻으려 여기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준식은 또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작년 일 년 자기가 맡아서 농사 지은 그 추수만 하더라도 혼자 두고 먹으려면 사 오년 먹어도 못다 먹을 만큼 많았었다. 그런데 그 수다한 곡식은 모두 어찌하고 지금 이렇게 밥을 얻기 위하여 낯선 곳을 헤매고 있는가? 이것이야 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¹⁰³⁾

준식은 끝없이 펼쳐진 밭과 곡식이 있는 상황에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103)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현진건·주요섭, 『신선(新選)한국문학전집2』, 창우문화사, 1982, 275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시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하기 전이지만 일본의 상인들이 조선에 침투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 왕조 말기 양반 지주들과 부패한 관리들은 농민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고,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잦은 흉년은 농촌에 기근과 전염병을 만연시켰다. 빈곤과 식량난에 처한 농민들은 우선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 1880년대부터 일본 상인들에게 입도선매 식으로 그들의 농작물을 팔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일본 상인들에게 더욱 빚을 지게 되었고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다. 농민뿐만 아니라 수공업자도 일본 상인 때문에 비슷한 곤경에 빠진다. 1876년 강화도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상인들이 조선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기계로 만들어 낸 면직물과 금속 제품과 같은 일제 상품들은 당시 조선의 수공업의 기반을 허물어서 농민들과 장인들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었다.

초기 한인 이민자의 주요한 부류는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미국으로 건너 간 정치 망명가들이다. 윤인진¹⁰⁴⁾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24년까지 541명 가량이 학생의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 한인 사회의 지적·정치적 지도자로서 부상하였고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구름을 잡으려고』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미국으로 건너 간 정치 운동가들이 등장한다.

일천 구백 십년을 전후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조선 사람 중에는 시국에 불만을 품고 망명된 지사들도 얼마간 있었다. 그런데 망명객이란 대개 또 감정에 흐르기 쉬운 사람들이다. 더욱이 당시 조선 사람은 ‘비분강개’한 언동으로써 한 행세 꺼리로 알 때이었으리오!

그래서 이 ‘비분강개’는 조선 노동자들을 감동시키기 가장 쉬운 방도이었다.

104) 윤인진, 앞의 책, 207면.

따라서 개인적 희망이나 목표를 세우지 못한 그들에게 광막하게나마 집단적 희망과 목표를 세워 줄 수가 있었다.¹⁰⁵⁾

한일합방 전후 조국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운동을 한 민족투사들은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지도하고 격려한다.

주요섭이 북경에서 발표한 「봉천역 식당」은 조선 여인의 몰락과정이 일제 식민통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가 이 소설을 창작한 동기도 일제의 식민 세력 확장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서의 화자인 ‘나’가 조선 여인을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봉천 일대가 전시 상태와 같은, 일제의 제국주의 야욕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만주사변이 었그제 생긴 일이라 봉천은 전시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때 역시 나는 여행을 안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 무시무시한 감시와 취조를 받아 가면서 봉천에 내렸던 것입니다.¹⁰⁶⁾

1931년 9월 ‘만주사변’은 ‘만보산 사건’¹⁰⁷⁾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9월 18일 밤 일본군은 봉천(奉天, 지금의 심양) 교외의 유조호(柳條湖) 부근에

105) 위의 책, 374면.

106) 위의 책, 242면.

107)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8집, 인물과 사상사, 2008, 31면.

‘만보산 사건’은 1931년 5월 하순 만주 창춘(長春, 장춘) 근교의 만보산 삼성보(三姓堡)에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수로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규 사건이다. 그해 6월 초 중국 경찰이 조선 농민을 몰아내자, 일본의 영사 경찰은 조선 농민들이 법적으로 일본 신민이라며 이 분규에 개입하게 된다. 조선 농민들은 일본 경찰의 보호 아래 수로 공사를 강행하고, 몇 차례 충돌 끝에 7월 1일 중국 농민 2백여 명이 조선인들이 만든 수로를 파괴하자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중국 농민들을 향해 발포하게 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 남만주 철도의 일부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군의 소행으로 돌리며 공격을 개시했다. 이게 바로 ‘만주사변(9·18사변)’의 서막이었다.”¹⁰⁸⁾ 이 사변을 통해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14년간의 식민통치를 실시하기 시작한다. 봉천은 만주사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지역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침략전쟁은 만주 한인(봉천 포함)을 곤경에 빠뜨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¹⁰⁹⁾ 일제는 만주사변을 통해 중국 대륙침략을 본격화했으며, 만주 한인들은 “피난민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게”¹¹⁰⁾ 된 것이다.

가난에 쫓겨 압록강을 건넌 만주 한인들의 생활 여건은 중국인보다 더 열악하였다. “그들은 실제로 용이한 민족 박해의 대상이며, 떠돌이 비적들의 일차 먹잇감에다, 만주국 정부에 의해서는 ‘위험한 공산분자’로 감시받은 사람들이었다.”¹¹¹⁾

「봉천역 식당」에서 조선 여인의 몰락은 바로 세 번째 만남, 즉 만주사변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조선 여인의 몰락이 일제의 침략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 여인은 일제의 계산된 침략 전쟁 속에서 민족적으로 박해를 받았으며, 중국인에게도 감시받는 대상이었다. 이 소설은 해외에 있는 조선 여인의 몰락 과정과 만주사변을 연결시킴으로써 중국에까지 미친 일제 식민주의의 영향과 조선 민족의 위기, 그리고 해외를 떠돌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타자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

108) 강준만, 위의 책, 39-40면.

109) 이범진, 「“한국인 이중징용, 고이소 총리가 지시”: 1944년 일본 각료회의 극비문서 발견」, 『주간조선』, 2004.09.03.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1932년 5월 이전까지 한인 사망자 148명, 부상자 226명, 부녀자 강간 48건, 가옥 방화 76건, 가옥 파괴 98건, 가옥 약탈 1,121건, 종자 씨앗 방화나 약탈 350건,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받은 한인 수는 3만5천여 명에 달했다. 강준만, 위의 책, 41면 재인용.

110) 강준만, 앞의 책, 42면.

111) 정운현, 「정직한 역사 되찾기 : 친일 군상(24회)」, 『서울신문』, 1999.2.8, 13면. 강준만, 앞의 책, 49면 재인용.

나. 백인사회의 인종차별

식민지 개척자는 기득의 이익과 권력을 합리화하고 피지배자의 피지배 위치를 정당화시키는 규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피식민지인을 사회 중심에서 쫓아낸다. 이주민들이 현지 주류사회에서 소외되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종족 또는 인종차별이다. 인종주의란 백인이 스스로 백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非)백인의 피부색을 그들 정체성의 전부로 간주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1790년에 제정된 미국 귀화법은 “백인만이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백인에 의해 백인을 위해 백인 중심의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 근간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¹¹²⁾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 중 미국이 배경인 소설은 중국이 배경인 소설과 달리 주인공이 황인종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고 주변화된다. 중국이 배경인 소설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은 같은 황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미국이 배경인 소설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1920년대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유럽 제국과 미국의 식민지였고, 이들 국가 대부분은 경제적 약탈과 강압적 통치, 그리고 사상적 억제를 통해 주변화된다. 그래서 황색 피부를 가진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백인우월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당한다. 주요섭의 미국 배경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현실 때문이다.

『유미외기』와 『구름을 잡으려고』의 주인공 이전과 박준식에게 인종차별 문제는 사회 최하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당시 미국에 사는 유색인종은 취업은 물론 직종과 대우, 사회복지와 이민정책

112)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백인도 흑인도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2007, 29면.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유미외기」 주인공 이전이 하류층으로 살며 전락한 것은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람을 포함한 유색 인종들은 그들의 주체적 삶을 박탈당하고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당한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은 미국에 온 지 여러 해가 된 조선 동포 황(黃) 군과 소개소 주인이 “신문의 고용 광고 대부분은 주로 백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 말에서도 드러난다.

창졸간에 일자리를 못 어들 줄 각오한 이(李)는 아침 신문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보기 시작했다. 쿡, 정원직이, 점원, 은행원 등등 고용(雇傭)군 요구하는 광고가 이면 전부는 대개가 백인고인(白人雇人)을 본위(本位)로 한 것 이어서 황인(黃人)은 차자가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충고이었다. 이(李)도 미국에 처음 와서 거기 대한 경험이 어슴으로 그에 동의했다.¹¹³⁾

이전(李栓)은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같은 아시아인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전은 상황에 따라 중국인 또는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행세하며 일자리를 구한다. 이국에서 타자로 살아가는 일은 고생의 연속이었다.

조선인은 여관, 세집 등에 하인이 만다. 중국인은 으레 밥 짓는 즉 일인(日人)은 정원 일꾼 비율빈인(比律賓人)은 음식점 그릇 닦기가 정업이다. 철로에서 일하는 것은 물어보지 안코도 묵서가인(墨西哥人)인 줄 알 수 있으며 흑인은 청결통 구루마꾼이나 구두 닦기로 밥비러 먹는다. 유태여자는 매음, 이태리여자는 음식점 하녀, 미국여자는 상점은행 등의 속기서기(速記書記)가 마타둔 업이다. 노동뿐 아니라 상업에도 민족적구별이 있다. 청요리세탁업은 중국

113) 주요섭, 「유미외기」 6, 『동아일보』, 1930.03.01.

인의 독점이고, 조선인은 양복 푸렝썩 급이발소(及理髮所) 고려인이발소라고 간판을 크게 걸고 중국인 고객을 본위로 한다. 일인(日人)은 과물점(果物店)과 동양진품상(東洋珍品商)이다. 유태인은 의례히 고물상하고 이태인은 요리업자가 만다.¹¹⁴⁾

이 소설에 반영된 미국 사회의 직업에서도 선명한 인종차별이 나타난다. 조선인은 여관·셋집 등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중국인은 음식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한다. 일본인은 정원 일꾼으로, 필리핀인은 음식점 그릇 닦기로, 멕시코인은 철로에서 일한다. 흑인은 청결통(清潔桶)을 치우는 일이나 구두 닦기를 하고, 유태인 여자는 매음을 하며 살아간다. 소외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는 인종 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최하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상점과 은행 같은 편한 직장에는 대부분 백인이 일하고 있었다.

“이주를 수용한 나라에서 완벽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영토적 경계 월경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주민은 영토적 경계보다도 훨씬 극복하기가 힘든 전혀 다른 경계와 만나게 된다. 그것은 법적인 인정의 경계, 문화적 수용의 경계, 정치적 참여의 경계, 관용과 이해의 경계로서 공식적인 포함(inklusion)조차도 사실상의 배제로 바꾸어버릴 수 있는 경계이다.”¹¹⁵⁾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는 이민자들을 주변화시킨다. 1924년 이민법으로 아시아계 이민의 완전 금지와 유럽 이민자의 제한 등을 추진한 미국은 직업에 종사할 수 기회를 제한한다. 백인 중심의 미국 주류사회는 남미나 아프리카·아시아 이주민들이 주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유색인종 차별 때문에 미국에 온 다른 인종들도 타자가 되었다. 하지만 조선인은 유색인종이면서 피식민지인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다.

114) 주요섭, 「유미외기」 23, 『동아일보』, 1930.04.08.

115) 마르크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 이브르, 2010, 222면.

이 소설에서 박(朴)군과 황(黃)군도 이전의 운명과 같이 소외된 조선인이다. 박(朴)은 20년 전에 포와로 왔다가 본주(本洲)로 건너왔다. 그는 돈 벌 욕심에 매일 17시간씩 포도를 따다가 병이 들어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가 없어 병이 낫기도 전에 병원에서 쫓겨나 기침을 달고 산다. 박(朴)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하소연한다.

“몸은 아픈데 가방 들고 병원 문밖에 나서고 보니 그만 천지가 아득합니다. 그때는 그저 폭발탄이 잇스면 그놈의 병원을 깨서 부시고 만습되다”하고 그는 이(李)에게 이야기했다. 박(朴)은 그후로 공부하려든 야심도 다 업서지고 그러타고 돈도 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되는대로 살아간다구 한다. 116)

미국은 박(朴)이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지만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박(朴)이 기대한 것과 달리 자본의 논리에 움직이는 미국 사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낸다. 박(朴)은 황인종으로 차별받았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박(朴)은 이전에게 한 톱 낸다며 지나인(支那人) 거리로 가서 술을 마신다. 그는 이전을 데리고 노름판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돈을 잃고 “이군(李君), 이 은행에서 영원히 예금해버린 조선인의 돈만 해도 수십만 불은 착실히 됩니다”라고 한다. 주요섭은 마음 붙일 곳 없이 사는 박(朴)이란 인물을 통해 미국에서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주변화된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조선인 황(黃)도 박(朴)과 비슷한 형편이었다. 그는 2년 전에 10년 고학을 해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엘리베이터 뽀이’로 일한 지 벌써 일 년이 되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황(黃)은 잠시 짬을 내서 이야기할 여유조차 없다.

116) 주요섭, 「유미외기」5, 『동아일보』, 1930.2.28.

근처 가정에 쿡으로 일들어온 박군이 어떤 토요일 저녁에 차자 왔다. 박군을 딸하 먼저 한 십리(十里)떨어져 있는 어떤 상등여관을 차져 갔다. 뒷 문으로 들어가서 지하실로 끌고가드니 승강기 초인종을 누른다. 잉하고 소리가 나며 승강기가 내려오는데 이(李)는 보고 깜짝 놀랐다. 고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승강기를 부리는 뽀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李)가 전부터 알든 황군이기 때문이었다. “어, 이거 문학사가 이게 무어요?” 하면서 언제나 쾌활한 박(朴)은 황군의 제복(뽀이들이닙는옷)을 똑똑 잡아 뜨르며 크게 웃는다. 황(黃)과 이(李)가 오래간만에 맞난 인사도 채 마치기전에 “뽁뽁”하고 종이 운다. 황(黃)은 “제기씨” 소리를 연발하며 엘리베이터를 끌고 올라간다. 한참 동안 이 다 오르고 내리는 소리가 나드니씨 | 익하고 다시 내려온다. 말 두마디를 건너기 전에 또 종이 뽁뽁 운다. 황(黃)은 또 다시 올라간다.¹¹⁷⁾

박(朴)이나 황(黃)과 같은 조선인들은 미국을 떠도는 디아스포라 서발턴이다.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인종 차별이 심한 미국 사회는 그들을 주변부로 소외시켜 버린다.

「유미외기」는 아시아 이민 2세들의 소외된 삶을 통해 타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다. 이전이 일본인인 척하며 과일가게에서 일할 때, 옆 집 채소상에서 일하는 일본인 도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들의 처지를 알 수 있다.

도변이는 미국서 나서 자라난 아이로 소중대학(小中大學)을 다 미국서 졸업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째서 점원 노릇을 하느냐?”고 시침이를 떼고 물었드니 “동양인종이 되어서 상당한 직업에는 기회가 없다”고 대답한다. 일본인 경영의 상당한 은행회사도 있는데 어깨 거기도 일자리가 업느냐고 물었드니 그런데서는 미국 성장한 청년들은 신용이 적고 게으르다고 돌이켜 일본으로부터

117) 주요섭, 「유미외기」17, 『동아일보』, 1930.03.28.

본국 대학 출신들을 고용한다고 한다. 도변이는 법률상 미국시민이었다. 그러나 얼굴이 노라코 코가 납작한 관계상 미국시민인 권리도 다 찾지 못하고 또 그들 사회에 섞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미주출생일인(日人)들끼리 회를 조직하여 거기서 오락과 사업을 찾는다고 한다.¹¹⁸⁾

아시아 이민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 교육을 마치더라도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없다. 그렇다고 조국으로 돌아가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 모국어가 서툰 그들은 조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은행에 일자리가 없느냐?”는 이전의 질문에, 도변은 “미국에 있는 일본 은행들은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은 믿을 수 없고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일본 본국 대학 출신자들을 채용한다”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틀림없는 미국 시민이지만 얼굴이 노랗고 코가 납작한 황인종이기 때문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미국의 주류사회에도 들어가지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국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 미국과 자신의 모국 두 세계에 속하면서도 어느 곳 주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계인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타고 또 일본신민이 되려는 생각도 한푼어치도 없다. 어려서부터 학교 학후에는 부모 강제에 못이겨 “국어학교”에는 다녔으나 장성한 후에 일어를 도모지 쓰지 안함으로 거이 이저버렸다고 한다. 일문신문도 절대로 읽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일본정부에서는 너를 자국민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더니 대답이 “그까짓 자기네끼리야 아무런 질알을 한들 내가 일본 가지 안는데 저히들이 별 수가 있나?”하고 웃는다. 이 태도는 도변이 일인(一人)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미국서 출생된 일인(日人)들 다대수이 사상이 그러하았다. 중국인 제2세민이 또한 자국에 대하여 그 비슷한 사상을 품고 있다. 조선인은 민족 특수 상태 때문

118) 주요섭, 「유미외기」8, 『동아일보』, 1930.03.05.

에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있스나 역시 조선인 제2세도 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중간에 걸쳐 노혀 잇는 것이 사실이다.¹¹⁹⁾

아시아 이민 2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다. 모국어를 거의 쓰지 않아 잊어버렸고, 자신의 정체성도 뚜렷하지 않다. 일본인 이민 2세 도변은 조선인 이민 2세도 같은 처지라고 말한다. 조선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조선인 이민 2세 역시 미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삶을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는 미국이 백인에게는 황금의 땅이지만, 이주민들 특히 아시아인에게는 뿌리내리고 살 수 없는 모래사막으로 여긴다.

『구름을 잡으려고』에 나오는 준식은 돈을 벌기 위해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유색인종이며, 저임금 노동이주자이다. 그래서 준식은 이민문제를 비롯하여 식민지 문제, 인종과 계급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와 민족이 다른 이국땅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예상한 일이지만, 국경을 넘어 영토·언어·종교·문화·경제·생활습관 등이 서로 다른 생소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미국은 백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으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유색인종을 이민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황색 피부의 준식이 인종차별이 심한 백인우월주의 사회에서 주변화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무산계급 노동자 신분인 준식은 황금만능주의 미국 사회에서 자본에 지배당한 채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업을 구하던 준식은 미국의 직업은 인종적인 차별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다.¹²⁰⁾

119) 주요섭, 「유미외기」8, 『동아일보』, 1930.03.05.

120) 이는 1930년 4월 8일에 연재한 「유미외기 (23)」에도 잘 드러나 있다.

로싼젤스의 직업에는 전 도시를 통하여 민족적으로 어떤 구별, 곧 전문이 있는 성싶었다. 중국인이면 으레 세탁소, 요리인이 그 정업이고, 일본인이면 으레 채소상, 정원(정원)꿈이, 유대인은 고물상, 목서가인은 도로 공부나 전차 선로부, 껌둥이는 으레 쓰레기통이나 구두닦이나 정거장 짐 나르기, 회랍인은 이발사, 애란인은 순사, 인도인은 손금이나 관상쟁이, 조선인이라면 미국인이 눈을 크게 뜨고 “코리아라는 섬이 어디쯤 있는가?” 하고 물을 만큼 도무지 알려지지 못한 민족이니 별로 말할 거리도 못되지만 당시에는 역시 채소상으로 생계를 잇는 이가 아마 재류 조선인의 반이나 되었었다. 121)

주요섭이 바라본 미국 사회는 직업을 구할 때 민족적·인종적·계급적 경계가 뚜렷이 드러나 있고, 이러한 경계가 이민자들을 힘들게 했다. 이전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데, 그의 피부색과 피식민지인 처지는 미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주요섭은 준식과 같은 이민자들이 문화 차이 때문에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차별적 경계를 내세워 그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 사회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도, 탐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미국 사회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이민자들을 그 사회로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적 편견이 지배하던 시대상황 때문에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준식은 서양 노동자들의 배타적인 행동에 개의치 않고 억척같이 일하여 도시에 가게를 차린다. 그러나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다시 한 번 계급과 인종, 빈부 격차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목격한다. 준식은 미국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별받는 황인종이며 하류 노동자 계급이란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121)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앞의 책, 457-458면.

사흘 후에 정부가 다시 들어왔고 경찰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자 계급과 인종과 빈부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식료품의 공급,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었다. 그런데 이 긴급한 문제에 있어서 부자 계급과 상류 계급은 돈 없는 계급과 하류 계급보다 우대를 받을 권리가 되는 백인종은 황인종보다 우대를 받을 권리가 되었다. 그 권리는 마치 하늘이 준 권리 같았다. 거기 아무런 이의도 없겠고 항의도 없을 것이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벌써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황인종보다도 백인은 하느님이 택한 백성 또는 지구를 사람의 영광으로 장식해 놓은 문명인이 아니냐? 얼굴이 노란 황인종은 세상 이치의 가장 쉬운 것도 분별 못하는 ‘야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백인종의 목숨이 자기네들 황인종의 목숨보다 얼마나 더 귀하다는 것을 모른다. 참으로 할 수 없는 ‘야만’들이다.¹²²⁾

규모 7.8 이상의 대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초토화되었다. 가옥이 붕괴되고, 화재와 전염병 등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생겼다. “대부분의 건물이 화재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지진으로 손상된 건물 대부분이 방화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국에서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을 폭파했다.”¹²³⁾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게를 열었던 준식은 지진과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다. 지진 발생 후 수백 명이 약탈을 자행하다 사살되었는데, 주요섭은 준식을 통해 황인종들이 백인 경찰들에게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고발하고 있다.

얼굴이 노란 황인종은 세상 이치의 가장 쉬운 것도 분별 못하는 ‘야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백인종의 목숨이 자기네들 황인종의 목숨보다 얼마나 더

122) 위의 책, 370면.

123) 피터 퍼타도·마이클 우드, 김희진·박누리 옮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역사 1001 Days』, 마로니에북스, 2009, 30면.

귀하다는 것을 모른다. 참으로 할 수 없는 ‘야만’들이다. 문명을 지을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문명을 지은이들께 감사한 생각조차 가질 줄 모르는 무지막지한 ‘야만’들이다. 그래서 이 ‘야만’들은 백인에게로 가는 떡을 가서 빼앗아 왔다. 그리하여 이 ‘무지막지’하고 ‘은혜 모르는’ 야만인 황인들이 총에 맞고 칼에 찔리우고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또 어떤 자선심 많은 백인 순사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강도질까지 할 형편이거든 물이나 실컷 먹으라고 물에 잡아 넣어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물을 먹었다. 124)

국가와 민족, 계급적으로 다층적 억압과 배제를 당하는 준식은 자신의 존재와 처지에 대하여 “팔자가 기박한 탓”으로 돌려버린다. 캘리포니아 벼농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을 때(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시장의 호경기로 인해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에도 준식과 조선인들은 팔자 타을 하는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고생하며 실패하는 이유가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식 청년들은 사회제도의 모순에 있다고 결론 내린다. 주요섭은 준식의 일생에 끼어들어 설명을 덧붙인다. “농부를 보호해주는 정부가 있었던들 이런 난경에서 구원될 방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나 또는 뉴욕 자본가들이 도와주려고만 하면 쌀값을 그렇게 폭락시키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아직도 몰랐다”¹²⁵⁾라고 적었다.

준식의 이민 생활은 미국에 이주해 온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축소판이다. 주요섭은 중국 노동자들이 앵글로색슨 문명을 도와주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결국은 백인들에 의해 남미나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또 더러는 고향으로 내쫓겼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남아 있는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 안에 거주 제한을 당했다고 한다.

124)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앞의 책, 370면.

125) 위의 책, 447면.

로싼젤스는 호경기의 표본이었다. 어디를 가나 새 집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다...이 밀려들어 오는 앵글로색슨의 문명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만의 중국(청국) 노동자들은 넓은 태평양을 건너와서 산을 뚫고 모래를 파고 다리를 놓아 북미 대륙에 맨 처음 생긴 대륙 횡단 철도를 놓아 주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업이 끝난 때 그들은 마치 들에 방황하는 미친 개들처럼 백인의 채찍 아래 물리어서 혹은 남미로 혹은 아프리카로 혹은 오스트렐리아로 또 더러는 다시 고향으로 내어 쫓겼다. 그리고 몇 명 남아 있다는 것도 모두 차이나타운 안에 거주 제한을 당하고 말았다. 종의 피와 땀으로 빚어놓은 문명! 남방 목화밭 이랑마다 흑인의 땀방울이 스며 있고 서방 과수원 이랑마다 또는 대륙 횡단 철도 마디마다 동양인의 땀방울이 스며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문명은 흑인의 것도 아니고 동양인의 것도 아니며 오직 앵글로색슨의 것이었다.¹²⁶⁾

이른바 ‘1924년 이민법’¹²⁷⁾이 통과되자, 미국은 아시아 출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민을 금지하는데, 이 이민법 통과로 미국 사회는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배척한다.

126)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앞의 책, 437면.

127) 1924년 7월 1일 시행된 미국의 이민에 관한 법률이다. 1921년 이민 제한법의 3% 쿼터를 더 낮춰, 1890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미국 이민자들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1890년 이후 대규모 이민이 시작된 동유럽 출신, 남유럽 출신, 아시아 출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출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민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되었고, 당시 아시아에서 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 입국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계 이민자들은 근면하고 끈기 있게 일을 해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일본계로만으로 폐쇄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에 녹아들지 못한다”거나 “벌어들인 돈은 일본의 가족에게 송금해 버린다”고 미국 사람 눈에 비춰졌다.

다. 억압에서 표출된 민족정체성 의식

민족정체성은 식민체제와 이주, 특히 이주과정에서 인종차별 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식민통치와 이주과정의 인종차별 때문에 주인공들이 민족정체성 의식을 표출한다.

주요섭 디아스포라 소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각 시기마다 소설에서 표출된 민족정체성 의식의 강약이 다르다. 예를 들어 「살인」에서 우뽀는 일제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지만 민족정체성 의식을 표출하지 않았다. 우뽀는 민족의식도 없고, 우뽀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도 없다. 하지만 「첫사랑 값」을 발표한 이후의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민족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주요섭의 이주 경험과 그의 사상 변화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작가의 이주 경험과 사상변화가 민족정체성의 표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밝힐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민족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이주, 특히 이주과정에서 겪은 인종차별과 관계가 있는 민족정체성 의식의 표출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민족정체성 의식은 주로 「첫사랑 값」, 「유미외기」, 『구름을 잡으려고』, 「봉천역 식당」에서 나타난다.

「살인」에서 우뽀가 살던 시기는 일제 식민통치 기간이지만 민족정체성 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우뽀가 이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이질적인 시각으로 우뽀 같은 상해 매춘부들의 생활상과 20세기 초 상해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우뽀는 이국인 상해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민족정체성 의식을 표출하지 않는다. 우뽀의 심리 묘사에 대한 지문은 사랑하는 청년에게 집중된다. 청년을 사랑하면서 우뽀가 고려한 것은 두 사람의 신분차

이다. 우썌는 자신을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매춘부로, 청년은 ‘교육받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첫사랑 값」에서 유경의 민족정체성 의식의 근원은 일제 식민통치에서 나온 것이다. 피식민지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지식인 청년 유경은 조국독립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의 민족정체성 표출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인 첫사랑과 민족의식 사이의 갈등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여학생 N을 사랑하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장면에서 그의 민족정체성 의식을 찾을 수 있다.

민족정체성 의식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는 객관적 특성을 가리키는데, 같은 공동체는 같은 생물학적·문화적·사회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디아스포라로서 조선을 떠나 중국에 간 유경이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중국 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¹²⁸⁾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성장한 후 이주한 이민 1세대들은 이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동시에 이주국의 새로운 문화 수용은 힘들어 한다.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128) 송명희, 「캐나다 한인 소설에 재현된 문화 적응의 단계 변화」, 『한어문교육』3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211면.

베넷(M. J. Bennett, 1998)은 타 문화에 대한 적응은 여러 단계를 통해 발전한다고 보고, 문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이론을 통해 타문화에 적응해나가는 단계를 잘 설명해준다. 그가 말한 여섯 단계의 발전이란 부정 단계-방어 단계-최소화 단계-수용 단계-적응 단계-통합단계이다. 첫째 부정단계에서 사람들은 문화의 차이를 해석할 줄 모른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지닌 상이한 가치 체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방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체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셋째 최소화 단계에서 사람들은 문화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는 인간이 지닌 유사성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수용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규범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다른 문화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관과 규범을 지닌다는 점을 수용하게 된다. 다섯째 적응 단계는 행위의 변화가 수반된다. 여섯째 통합 단계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행위를 그들의 문화권 맥락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한국인의 언어·관습·문화·종교 등의 습관을 이국에서 바로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이주 후 상당기간 계속된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주한 디아스포라들보다 일제의 식민통치 때문에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위해 해외에 나간 이주자들은 민족에 대한 소속의식이 더욱 강하고 민족적 공동운명의식이나 동포애가 강하다. 이들은 애국심이 강해 민족주의적 감정과 사상을 더욱 강력하게 표출한다.

그러면 나는 여지껏 누가 주는 밥을 먹고 자랐는가? 중국인 며느리가 조선인 시부모와 살아갈 수가 있는가? 더욱이 나는 N과 결혼한다면 N을 본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용기가 있는가? (중략) 내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운명이 아니 이르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역사, 사회, 도덕, 환경, 언어, 풍속, 모든 것이 판이한 고향으로 만일 N씨를 인도한다면 N은 응당 고독을 느끼고 증오와 싫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고통은 지금 단념하는 고통보다 더 심할 것이다. 아무래도 받을 고통이니 미리 받아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다고 N을 내 것을 만들겠다는 그 야심 하나 때문에 내 몸이 늘 중국에 붙어 있을 수는 없다.¹²⁹⁾

민족정체성 문제는 유경이 사랑하고 있는 N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다. 유경은 “역사, 사회, 도덕, 환경, 언어, 풍속” 등이 다른 조선으로 N을 데리고 가면 그녀는 고독을 느끼고 싫증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중국인 며느리가 조선인 시부모와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걱정하며, 유경 자신도 N과 결혼하기 위해 계속 중국에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흰옷 입은 사람의 자손이다. 그 사람들의 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유

129)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80면.

전을 받아서 나서 그 사람들이 세운 집에서 그 사람들이 농사한 밥을 먹고 자랐다. 내 앞에 일이라고 있으면 내게 그 같은 은혜를 준 그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붙이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흰옷 입은 어린이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그 일을 하려면 본국으로 들어가거나 서북간도로 가거나 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가 N을 끌고 그런 데로 갈 용기가 있는가? 없다.¹³⁰⁾

유경은 흰옷 입은 사람, 즉 백의민족의 자손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받고 그 사람들의 유전자를 받아 그 사람들이 세운 집에서 그 사람들이 농사한 밥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족적·문화적 고유 특징을 보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흔히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민족에 동화되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¹³¹⁾ 유경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 특징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민족 귀속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그는 “내게 그 같은 은혜를 준 그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붙이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흰옷 입은 어린이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인 여학생 N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 한 몸의 안락만 위해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내가 내 할아버지에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새 조선을 건설하겠다는 그 소질은 어디서 찾겠느냐? 만일 현대 청년들이 모두 자기감정의 지배만 받고 굳건한 의지가 없다면 무너져 가는 집을 바로잡을 사람은 어디 가서 찾아올 것인가?” 라고 자문하는데, 이러한 민족 재건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N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30운동’의 참여에 대하여 일기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지만, 유경의 태도는 혁명의 기세와는 다르다.

130) 위의 책, 80면.

131) 정영훈, 앞의 논문, 4면.

5월 30일 일기에서, 유경과 한방을 사용하는 중국인 학생 S가 저녁 무렵 귀가하여 “한 학생이 연설하다가 영국 관헌에게 총살이 되었다”는 비보를 전했다. 때보다도 N이 D라는 남학생을 만났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 S가 잠자리에 들 무렵 극장에 활동사진 구경을 갔었는데 N이란 여학생이 D라는 남학생과 함께 구경을 왔었고,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가더라는 소식을 전했다. 유경은 중국 학생이 총살당하는 사건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남학생과 함께 활동사진 구경을 간 것이 더 슬프다고 생각한다.

회계부장에 당선된 유경은 N 때문에 부장의 책임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유경은 회계부장에 당선되어 4명의 부원들과 활동하는데, 4명 부원들 중에는 N이 있었다. 유경은 마음속으로 N을 단념하려고 노력하지만, N을 보자마자 가슴이 방망이질하는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머리는 화끈 화끈해지고, 예산안을 든 두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목소리도 떨린다. N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눈을 내리뜨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 먹는 친구들과 말 한 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리고 “왜? N이 노여웠는가? 벌써 나는 잊어버렸는가? D와 어떤 지경까지 들어갔는가?”라고 생각하며, N과 활동사진을 보러간 D를 질투한다. 유경은 중국 대학생 10여명이 영국 관헌에게 총살당한 사건보다도 N에 대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유경은 시국 토론이나 제국주의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승하의 지적처럼,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해를, 유경이 이방인처럼 방관자적 입장으로 관찰하고 있을 뿐”¹³²⁾이다. 이처럼 유경이 상해학생운동에 무관심한 것은 N에 대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조선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 서두 부분과 6월 12일의 일기장을 살펴보면, 유경은 7년 전 조

132) 이승하, 앞의 논문, 417면.

선을 떠나 서북간도에서 지내다가 1년 전에 상해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계속 조선에 머물면서, ‘흰옷 입는 민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요소를 내면화하게 되고, ‘흰옷 입는 민족’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말하자면, ‘흰 옷 입은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 의식과 정서가 그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해나간 것이다.

「첫사랑 값」에서 주인공 유경의 첫사랑 이야기가 진행됨과 동시에 유경의 민족정체성 의식도 표출된다. 조선의 지식청년인 유경은 중국 여학생 신분의 N을 사랑하지만, 민족 간의 차이와 자신이 갖고 있는 민족적 사명 때문에 다가가지 못한다. 중국의 혁명운동에 참여는 하지만, 그는 혁명운동에 대한 열정보다는 첫사랑 상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내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인이라는 신분, ‘흰 옷 입은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 조국 독립과 민족해방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N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N을 만날 때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그의 민족의식과 충돌하고, 그래서 그는 개인적 욕망인 첫사랑과 민족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자살을 선택한다.

「유미외기」에서 주인공 이전은 주로 백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민족 정체성 의식을 표출한다. 이전은 미국 최하층 사람들만 하는 질 낮은 일 자리를 얻어 휴일도 없이 장시간 일을 한다. 그는 심한 인종차별 때문에 갖은 고생을 다 하지만 가난한 처지를 바꾸지 못하고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 그가 유일하게 고민과 하소연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동포 박(朴)군이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와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둘은 서로 밥을 먹고 떠들고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는 사이이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 사이의 싸움은 서로의 교류와 단결을 심하게 방해한다. 같은 자리에서 밥도 잘 먹지 않고, 교회까지 양파로 나누어 다니고, 예배도 따로 보고 축일 같은 날도 따로 거행한다. 서로 인격을 모독하

고 비방하며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 「유미외기」에서 는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시내에 모인 조선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놀면서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시내 조선인사회로 보면 A선생과 L박사와의 세력이 비등한 형편이어서 무슨 원수라고한 자리에서 밥도 잘 안 먹을 지경이었다. 시내야 소교회까지도 양파로 갈리어 예배도 따로보고 축일가튼 날식도 양처에 따로모이어 따로 거 행한다. 그리고는서로 중상하는 일이 유일사업이어서 A파는 L을 모해하고 L 파는 A씨의 인격을 상해하여 서로 그르티었다. 부모들이 양파의 갈림을 딸하 자식들도 서로 교제함에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파당을 초월 한 회합이란 참으로 희귀한 일이었다.

(...중략...)

그들은 갑싼 요리를 먹어가며 과거, 현재 급장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로 밤이깊는 줄을 몰랐다. 모두를 새희망과 열정으로 그들은 굳게 악수했다. 그리고 선배들의 편견과 좁은 마음을 버리고 의견을 상환하고 협조노력할 것 을 맹서하고 헤어지었다.¹³³⁾

중국 요리점에서 조선 청년 수십 명이 모였다. ‘십년 고향으로 미술학교 를 마친 청년’, ‘미주출생으로 대학까지 졸업한 미국여자’, ‘미국여자와 결혼 해 사는 청년’, ‘십이 년 전 포와로 건너 왔다가 미주로 온 연극을 공부한 청년’, ‘A선생의 아들’, ‘L박사의 비서’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왔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같은 민족과 같은 문화와 동일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견 충돌도 뒤로 미루어 둔 채, “선배들의 편견과 좁은 마음을 버리고 의견을 상 환하고 협조 노력할 것을 맹세”하고 과거, 현재와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133) 주요섭, 「유미외기」 25, 『동아일보』, 1930.04.10.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민족으로서 이국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민족문화와 민족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A선생과’와 ‘L박사과’ 사이의 방어선을 돌파하게 만든다.

미국 백인 사회에서 겪는 인종차별 때문에 소외되고 억압을 당한 그들 대다수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한 채 타락해버렸다. 십 년 전에 왔거나 지금 왔거나 미국에 온 한인들은 모국을 떠난 것을 후회한다. 미국에 온 한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미국 문명에는 기계 발달 이외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학이나 기계학을 공부하려면 잠시 미국에 와서 실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는 조선청년으로 도미(渡美)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론은 조국이 비록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지만 민족귀속감을 강력하게 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구름을 잡으려고』에서 준식의 민족정체성 의식은 백인 사회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소외된 삶과 조국 동포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일제통치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에 대한 소속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 준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디아스포라 서발턴으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동포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정’에 힘입은 바 크다. 준식은 종족적, 문화적으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 디아스포라 조선인들과의 유대 속에서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고 의지한다.

준식이 멕시코 농장에서 처음 만난 황건우라는 조선인은 조선말을 하지 못한다. 황건우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되는 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는 준식과 같은 방에 있고 싶어서 조선인이 아닌 척 행동했던 것이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는 자신도 조선인임을 밝히고 준식을 부둥켜안고 소리 없이 운다. 준식 역시 말이 통하는 황건우를 만나자 반가워한다. 나라가 같고, 피부색이 같고, 언어가 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혈통적·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여보, 나도 조선사람이요. 만일 우리 둘이 다 조선사람인 줄 알면 저 놈들이 또 판방으로 갈라 놓을 터이구려. 그러니까 아주 조용해 주시오, 예!” (중략) 아무리 태도로는 태연한 체한다 하더라도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은 얼굴에라도 조금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늘 그의 얼굴은 그 때 돌로 깎아 만든 석상같이 무표정하고 쌀쌀하였다. 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가능할까? (중략)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하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때 그 당장의 감정에게 휩쓸린 바 되어 준식 이와 그가 한 나라 사람인 눈치를 채이게 하였던들 지금쯤 준식이는 다시 또 판 방으로 쫓겨가서 온통 감둥이들만 있는 틈에서 우들우들 떨고 있게 되었을 것이 아니냐?¹³⁴⁾

준식은 같이 노예로 팔려온 조선인 춘삼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밭에서 만난 춘삼이의 움푹 들어간 두 눈과 맥없이 늘어뜨린 두 어깨에서 절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준식은 자신의 위축보다도 그것이 더 안타까웠고, 목화농장에서 탈출할 때에도 제일 먼저 춘삼을 생각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춘삼을 데려가려 한다. 조국을 떠나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 살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조선인들이지만, 이국 타향에서 우연히 조우하게 된 그들은 공통의 언어와 문화, 생활 습관, 그리고 같은 역사와 문화배경이 빚어내는 동포애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준식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짙은 민족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아리바의 도움으로 멕시코 농장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건너갔고, 기차를 잘못 타 산간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벌목공이라는 일자리를 구한다. 아름드리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멕시코에서의 노예 생활에 비하면 오히려 낙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얼굴이 누렁고, 광대뼈가 튀어 나오고, 머리카락이 까맣고, 눈이 까만

134)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앞의 책, 308면.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황인종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보지 못하면 미쳐 버릴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조선 사람, 아니 황인종조차 없었고,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가 없다. 서양 노동자들은 준식이 더럽다고 한 방에 자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았다. 백인들은 황인종인 준식과 사귀려고 하지 않고, 준식이 또한 그들과 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준식은 감독의 호의로 헛간 한 구석에서 혼자 살았다.

날이 갈수록 그는 고적을 느끼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날 임금을 받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와서 그 돈을 돈 뭉텅이 속에 넣을 때 그는 즐거웠다. 그러나 옥수수가루 지짐으로 저녁을 때고 나서 지친 몸을 자리에 뉘면 잠은 얼른 오지 않고 친구가 그리워졌다.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라도 해볼 친구가 그리워졌다. 백인들은 황인종인 그와 사귀려고도 아니하거니와 또 준식이로서도 별로 친히 사귀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누른 얼굴이 보고 싶었다. 준식이와 같이 얼굴이 누르고 광대뼈가 볼썽 나오고 머리털이 까맣고 눈알이 까만, 그런 사람을 다만 한 사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다. 이 감정은 날이 갈수록 그 뜻을 더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봄철이 되고 보니 마음은 더 한층 싱숭생숭 해지고 이제 곧 황인종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보지 못하면 미쳐 버릴 것처럼 생각되었다. 135)

준식과 서양 노동자들 사이에는 상호 교감이 전혀 없다. 이민자들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으로 이동할 경우 상당 기간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재사회화 또는 문화변용을 겪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다.¹³⁶⁾ 그러나 준식은 언어, 문화, 종교, 생활습관 등이 서로 다른 미국 주류문화에서

135) 위의 책, 364면.

136) 송명희, 『캐나다한인 문학연구』, 앞의 책, 81면.

배제된 상태에 놓이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완전히 고립된다. 소수집단의 문화적응 전략과 이데올로기를 통합, 동화, 고립(분리), 주변화로 분류한 베리의 지적¹³⁷⁾에 따르면, 준식은 미국이라는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인사회의 부재로 인해 그 어디에도 편입되지 못한다.

준식은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던 한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마침내 주변화 상태에서 벗어난다. 준식이 미국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차별받는 황인종으로 배제된 채 소외의식에 빠져 있을 때, 이민사회에 나타난 한인 지도자에게 감화되어 새로운 생활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인 지도자 ‘선생님’은 안창호를 연상케 하는 사람으로, 미국으로 이민한 노동자들을 각성시키려고 노력한다. 준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술집과 도박장, 여자를 멀리 하면서 서서히 변화한다. 그는 민족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정체성이란 자아의 발전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기 마련인데, 준식은 한인 지도자를 만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자기 존재와 민족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이 30살까지 살았던 조국을 되돌아본다.

1910년 ‘경술늑약’이 강제 체결되던 해, 준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xx”¹³⁸⁾를 위해 투쟁할 것을 하늘 앞에 맹세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일방적인 횡포에 맞서서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한 자본을 확보하자고 다짐한다.

137) 베리는 소수집단의 문화적응 전략과 이데올로기를 그들이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문화적 유지, 그리고 이주민이 새로운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를 뜻하는 접촉과 참여의 두 가지 차원에서 통합·동화·고립(분리)·주변화로 분류한 바 있다. 송명희, 『트랜스내셔널리즘과 재외한인문학』, 지식과교양, 230-231면에서 재인용.

138) “이미 기울어진 xx”에서 ‘xx’는 일본에게 주권을 상실한 조선이다. 주요섭이 『구름을 잡으려고』를 『동아일보』에 연재한 기간이 1935년 2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주요섭은 대단한 용기를 내어 호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는 동안에 일천 구백 십년 겨울이 다 되었다. 선생님은 이십삼 명 되는 조선 노동자들을 한 방에 모아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노동자들은 모두 울었다. 그리고 다시는 못된 길에 들지 않고 생활다운 생활을 하며 이미 기울어진 ××를 위해 힘을 쓰기를 하늘 앞에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달하기 위하여는 그들은 방종 생활과 작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뼈가 부러지게 노동하자! 노동해서는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모으자.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는 그것을 다 합해 가지고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대규모로 돈벌이를 하자. 이런 의논으로 선생님은 대중에게 격려하였다. 타락되었던 재미 조선 노동자 계급에는 일종 새로운 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 139)

준식은 한인 지도자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고, 민족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낀다. 즉 그는 주변화에서 벗어나 모국의 고유문화에 동일시하지만 이주국의 주류문화는 무시하는 고립(분리)의 문화적응 전략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준식은 선생님의 결의에 찬 강의를 들을 때마다 민족의식, 공동운명의식, 동포애 등이 생기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실천이 쉽지 않아 죄책감을 느낀다. 이민 노동자들은 이상을 좇아가려 하지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지식인 주요섭은 노동자 서발탄의 현실을 잘 알았고, 지식인이 생각하는 민중계몽이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인 지도자가 자주 등장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각성시키려 한다.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민족정체성은 자기 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어느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이민 1세대인 준식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한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가 된 나

139)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앞의 책, 373-374면.

라를 되찾기 위해 자본을 마련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준식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민족정체성은 민족 공동운명의식을 가지게 했고, 동포애와 애국심의 토대가 된다.

주요점은 이 작품 결말 부분에서 이민1세 준식의 죽음과 이민2세 아들인 찜미에 대한 태도를 통해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민족정체성 의식을 표현한다. 그는 준식의 죽음을 단지 준식 한 개인의 죽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죽음은 곧 준식이 한 멤버이던, 미국에 이민한 한인 1세대 그 자체의 죽음이라고 본다. 준식의 죽음은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 찬 1세대의 종말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준식의 아들 찜미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으로 2세대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한다.

찜미는 미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준식보다는 미국 문화를 수월하게 받아들인다. 준식이 보내준 생활비와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학비 혜택을 받으며 찜미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다. 찜미는 학교 풋볼팀 캡틴으로 우승을 거머쥐게 한 주역이 되며, 준식을 기쁘게 한다. 하지만 준식과 같이 생활하던 한국 유학생들은 이민 2세대를 걱정한다. 소설에 묘사했듯, 실제로는 미국 국민이지만 “얼굴이 노랗고 눈이 까맣고 코가 납작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처럼 조선인이 되지도 못한다. 얼굴이 조선인처럼 생겼다는 조건 외에는 공통된 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민족이 없는 경계인이요, 주변인이다.

“그들은 미불상 미국 국민이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이 노랗고 눈이 까맣고 코가 납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절대로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들은 서양인 눈에 ‘찜’이나 ‘창크’이지 ‘아메리칸’은 아니다. 시민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꺼내 보일 수도 없고 또 설혹 그렇

게 한달지라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부모를 따라 조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의문이다. 그들은 얼굴이 조선 사람처럼 생겼다는 한 조건 외에는 조선 민족과 공통되는 점은 없다. 언어, 풍속, 습관, 그 전통, 그 생활철학까지가 그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이다. 그러니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미국인도 못되고 조선인도 못되고 그들이야말로 민족이 없는 한 가여운 존재인 것이다.”하고 그들은 말한다. “더우기 앞으로 그들의 직업선상에 있어서의 큰 딜렘마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하고 또 그들 청년은 말하는 것이었다. “제 이세 국민이 제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어찌고 한 대도 얼굴이 노랑기 때문에 백인들처럼 신분에 상당한 직업은 도저히 얻을 수 없다.¹⁴⁰⁾

주요섭은 찜미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찜미의 시대는 곧 우리가 나날이 체험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찜미의 시대가 한 작품으로서 적혀져 나올 좋은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날 작자는 다시 불을 들어 후편을 끄적거리 보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¹⁴¹⁾ 주요섭은 조선이 독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밝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주요섭은 이 작품에서, 북미 대륙에서 가난한 일생을 마친 준식을 통해 해외를 떠돌아다닌 이민1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사회 최하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결말에서 찜미의 시대가 가난과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자유로운 시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이민 1세들이 겪는 이민에 대한 환멸과 이민2세들에 대한 희망에서 주요섭은 재미 디아스포라의 열악하고 차별받는 이주 현실과 함께 조선에 대한 소속의식, 그리

140) 위의 책, 489-490면.

141) 위의 책, 503면.

고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드러낸다.

「봉천역 식당」에서 작중화자 ‘나’는 주인공과 거리를 유지하며 관찰하고 있다. ‘나’는 주인공 조선 여인의 변화를 관찰한 대로 서술할 뿐이다. 그래서 조선 여인의 민족정체성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고, 다만 화자 ‘나’의 독백을 통해 민족정체성 의식을 내보인다.

이 작품에서, ‘나’는 조선 여인을 통해 조선인 이주자들의 몰락을 보게 되고, 동포애를 느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확장과 조선 이주민의 참담한 현실을 탄식한다. 만주의 조선 여인이 행복의 절정에 놓인 순진한 여성에서 참담한 여인으로 변해 가는 것 역시 일제의 억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세력이 만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자, 이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일제의 감시와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된다. 작중화자 ‘나’의 눈에 비친 조선 여인의 몰락은 피식민지인 신분에서 비롯된 ‘조선인으로서의 비극’이다.

앞장에 언급한 것처럼, ‘나’는 이국 타향에서 네 번씩이나 만난 조선 여인의 변화에 따라 심경 변화를 겪는다. 조선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설렌 감정을 갖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여인의 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충격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우울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심경 변화를 통해 조선 여성의 일상들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는 작중화자 ‘나’의 관찰과 심경 변화를 통해 주요섭의 동포에 대한 관심과 깊은 연민을 알 수 있다.

가난에 쫓겨 압록강을 건넌 만주 한인들의 생활 여건은 중국인보다 더 열악하였다. “그들은 실제로 용이한 민족 박해의 대상이며, 떠돌이 비적들의 일차 먹잇감에다, 만주국 정부에 의해서는 ‘위험한 공산분자’로 감시받은 사람들이었다.”¹⁴²⁾

142) 정운현, 「정직한 역사 되찾기 : 친일 군상(24회)」, 『서울신문』, 1999.2.8, 13면. 강준만,

이 작품을 발표한 시기가 1937년 1월인 것을 보면, 작가가 이 소설을 발표한 동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1936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자 조선말살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로 인해 조선민족의 위기의식은 더 극심해진다.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 건설을 위해 수십만 명의 조선인을 만주로 강제 이주시키고, ‘만주문화회’라는 친일 단체를 결성하여 조선의 작가들에게 만주 발전을 예찬하는 글을 쓰도록 강권한다.

주요섭이 조선을 떠나 북경으로 일자리를 찾아간 것도 그가 쓴 글에 대한 검열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대한 환멸과 저항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주요섭은 해외에 떠도는 서발턴 인물의 몰락 과정을 소설로 보여줌으로써 당시 일제의 조선과 중국에 대한 탄압과 이와 관련된 사회폐단을 폭로한다.

주요섭은 「봉천역 식당」에서 일제의 수탈과 침략 현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지만, 한 조선 여인의 영락을 통해 그 현장을 대변하고 있다. ‘봉천’이라는 공간은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는 시작점이며, ‘조선 여인’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 교묘하게 이용되기만 했던 ‘불쌍한 만주 한인’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봉천역 식당」 결말에서는 조선 여인의 딸을 통해 강력한 동포애와 민족 정체성 의식을 표출한다. 조선 여인의 딸에게 “어머니의 슬픔도 모르고 자기 앞을 막고 있는 비애의 커다란 함정도 모른다”라고 한탄한다. “어머니가 딸에게 그 딸이 또 딸의 대에 대를 이어서... 조선인으로서의 비극, 여자로서의 비극, 인류로서의 비극을 부단히 대 이어나갈 이 딸”이라고 하는 속말에서 화자 ‘나’는 만주 한인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승화하며 조국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앞의 책, 49면 재인용.

라. 강화되는 민족정체성 의식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민족정체성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작품은 「첫사랑 값」, 「유미외기」, 『구름을 잡으려고』, 「봉천역 식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소설을 발표 시기별로 살펴보면 작중인물의 민족정체성 의식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사랑 값」에서 주인공 유경은 강력한 민족정체성을 표출하지만, 중국 여학생 N을 사랑하면서 고민에 빠진다. 그는 조선의 지식인 청년으로 민족 위기 의식과 민족해방 의식을 갖고 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이주한 디아스포라들보다 민족에 대한 소속의식이 강하고, 민족이 공동운명체란 생각과 함께 동포애가 남다르다. 애국심이 강한 그는 민족주의적 감정과 사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경의 민족의식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나온 민족정체성 의식이다. 그의 일기장에서 자주 나온 단어는 ‘민족’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라고 자문하며, “현금의 조선 청년은 비상시기에 처하여 있다. 비상시기에 처한 청년은 비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거나, “민족을 위해서는 독신생활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자신을 다잡는다.

다른 하나는 한민족의 민족적 특성을 잘 보전하려는 정체성 의식이다. 유경은 자신의 민족적 특성을 “나는 흰옷 입은 사람의 자손이다. 그 사람들의 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유전을 받아서 나서 그 사람들이 세운 집에서 그 사람들이 농사한 밥을 먹고 자랐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국에 있지만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보전하려는 생각과 민족귀속의식이 강하다. 하지만 유경은 N의 입장도 고려한다. 유경은 “역사, 사회, 도덕, 환경, 언어, 풍속, 모든 것이 판이한 고향으로 만일 N씨를 인도한다면 N은 응당 고독

을 느끼고 증오와 싫증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유경은 민족의식과 민족정체성 의식이 강하지만, 이것은 그의 개인적 욕망인 첫사랑과 충돌하면서 그의 내면 갈등이 깊어진다. 결국 그는 상해에서 민족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방황하다가 자살한다. 이 소설에서 이러한 유경의 갈등과 방황,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유경의 선택은 그의 민족의식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미외기』의 주인공 이전은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지식인이지만 여전히 미국사회 최하층에서 살아간다. 그는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직종과 대우, 사회복지와 이민정책 때문에 부당 대우를 받았다.

백인우월주의 사회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민족에 따라 일자리까지 정해져 있었다. 조선인은 하인으로, 중국인은 음식을 만드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본인은 정원 일꾼으로, 필리핀인은 음식점 그릇 닦기로, 멕시코인은 철로에서 일한다. 반면 상점과 은행 같은 편한 직장에는 대부분 백인이 일하고 있었다. 이전은 집안 치우는 일, 과일가게 점원, 아파트 청소하는 일, 부자집의 하인으로 일하며 점점 지쳐간다.

이전뿐만 아니라 소설에서 박군과 황군도 이전의 운명과 같이 소외된 채 사회 최하층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이다. 이전, 박군, 황군 같은 조선 청년들은 연말 모임에서 강력한 민족정체성 의식을 표출한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체제에 시달리는 조선인들은 ‘A선생과’와 ‘L박사과’의 당파를 벗어나 “선배들의 편견과 좁은 마음을 버리고 의견을 상환하고 협조 조력할 것을 맹세”한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란 것에 위로를 받으며 서로 단결하고 동포에 대한 애정을 표출한다. 그들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민족귀속감을 강력하게 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구름을 잡으려고』의 주인공 준식은 북미대륙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끝내

현지 사회에 융합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친다. 환경, 문화, 언어, 풍습, 그리고 인종차별 등 이국에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은 준식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북미대륙 떠돌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고유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의 민족정체성은 이국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삶 속에서 조국 동포에 대한 애정과 조선에 대한 소속의식으로 나타난다.

조국 동포에 대한 애정과 동질감은 주로 북미대륙으로 가는 길에 만난 동포인 춘삼과 멕시코 농장에서 만난 황건우를 통해 드러난다. 준식은 낯선 환경에서 같은 민족을 만나 외롭지 않았고, 힘들 때마다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 자신과 같은 얼굴이 누렁고, 광대뼈가 튀어 나오고, 머리카락이 까맣고, 눈이 까만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민족의식을 잃지 않고 생활한다. 당시 미국 사회에 팽배해 있던 백인우월주의와 유색인종 차별은 준식이 같은 민족끼리 뭉쳐서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돈을 모아 모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귀속의식을 갖도록 만든다. 하와이와 미국 대륙으로 이민한 조선 이주자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백인들의 인종차별과 박해는 미국이라는 이민 사회에 동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인 고유의 전통적 문화와 관습을 고수하게 만든다.

『구름을 잡으려고』에서는 한인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준식과 같은 이주 노동자들이 민족정체성 의식을 잃지 않도록 교육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들 한인 지도자에게 감화되어 새로운 생활을 설계하면서 정체성 의식을 강화해나간다. 준식은 한인 지도자를 통해 자기 존재와 민족에 대해 성찰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의 민족적 정체성이 재정립되어 간다. 준식은 비록 부평초처럼 미국이라는 이민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만, 준식이 「첫사랑 값」의 유경에 비해 강화된 민족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섭이 북경시절에 창작한 디아스포라 소설 「봉천역 식당」은 민족정체성과 함께 식민지 조선 사회의 질곡을 비판적으로 내보인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주인공 조선 여인은 말 한 마디 없고, 그래서 작중화자 ‘나’의 관찰과 느낌으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이 소설이 내보이는 민족정체성 의식 또한 화자인 ‘나’의 관찰에 의해 드러난다. 네 차례에 걸쳐 주인공 조선 여인을 관찰하고 느끼는 ‘나’의 심경 변화와 독백이 그것이다.

작중화자 ‘나’는 조선 여인과 만날 때마다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를 관찰하고, 이 여인의 변화에서 조선인 이주자들의 몰락을 읽게 되고, 그래서 이 조선 여인에 대한 연민과 함께 동포애를 느낀다. 봉천에서 만난 이 조선 여인은 일제강점기 조선 민족의 표상이고, 그녀의 몰락은 식민지 조선 백성의 곤궁한 삶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중화자 ‘나’는 조선 여인의 변화에 탄식하고, 동포로서의 관심과 연민을 드러낸다. 주요섭은 「봉천역 식당」에서 주인공 조선 여인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그려 보이는 한편, 그녀의 변모에 따른 ‘나’의 심경 변화로 한층 강화된 민족정체성을 내보이고 있다.

봉천에 살고 있는 조선 여인의 몰락은 일제 식민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조선 여인은 ‘불쌍한 만주한인’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주요섭은 국경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조선 여인을 통해 타자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의 힘든 삶을 조명하고 있다. 화자는 조선 여인의 몰락에 대해 “조선인으로서의 비극”이라며 한탄을 한다. 조선 여인 개인에 대한 동정에서 조선인 전체에 대한 애탄으로 확대하며 민족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민족정체성 의식은 상해시기보다 미국시기, 북경시기에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주요섭의 이주 경험과 그의 사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해시기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는 애국사상이 나타나지만 같은 민족에 대한 관심과 동포애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인공들은 재외한인과 더불어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지도 않고,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들이 이주지에서 억압과 배제를 당할 때, 살인, 방화, 죽음 등 폭력적인 파괴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신경향파’ 소설 성향이 나타난다. 주요섭이 이 시기에 혁명단체에 가입하고 혁명 활동에 열중한 것은 그의 소설에서 폭력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시기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는 미국 자본주의 폐단에 대한 폭로, 같은 민족에 대한 관심, 의존심,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소속의식과 민족운명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전과 박준식은 미국에서 만난 동포에게 관심을 보이며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층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행위가 자주 나타난다. 결말에서 이런 인물들의 인생은 모두 실패로 끝나는데, 주요섭이 미국 이민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배경인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나온 민족정체성 의식은 주요섭의 고학생들과 관련이 깊다. 몸소 하층민의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미국 유학 시기에는 애국심과 동포애, 민족소속 의식이 강화되었다.

북경시기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는 재외한인의 생활형편, 민족과 조국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난다. 소설 「봉천역식당」에서는 조선 여인에 대한 네 차례의 관찰을 통해 재외한인이 점차 몰락하는 형편에 대해 관심과 동정심을 내비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 식민 통치 세력의 확장, 즉 ‘만주사변’ 때문에 만주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또 1936년은 미나미 지로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표방하며 민족말살정책을 단행한 해이다. 주요섭이 이 시기에 「봉

천역식당」을 발표한 것은 민족이 꺾박받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설을 통해 만주지역에 다니고 있는 동포에 대한 동정, 시국에 대한 애탄, 자신의 애국사상과 강력한 민족정체성 의식을 표현했다.



2. 서발턴 의식

스피박(Gayatri Spivak)은 기존의 지배적인 담론들에서 배제된 피식민지인, 이민자, 노동자, 소수자, 여성 등 종속적인 처지에 놓여 있거나 주변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서발턴’의 의미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스피박의 개념에 따라 피식민지인, 이민자,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발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서발턴 집단은 발언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데 무능하거나, 하나의 스토리로 자기를 설명할 수 없을 때, 또는 지배 권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발화의 공간을 박탈당할 때 그 개인은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때는 대신 말을 걸어줄, 서발턴 집단의 이야기를 꺼내줄 지식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서발턴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걸고, 그것을 언어화하는 자는 아무래도 지식인이다. 서발턴이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가 듣고서 어떻게 담론화해 내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윤리성을 가진 지식인들이 하위계층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것을 담론과 문화영역에 제대로 끌어들이는 것이다.¹⁴³⁾

탈식민주의 이론은 침묵당하는 타자화된 집단의 경험을 적절히 표현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려 한다. 하지만 탈식민주의 이론의 이러한 의도의

143) 안준범, 「서발턴 역사 개념의 형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9, 37면.

스피박에 따르면, 서발턴 연수 집단의 작업에서 “어떤 서발턴 의식 또는 농민의식을 조사하고 발견해서 확정한다는 것은 실증주의적 프로젝트-적절한 실행을 통해 견고한 기반에 또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에 도달하리라고 상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보인다.” 그러나 “서발턴은 ‘엘리트의 사유’ 없이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서발턴을 재현하려는 작업 중에 서발턴 연구 집단의 작업에는 항상 재현에 반하는 암시들이 담겨 있다. 즉 서발턴 의식은 엘리트의 흡인력에 종속되며, 결코 전면적으로 복원될 수 없고, 수렴된 기표로부터 항상 비스듬히 어긋나며, 실로 노출될 때조차 지워지고, 비환원적으로 담론적이라는 그런 암시들이 담겨있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야트리 스피박은 이 과정에서 타자화된 집단이 사고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타자, 특히 ‘서발턴’(subaltern)의 혹독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것의 ‘(불)가 능성((im)possibility)’¹⁴⁴⁾에 문제를 제기한다. 스피박은 지식인이 서발턴을 재현하려고 하는 순간, 서발턴의 목소리는 상실되어 사라지고 지식인 자신의 입장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식인의 지식과 사고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서발턴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지식인은 ‘대신 말하기’(speak for)가 아닌, 서발턴에게 ‘말을 거는’(speak to)법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¹⁴⁵⁾

일제강점기 조선의 하층민들은 민족과 계급적인, 여성은 여기에다 젠더적 억압까지 더해지는 핍박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해외에 떠돌아다닐 때도 식민지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착취 속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국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타민족의 언어,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인 억압을 받고 차별과 소외를 당한 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서술할 능력조차 없다. 심지어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한다. 이때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라는 단언은 사실의 진술이라기보다는 서발턴의 재현을 둘러싼 담론구조가 더 중요하다.

주요점은 국내에서만 활동하던 작가보다 독특한 이주경험과 넓은 시야를

144) 박미지,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 윤리학— 마하스웨타 데비의 「익룡, 푸란 사하이, 그리고 퍼사」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3권4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60면 (59-107면).

145) 박미지, 앞의 논문, 61-62면.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소설에서 서발턴 인물들의 생활상을 기록하여 재현할 수 있었다. 소설 속에 재현된 서발턴은 민족적, 계급적, 젠더적, 인종적으로 다층의 억압을 받는다. 이처럼 주요섭이 디아스포라 서발턴의 다층적 억압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학하며 머물렀던 여러 지역과 환경에서 수많은 관찰과 경험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상해와 북경에 머물렀던 시기에는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은 없었던 데 반해, 미국에 머물렀던 시기에는 주요섭 본인 또한 서양인과 동양인이란 차이 때문에 심각한 인종 차별을 경험한다. 따라서 주요섭은 조선 이주민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었으며, 지식인의 대신 말하기가 아니라 이주민을 향해 말 걸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 서발턴의 저항

서발턴은 하나로 고정된 폐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어쩌면 자리가 역전될 수도 있는 열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발턴은 현재에는 억압받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만, 필요할 경우 지배집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세력이다.

중국 상해가 배경인 「살인」에서, 억압을 받은 주인공 우뽈은 매춘부로 전락하는 처참한 운명에 놓이지만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려는 강한 저항의식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장영우¹⁴⁶⁾는 「살인」이 ‘신경향파 소설’의 전형성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도시 하층민의 자기 각성의 단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살인」에서, 주인공 우뽈에 대한 형상화는 이주여성 서발턴에 대한 전형적인 재현이다. 그녀는 피식민지이자 사회 최하층이며, 성을 매매하는 여성

146)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290면.

이라는 점에서 다중적 서발턴의 운명을 내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일제의 농민수탈 정책은 조선인을 궁핍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수탈과 큰 기근 때문에 우뽀의 부모는 그녀를 보리 서 말에 팔아버렸다. 그녀는 돈을 준 남자에게 정조를 잃어버린 뒤 몇 번 더 돈에 팔렸다.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폭력을 당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국의 상해까지 와서 매춘부 신세로 전락한다. 포주인 똥똥할미는 우뽀에게 3년을 매일같이 하룻밤에 손님을 적어도 4, 5명, 많을 때는 12명까지 상대하도록 한다. 이렇게 민족적, 계급적, 성적으로 다층적인 억압을 받던 우뽀가 이름도 모르는 청년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소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짝사랑에 빠진 우뽀는 과거의 처참한 생활을 돌아보며 반항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매춘을 강요하는 똥똥할미를 살해하고 탈출한다.

이 소설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주인공 우뽀에 대한 억압과 유린이고, 다른 하나는 우뽀의 저항이다. 우뽀가 저항하게 된 전환점은 한 청년을 사랑하면서부터이다. 우뽀는 성적으로 착취당하며 궁핍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 청년을 사랑하면서부터 자신을 착취한 똥똥할미에게 반항하기 시작한다. 우뽀는 매춘부로 사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마침내 자신을 착취한 똥똥할미를 살해하고 홍등가에서 도망친다. 서발턴 우뽀의 탈주는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표현인데, 「살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뽀가 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큰 기근으로 열흘씩 굶었던 부모는 보리 서 말에 건축 공사 십장인 어떤 ‘양귀자’¹⁴⁷⁾에게 열여섯 살의 우뽀를 팔아 넘긴다. 그녀는 사흘 동안에 자신의 정조를 산 ‘양귀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양귀자’의 심부름을 하던 노동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성폭행을 당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그

147) 양귀자는 서양 사람에 대한 별칭이다.

녀는 쉴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앓고 난 뒤 좀 낫자마자 다시 칠 원에 팔려 상해까지 가게 된다.

그때 기근 구제도로 건축 공사 십장인 어떤 양고자¹⁴⁸⁾에게 처음으로 정조를 깨뜨리었다. 그때 그 어둑신한 널판 일거리 좁은 방 안에서 그 쇠뭉치 깔고 노란 털이 부르르 난 양고자 팔에 꺾꽂 안기든 그 두려움 그 부끄럼 또 그 어떤 알 수 없는 쾌미를 우뚝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흑흑하든 그놈의 입김에서 여우 가죽내 같은 노랑내가 숨을 콕콕 막히게 하던 것과 영문은 모르고도 좀 대항을 해보다가 그가 시커먼 육혈포를 꺼내 헛방을 쏘면서 위협하던 것과 무서운 김에 적소리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짐승 같은 가슴에 부통켜 안기던 것 그리고는 후끈후끈하는 땀, 어절한 아래 아픈 허리 그리고는 기절, 이런 것들이 어린 그의 첫 경험으로는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기고 갔다.¹⁴⁹⁾

딸은 가족 서열에서 위치가 가장 낮아 가부장인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남성의 절대적 권력 하에 놓여 있었으며 가장 권한은 딸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포함하여 심지어 생사여탈의 권한마저 갖고 있었다.¹⁵⁰⁾ 따라서 기근이 있을 때 열흘 굶어서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눈이 뒤집힌” 궁핍한 집안의 딸인 우뚝은 물건처럼 취급당해 팔려나갔다.

부모에 의해 돈 몇 푼에 팔린 우뚝은 상해까지 가서 매춘부가 된다. 상품처럼 팔려진 우뚝의 성(性)은 포주인 똥똥할미의 돈벌이 수단이자 남성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상이었다.

148) 소설에의 ‘양고자’는 ‘양귀자’의 오기(誤記)인 듯하다.

149)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39면.

150) 이선옥, 『이기영의 여성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71면.

갈보들은 대개 밤 일곱 시가량부터 새로 세 시까지가 대활동을 하는 제일 분주한 사무 시간이었다. 이 여섯 시간 동안에 잘되면 사내 서넛씩은 늘 들어왔다. 값은 사내의 주제를 보아가지고 요구하는 것이다.(…중략…)이렇게 번 돈은 말끔 주인 할미가 가져가고 갈보들은 낮에 두르고 있는 누더기와 밤에 남자의 마음을 끌기 위한 육욕을 발동시키기 알맞은 각색의 비단옷 한 벌과 값싼 분과 머릿기름 그리고는 그 좋아하는 담배 한 달 먹어야 이원(二元)어치도 안 될 밥만을 그 주인에게서 받았다.¹⁵¹⁾

매일 밤 우뽀가 벌어들인 돈은 이십 전으로부터 육십 전 내외였다. 뚱뚱 할미에게 노예 취급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착취당한 우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삼 년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뽀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고립된 채 비난받는 매춘부가 된 것, 중국 상해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것은 당시의 시대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⁵²⁾ 상해는 아편전쟁 이후(1842년)에 청정부와 영국 사이에 「남경 조약」에 의해 개항하게 되었다. 그 후 미국과의 「망하 조약(望厦條約)」, 프랑스와의 「황포 조약(黃浦條約)」 등으로 인해 상해 내에 영국·미국·프랑스 등 외국인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해 조계지(租界地)가 형성되고, 이후 100년간 지속적으로 상해의 외국인 통치 특별구로 존재하였다. 서구 열강들의 침략은 중국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 지역의 상업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발달된 기술이 빨리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항도시로서 상품의 집산지가 된 상해는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20세기 상반기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상해는 ‘동방

151)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41면.

152) 송소용, 앞의 논문, 294면.

의 파리' '동양의 런던' '동방의 뉴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¹⁵³⁾

이 때문에 상해에서는 근대와 봉건, 중국과 서방, 도시와 농촌, 고상한 것과 저속한 것 등의 충돌이 매우 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났다. 동양에서 제일 번영한 도시의 명예를 누리는 상해는 자본주의의 뒷면에 나타나는 빈곤·슬럼·살인·매춘·아편·도박,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 근대도시의 부정적인 면도 수반했다. 상해의 근대적 도시화는 결국 일상의 자본화와 함께 남성중심주의적인 사상 아래 여성의 성적 상품화를 가속화시키는 행로를 필연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었다.¹⁵⁴⁾ 「살인」에서, 우뽀가 근대의 국제 도시 상해로 팔려 매춘부로 전락한 상황은 우연이 아니고,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처음에는 계 사마로(英界 四馬路)에서 밤마다 똥똥할미와 함께 사마로 아래를 오르내리면서 험수룩한 인력거(人力車)꾼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으나 재작년 계 공무국(公務局)에서 매음을 한 이후로는 지 있는 이 법계 세계(法界 大世界)앞 거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음 놓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하비로(霞飛路)로부터 계, 법계가 갈리는 에드워드로(路)까지 죽 서문에서 북정거장(北停車場)으로 다니는 찻길 좌우편이 모두 이 갈보 무리의 횡행지다. 그래 녀이 어슬어슬해지지만 하 면 수백의 갈보들이 모두 제각기 제 농당(농당은 상해 세집의 형이다. ㄷ자형으로 집을 총총히 연달아 짓고 사면팔방 북도 어구에는 쇠문을 해 달아서 밤에는 닫았다가 낮에는 열곤 하게 되어 있다)북도 어구에 마치 개미들이 개미구멍 밖에 나서듯 모뎡켜 서서 지나가고 지나

153) 최낙민, 「동방의 파리(巴黎) -근대 해항도시 상해의 도시이미지 -프랑스조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제75호, 132면. 1934년 상해에서 출판된 *All About Shanghai*라는 가이드북에서도 “Shanghai, sixth city of the Word! Shanghai, the Paris of the East! Shanghai, the New York of the West!”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1937년 뉴욕에서 출판된 *Shanghai- the Paradise of adventure*라는 가이드북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다.

154) 송소용, 앞의 논문, 295면.

오는 부랑자들 과 노동자들을 잡아끌고 추 보내고 하는 것이 이곳 상업이다. 그러나 그것도 순사한테 더욱이 불란서 경부한테 들키면 벌금 뿐이나 톡톡히 무는 바람에 갈보 주인들은 사람을 하나 사서 거리 어구에 세워두었다가 그 사람이 순사가 들어온다고 암호를 하면서 길 앞으로 빨리 지나가면 해 쪼이느라 구멍 밖에 나붙었던 벌레들이 몰려 들어가듯 농당 복도 어둑신한 쪽으로 우루루 쫓겨 들었다가는 순사가 지나간 뒤에는 또다시 우루루 몰려나와서 서방을 잡아들였다.¹⁵⁵⁾

근대 상해에서 디아스포라 삶을 살았던 주요섭은 「살인」에서 우뽀와 같은 매춘부들과 20세기 초 상해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 소설이 주목되는 것은 보리 서 말에 팔려간 우뽀가 상해로 흘러 들어와 3년 동안 매춘을 반복하는, 당대 사회 하층민의 참담한 삶을 그려보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뽀의 저항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똥똥할미의 돈벌이 수단으로 붙잡혀 삼 년 동안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 우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남자를 짝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벌써 한두 주일 전부터 우연히 그는 오정이 좀 지나 그가 피곤한 몸을 더러운 침대에서 일으켜가지고 얼굴 단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마다 그는 그의 창문 앞(그의 방은 가장 길거리 방이어서 그 조그만 창틈으로는 바깥 전차길 이 내다보였다)으로 어떤 미남자가 늘 지나가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다. 처음 볼 때는 그도 심상히 보아두었지만 열결에 한두 번 보는 동안 차차 마음이 뒤숭숭 해지기를 시작했다. 사랑! 사랑은 인류의 가슴에 영구히 잠겨 있는 불멸의 씨다. 이 씨가 구박과, 무식과, 착취와, 몰염치라는 돌맹이 밑에 눌러 있는 동안 자라지도 않고 따라서 당자도 그 씨의 존재를 인식지 못한다. 그러나 이 씨가 어떤 우연한 기회를 만나 한번 햇빛을 엿보는 날에는 이 씨는 마치

155)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41면.

비온 뒤 참대순과도 같이 하룻밤 새에 싹이 쑥 솟아오르고 하루 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며 이 자람을 막을 자는 세상 아무것도 없다. 이 자람의 세력은 세상 모든 무력을 압도하고 부셔 없애고 마는 것이다.¹⁵⁶⁾

가족도, 친구도, 재물도, 자유도 없고 심지어 자기의 몸도 자기 소유물이 아닌 우뚝은 이국 타향에서 살기가 힘에 겹다. 그러다가 창문 앞을 지나가는 청년 때문에 마음 깊이 숨겨 둔 사랑의 씨가 발아된다. “이 씨가 구박과, 무식과, 착취와, 물염치라는 돌맹이 밑에 눌러 있는 동안 자라지도 않고 따라서 당자도 그 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씨가 어떤 우연한 기회를 만나 한번 햇빛을 엿보는 날에는 이 씨는 마치 비 온 뒤 참대순과도 같이 하룻밤 새에 싹이 쑥 솟아오르고 하루 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며 이 자람을 막을 자는 세상 아무것도 없다.”¹⁵⁷⁾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잔혹한 현실을 발견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무감각했던 예전과 달리 그녀는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녀는 매춘부인 자신의 신분과 “깨끗한 옷을 입고 왼손에는 책을 든”, “교육받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깨끗한 청년”이란 신분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는 큰 격차를 비로소 실감하였다.

우뚝은 어두운 방 안에 일어나 앉았다. 일 초도 잊지 못할 그 청년의 자태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기로부터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중간에 건널 수 없는 구렁이가 있어서 제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가 잡힐 것 같지도 않았다. 더욱이 그는 “더러운 년! 더러운 년!” 하면서 멀리멀리 몸을 피하는 것 같았다. “더러운 년” 하면서 그는 제 팔뚝기로 제 얼굴을 문질러보았다. “더러운 년……” 그는 건널 수 없다는 듯이 폭 마루 위에 고꾸라졌

156) 위의 책, 43면.

157) 위의 책, 42면.

다.¹⁵⁸⁾

한 남성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억압되었을 때 그녀는 할미의 매춘 강요에 반항한다. 그 욕망을 억제하면 할수록 그녀의 반항 정도는 강해진다. 우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처음으로 남자를 상대하는 것이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를 상대하는 일을 싫어하지만 똥똥할미는 노동자를 하나를 끌고 와 억지로 우뽤에게 맡긴다. 우뽤는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했으나, 그 우악한 팔 힘을 당해낼 수 없어 두 번이나 정신을 잃고 만다. 그리고 반항했다는 이유로 똥똥할미에게 얻어맞는다.

사랑은 사람을 깨게 한다. 무식이 사랑 앞에서 스러진다. 우뽤는 이때껏 자기 몸, 또는 자기 생활에 대해서 절실한 생각과 연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일생 처음으로 제 몸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한참이나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으나 차차 머리가 깨끗해지고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었다. “왜? 왜? 왜? 누구의 죄인가?……” 그는 마침내 무엇을 깨달았다. “그렇다!”하고 그는 외쳤다. “그렇다!” 삼 년이나 같이 살던 주인 할미의 똥똥한 몸집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아 저 양도야지 같은 살, 내 피 빨아 먹고 쥔 살…… 오! 내 피 내 피!”하고 그는 바르르 떨었다.¹⁵⁹⁾

드디어 우뽤는 사랑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포주인 똥똥할미 탓이라고 깨닫는다. “삼 년 동안이나 내 살 내 피 빨아 먹은 미운 저것”라고 생각한 그녀는 부엌에서 식도를 들고 와 똥똥할미를 죽인다.

주요섭은 똥똥할미를 죽이고 탈주한 우뽤를 인생의 실패자로 간주한 것

158) 위의 책, 46면.

159) 위의 책, 47면.

이 아니고 오히려 저항의식을 가진 서발턴으로 그려냈다.¹⁶⁰⁾ 탈주는 그 시대와 환경에서 서발턴인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다. 그녀가 매춘부가 된 것은 그녀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다. 그녀를 판 부모와 자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묵인한 가부장제의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일제하의 궁핍한 상황과 공창제 실시, 그리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남성중심의 사상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우뚝을 매춘부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우뚝은 자신을 매춘부로 살아가게 만든 똥똥할미를 죽임으로써 매춘부인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한다. 주요섭은 이 소설에서 모든 인간적인 굴욕을 감수해나가는 서발턴 여성 우뚝으로 하여금 자유를 향해 달려가게 한 것이다.

장사보다도 더 억센 초자연적(超自然的) 힘으로 우뚝은 쇠대문을 떠밀어 열었다. 그리고 그는 생전 처음으로 제 맘대로 문밖으로 내달았다. 거리는 어두컴컴하고 좌우의 집들은 모두 시커먼 상판으로 ‘나 는 모른다’하는 듯이 내대고 있었다. 우뚝은 에드워드로 전등이 있는 쪽을 향해 줄달음질 쳤다. 그는 잔돌 깔 길 밖에 나와 아웨 씨가 늘 서서 전차를 기다리던 곳을 지나 시멘트 깔 반들한 길 위로 미끄러질 듯이 내달았다.…… 조롱을 벗어난 종달새가 파란 하늘 위로 노래하며 춤추며 울듯이…… 영원히 영원히 우뚝은 달음질했다.¹⁶¹⁾

「살인」의 결말 부분에서는 비참한 현실이지만 비판하지 않는, 풀뿌리와 같은 강인한 반항의식을 볼 수 있다. 여주인공 우뚝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열린 결말로 작품이 끝나지만, 그녀는 적어도 자신을 억압했던 현실에서 벗어난 것만은 확실하다. 앞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생계를

160) 송소용, 앞의 논문, 297면.

161)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49면.

도모할지, 이국 타향에서 어떻게 도망 다닐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쇠대문을 박차고 나온 장면은 억압 속에서 주변화된 타자 우뚝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희망을 제시한다. 「살인」에서 보여준 우뚝에 대한 깊은 연민, 그녀의 서발턴의 삶에 대한 자각과 탈주를 통한 희망의 제시는 작가 주요섭의 서발턴 여성의 상실한 목소리에 대한 복원이요, 서발턴에 대한 말 걸기이다.

「첫사랑 값」의 주인공 유경은 상해로 유학 온 지식인이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탄압을 당하는 식민지 청년 유경 역시 서발턴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피박은 ‘서발턴’의 의미를 ‘피식민지인’까지 확장시키는데, 그에 따르면 서발턴은 종속적인 처지에 놓여 있거나 주변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포괄한다. 이 개념으로 볼 때 유경 역시 서발턴에 해당한다. 유경은 비록 대학생 신분이지만 일제에 의해 피식민지인이 된 상태이고, 유경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여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유경의 갈등은 일제에 대항하여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시대에 중국인 여자 N을 사랑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조국과 민족,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첫사랑 값」은 주요섭의 자전적 소설로, 소설 속 주인공의 행동과 사상은 대부분 작가 자신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유경은 상해 유학시절의 주요섭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상해 시절 후배이자 주요섭을 친형처럼 따랐던 피천득은 주요섭의 호가 여심(餘心)이라는 것은 한 중국 여학생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결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형은 한 중국 여동학과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심이라는 아호를 지었습니다. 타고 남은 마음”¹⁶²⁾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요섭의 유학생활을 수필로 남긴다.

162) 피천득, 「여심」, 『인연』, 샘터사, 1997, 194면.

대학에 있어서의 형은 특대생이었고 영자 신문 주간이요, 대학 토론회 때 학년 대표요, 마닐라 극동 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형은 나의 이상적 인물이요, 그리고 모든 학생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의 앨범 첫 페이지에는 도산 선생의 사진이 있었고, 그 밑에는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써어 있었습니다.¹⁶³⁾

피천득 글 속의 주요섭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영자 신문 주간을 맡고, 대학 토론회 때 학년 대표를 맡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리더십이 뛰어났던 것 같다. 상해 유학 시절의 주요섭은 홍수가 나자 수재민 구제금 모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서구열강 자본가들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그들의 잘못을 영어로 써서 미국 대학생들에게 전달하기까지 한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보이며, 운동신경도 뛰어나 마닐라 극동 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참가하고 만 미터 달리기경주에서 3등을 취득했다.¹⁶⁴⁾ 뿐만 아니라 상해시기에 주요섭이 참여했던 ‘상해 5.30 운동’과 ‘북벌군의 상해 진주(進駐) 사건’ 등 혁명 활동에도 참가할 만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상해 5.30 운동’ 장면에 대한 묘사는 「첫사랑 값」 곳곳에 나온다.

유경의 고민은 N를 사랑하지만 N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조선 청년이 지금 ‘비상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유경에게 이 시기는 연애보다는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시기이다. 주요섭 역시 이 시기에 한 중국인 여성을 사랑하게 되지만 결실을 맺

163) 피천득, 위의 책, 192면.

164) 강진구, 앞의 논문, 257면.

지 못한 것 또한 유경과 같은 갈등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경의 내면 갈등은 유경의 일기장에 잘 드러난다. 8월 28일부터 다음해 6월 20일까지 유경은 중국 상해 지역에 있다고 적었다. 유경은 N이라는 중국 여학생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그의 생각이 내 머리를 점령했다. 힐끔 두어 번 본 얼굴이어서- 개학 이래 아직 보지 못했었다. 그것은 내가 그리 여학생들을 주의해 보지 않는 까닭이다. 얼굴의 윤곽만도 펍 희미하게밖에는 기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머리에는 그 쏘는 듯한 광채 있는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그 눈, 그 눈이 온밤을 내 몸을 감시하고 있었다. 내가 내 자신으로도 펍 이상하게 생각이 된다. 성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벌써 십여 년 동안에 하고많은 여자들- 그중에는 ‘펍 예쁘다’하고 인상을 얻은 여자도 수두룩하다-을 길거리에서 보고 학교에서 보고 한자리에 앉아 공부를 했으되 이처럼 잊혀지지 않는 인상을 남긴 적이 없다.¹⁶⁵⁾

신입생 환영회에서 유경은 N에게 첫눈에 반했다. 유경은 N과 눈이 마주쳐도 제대로 눈도 못 맞추고, 밤새도록 그 여학생 생각만 했다. 그러다 강의실에서, 연극장에서, 예배당에서, 우연히 길에서 N을 몇 번 더 만나며 둘이 사이가 가까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경의 N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헤어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른다.

나는 그동안 며칠을 어떤 모양으로 지냈는지 모른다. (중략) 그동안 나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계속했는지 알 수 없다. 한 날 한 시도 한 초 동안도 그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글 한 두어 줄 정신 들여 읽다가도 그저 그의 생각이 번 듯 나곤 했다. 그동안의 내 생활 전부는 그저 꿈속 생활이었다. 얼마나

165)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55면.

그를 잊으려고 애를 쓰는지! (중략)

그러나 나는 내 전신이 자꾸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연히 머리를 끼웃하기도 하고 발을 늘어뜨렸다 다가들었다 하기도 하고……이러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두 팔을 건사할 데가 없어서 큰 걱정이었다. 평상시에는 두 팔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만치 무관심했었는데 이 N씨 앞에서는 어떤 일인지 두 팔 처치하기가 참 힘이 든다. 무릎에다가 척 늘어뜨려고 보고 마주 쥐고 읊하듯이 가슴에 대어보기도 하고 엉덩이 아래로 넣어 깔고 앉아보기도 하고 아무렇게 해도 자꾸만 보기 흉한 것같이 생각이 된다.¹⁶⁶⁾

유경은 N이 다른 남자와 있을 때 질투에 빠지고, N의 생각에 자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N을 사랑한 유경은 마음속 깊은 곳에 조국에 대한 사명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N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단념하라고 다짐했다. 10월 20일부터 상해를 떠날 때까지 유경은 N을 사랑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했다. 유경의 일기장에서 자주 나온 단어는 ‘민족’이다. “지금 이 어떤 때인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며 유경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룬다. “민족을 위해서 독신생활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무엇인가, 조그만 계집애 하나에게 미쳐서 공부도 확실히 못 하는 이 꼴은 무엇인가? 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신에게 경고한다.

현금의 조선 청년은 비상한 시기에 처하여 있다. 비상한 시기에 처한 청년은 비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목숨도 희생할 때가 있거든 하물며 사랑! 아! 그러나 가슴은 아프다. 이것은 내 목숨같이 귀한 내 첫사랑이 아닌

166) 위의 책, 59-62면.

가! 그러나 용감하여라. 대장부답게 꼭 단념해버려라. 아직 너무 늦지 않다. 이 모양으로 지나가다가 너무 늦어지면 그때는 후회하여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지금이 단념할 때다.¹⁶⁷⁾

유경은 조선 청년이 비상시기에 처하여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비상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유경이 상해에서 유학하고 있을 무렵의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여 일본과 민족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위기의식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유경은 일제 식민통치 아래에서 조선 지식청년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N을 포기해야 한다고, 자신의 욕망을 대장부답게 단념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이것은 주요섭이 중국을 선택할 때 “공부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왜놈들을 때려죽이겠다”¹⁶⁸⁾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식민지 통치 하의 지식청년으로서 혁명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피식민지 서발턴이 민족적 억압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 표현이다.『첫사랑 값』이 발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화된 나라의 민중들이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던 시기였다. 유경이 일기장에서 쓴 대부분 내용은 N과 관련된 것이지만, 외국인의 눈으로 ‘상해 5.30 참안’ 발생 당시의 시국 상황도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 ‘5.30 참안’으로 부르는 이 사건의 발단은 1925년 5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기업가가 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공장노동자 고정홍(顧正紅)을 총살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상해 노동자들이 일본·영국 등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 사건에 동참한 상해의 대학생들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 상황을 알리고 모금활동을

167) 위의 책, 72면.

168)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현암사, 1984, 102면.

별인다. 그리고 외국에도 알리고자 조계지로 들어가고, 이런 학생들을 공부
국 경찰이 체포한다. 5월 30일 상해학생연합회와 전국학생총회는 경찰의
체포 행위에 항의하며 조계에서 강연하고 대규모 시위를 한다. 시위 과정
에서 경찰이 다시 총격을 가해 10여 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
을 입는다. 이를 계기로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운동, 노동자 파업투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상해는 대학생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상해학생연합
회에 가입한 학교 수가 90여 개에 달했다. 유경이 다니던 학교도 동맹파학
을 하고, 학생회를 조직하여 노동자 파업 후원 활동에 힘쓰고 있었다.

5월30일

토요일이다. 오후에 상해 나갔던S가(S는 나와 한방에 유하는 중국 학생이다)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남경로(南京路)에서 학생이 연설하다가 영국 관헌에게
총살이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 (중략)

6월1일

학생자치회 결의로 동맹 파학했다. 재작 5월30일에 남경로에서 영국 관헌에게
중국 학생 근 십 명이 총살을 당한 것이 동기가 되어 상해 전시(全市)에 파공
파시 파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파학을 한 것이다. 학교 교장은 ‘질서를 유지
한다’ 하는 학생측 규약으로 불간섭주의를 쓰기로 선언했다. 학교 학생 대표
열 사람을 뽑아 상해학생연합회에 매일 참석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마다 강당에 모여서 대표의 보고를 듣고 연보도 하고 하기로 했다. 기숙사에
서는 오늘부터는 일절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만 하여 매일 오십여 원씩 남기
는 돈으로 대표들 상해 다니는 차비도 쓰고 파공한 노동자들 생활비도 보태
기로 했다. 오후마다 대를 나누어 근처 촌락과 공장으로 나아가서 선전 연설
과 파공 선동을 하기로 하였다. 출판부 회계부 선전부 사찰부 조사부 등을 내
었다. 온 학교가 벽작벽작한다.¹⁶⁹⁾

169)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108-109면.

유경의 일기장에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유경의 학교도 동맹파학에 가담하고, 학생 대표를 뽑아 상해학생연합회에 매일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강당에 모여서 대표의 보고를 듣고 연보도 하기로 했다. 파업한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근처 촌락과 공장으로 가서 선전 연설과 파업 선동을 하기로 했다. 위의 일기장에 나온 글은 ‘상해 5.30 참안’을 진실하게 묘사했다. 이는 주요섭이 직접 호강대학 학생들과 함께 상해 노동자들과 함께 총동맹파업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¹⁷⁰⁾

N에 대한 사랑과 조국과 민족의 해방 사명 사이의 갈등, 조국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이국 타향에 있는 무력감으로 인해 유경은 평양으로 돌아간다. 고향에 돌아온 유경은 잠시 동안 기뻐지만, 시간이 흐르자 더욱 외로워하고 절망에 빠진다. 유경은 사랑하는 N을 잊지 못하고, 가족들이 소개해 준 약혼 대상인 K에게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첫사랑 값」은 미완의 작품이고, 그래서 유경이 왜 자살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조선 지식청년인 유경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이상과 사명감, 현실에서 느끼는 존재의 무력감, N을 사랑하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좌절감, 민족과 국경의 경계 사이에서 배회하다가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물론 “한 개인의 의지박약도 문제지만 식민지 치하인지라 이 땅에서도 중국 땅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회의주의”¹⁷¹⁾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소설은 액자소설이다. 액자 안 이야기인 상해에 유학했던 피식민지인 이자 디아스포라인 유경의 불행한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사랑마저 거부해

170) 주요섭, 「상해관전기」, 『삼천리』, 1932.3; 주요섭, 「1925년 5.30」, 『신동아』, 1934.5; 주요섭, 「내가 배운 호강대학」, 『사조』, 1958.11.

171) 이승하, 앞의 논문, 419면.

야 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운명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자살은 운명에 대한 회피로 볼 수 있지만 개인적 사랑에 몰입할 수 없었던 지식인의 민족적 갈등으로부터 야기된 저항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 서발턴의 방황

「유미외기」와 『구름을 잡으려고』의 주인공 이전과 박준식은 소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생존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들은 꿈을 좇아 미국으로 왔지만, 결국 희망이 부서진 채 방황하는 부평초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존재이다.

주요점은 「유미외기」에서, 조선인이 처한 서발턴으로서의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인 청년 이전을 통해 지식인 역시 조선인들의 주변화된 모습, 즉 서발턴으로서 타자화된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음을 내보인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조선인 고학생 이전은 황금이 널려 있는 미국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려는 꿈을 꾸며 미국으로 간다. 그는 고학으로 3년 만에 대학을 겨우 졸업했지만,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는 공부하는 동안 매일 5-6시간, 주말에는 하루 12-13 시간 일을 했다. 겨울이나 봄방학에는 매일 15-16 시간 부엌 심부름, 애 돌보기, 막노동, 변소청소 등의 힘든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다. 그러나 학비를 내고, 책을 사고, 음식비를 내고, 숙박료를 내고, 옷 사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면 돈은 늘 부족했다.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남이 공부할 때 노동한 결과, 대학 졸업이란 귀한 성공을 거두지만, 800불의 빚을 지고 만다. 이전은 빚을 갚고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그는 매주 3불50센트를 내는 싸구려 셋방 1칸을 얻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조선인이 경영하는 노동소개소를 찾아간다.

사습전이 다달아 낫스나 아즉 일자리가 들어오지를 안했다. 사람들이 만히 피서를 가기 때문에 고인(雇人)이 다른 때보다 더 소용된다는 소개소주인의 설명이었다. 돈을 조금 돌려달랄 마음은 간절했스나 용기가 나지 안코 더욱이

일을 어더 주더라도 수수료를 지금 못하고 일금(日後) 임금을 바다서야 줄 형편인고로 더욱이 용처 돈까지 꾸어달랄 용기는 나지 안했다. 전당이라도 잡혀 먹을 것이 잇스면 조꼇는데 전당국에 들고 가야 단 십전(十錢)을 바다올 아모런 귀금품도 업섯다.¹⁷²⁾

노동소개소에서 일자리를 한 번 주선했으면 첫 달 임금에서 10퍼센트는 수수료로 소개소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도 일자리가 적고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다. 그는 돈이 거의 떨어져 마음이 초조해도 소개소 주인에게 돈을 조금 변통해 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다. 그는 수수료로 줄 돈도, 전당잡힐 수 있는 귀중품도 없었다. 이런 형편에 하루 종일 소개소에서 굶으며 앉아 있던 이전은 거리에 나가도 갈 데가 없다.

이전은 졸업 후 모두 네 번의 일자리를 얻었다. 그가 얻은 모든 일은 강한 체력을 요구했으며, 노동 시간과 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었다. 그렇지만 최하층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불평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조선에서는 지식 청년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는 하층민의 서발턴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가 얻은 첫 번째 일자리는 집안 치우는 일이었다.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조선 청년 지식인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변기를 청소하고, 침실을 청소하는 막노동 일자리뿐이었다. 그에게 일을 시킨 주인은 할리우드 명성빈민굴(名星貧民窟)에 사는데, 악역을 맡아 영화를 찍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오른팔이 부러졌다. 그래서 이전을 불러 청소와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 이전은 팔을 걷어 부치고 욕실부터 청소하기 시작한다. 변기통 냄새가 심해서 코를 찌를 정도였지만, 일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저녁때가 되어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자 응접실은 다시 난장판이 되었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침실까지 청소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전은 하루 품삯 3불50센트를 받

172) 주요섭, 「유미외기」3, 『동아일보』, 1930.02.26.

고 그 집 문 밖을 나선다. 그는 주머니를 만져보며 ‘이삼일 굶지 않겠다’라며 안심한다. 이렇게 이전은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며 힘들게 살아간다.

두 번째 일자리는 과일가게 점원 일이었다. 이 과일가게 일자리를 찾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파는 행상을 했지만, 일자리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과일가게에서 일본인인 척하며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는 1년 동안 과일가게에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주인은 이전의 거친 손을 보고 그 말을 믿는다. 매일 15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고, 매주 목요일에만 쉴 수 있었다. 식사는 매끼 네 사람씩 교대하며 먹었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음식을 내놓자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다. 힘든 노동 때문에 늘 배가 고팠지만 젓가락을 대기도 싫었다. 그러다 영어 발음이 좋다는 이유로 일주일 후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는 석 달 동안 과일가게에서 일한 결과 200불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빚의 4분의 1은 갚은 것이다. 그런데 9월이 되어서 과일이 잘 팔리는 시기가 지나자, 또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세 번째 일자리는 아파트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아파트는 2층 건물로 세를 놓은 방이 30칸 정도 있는 중급 수준의 아파트였다. 이전이 기거할 방은 대문에 붙은 작은 방인데, 창문에는 감옥처럼 철창이 있고, 침실 1칸, 욕실 변소 1칸이 있는 더러운 방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아침 6시에 정문과 후문을 열고, 정문 앞에 있는 간판을 닦고, 층층대와 복도를 쓸고, 각방에 있는 휴지통과 청결통(清潔桶)을 들어내고, 아파트 방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이 아파트에는 대학생, 귀부인, 홀아비, 과부, 술장수, 노처녀, 중년부부, 술장사 모녀, 젊은 부부, 치과 교수, 소학교 여교사, 자동차 상인, 퇴직 노인, 간호사, 늙은 부부, 변호사 서기 등이 세 들어 산다. 이전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미국인들의 집을 청소하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은 그들의 생활상을 살살이 살피는 관찰자가 되어 하층 노동자의

눈으로 미국 사회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전이 가장 힘들어 한 일은 대학생 방을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아래 인용을 보면 그의 관찰력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오전에는 늦도록 잠자고 오후에는 운동가고 밤에는 판스가고” 이것이 대학생의 일상생활 잣다. 그러면 공부는 언제할까? 하는 것이 의문일다 과연 의문일다. 그리고 또 술은 웬 술을 그리마시는지! “세상 제일 더러운 방 구경을 하려거든 미국 대학생방을 보게”하고 이(李)는 늘 말한다. 참으로 미국 대학생들처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업슬 것이다. 오전 열 시가 거의 되어 이가 제일호실에 들어가면 대학생 이전은 아죽도 침대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다. 드리서 한 침대에서 잔다. 방바닥에는 넥타이 손소건 양말 등등이 널마전 버리듯 되는 대로 헤어져 있고 의례히 잠자리에 마신 위스키병이 다섯 개 이상 침대 미테 넘어져 있다. 청결통을 가지려 부엌으로 가면 참으로 머리가 글킨다. 보통 다른 방에서 쓰는 청결통은 넘우 적다고 해서 특별히 커라란 통을 사다 주었것만 무엇을 그리 만히 먹는지 그것이 가득차고 넘어서 부엌 바닥에 싸혀 있고 또 “썩크”속에도 산뎀이처럼 싸혀있다. 꿀꺽질 뻘나나꺽질 참외 꺽질 낙화생꺽질 닭알꺽질 면보 타진 것 과자절반 깨물고 내친 것 먹다 내버린 죽 고기 뼈먹다 냄긴 뼈터 빈 “간즈페”통들 무우꺽질 배추꽂뎀이 카피차꺽 꺽이 담배꽂뎀이 등등 거기다가 시퍼런 코까지 가미하면 그 장관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¹⁷³⁾

더러운 침실과 화장실 때문에 대학생 방을 청소하는 날은 다른 날보다 오후 늦게 일을 마쳤다. 다른 방에 있는 주부들은 한 달에 1, 2 불씩 하인에게 팁을 주는데, 대학생들은 하인에게 팁을 주는 것도 몰랐다.

아파트 청소를 하는 동안 이전은 남의 눈치를 보고 울분을 참는 경우가

173) 주요섭, 「유미외기」12, 『동아일보』, 1930.03.19.

허다했다. 14호실 여주인은 까다로워서 청소를 할 때마다 간섭을 했고, 26호실 과부의 딸은 청소를 방해한 적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전은 아파트에서 술장사를 하던 미국인이 경찰 당국에 포착되어서 일을 그만 둔다. 그는 이민국 관리의 눈을 속여 가며 아파트 하인으로 일했는데, 경찰이 지문까지 찍어갔기 때문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였다. 이전은 그동안 벌어들인 200불에서 10불만 남기고 모두 채권자에게 보내 빚을 갚았다. 이전은 두 주일 후에는 여사(旅舍)에서 쫓겨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인 노동자 서넛과 함께 다시는 가지 않겠다던 교회에 밥을 얻어먹으러 간다.

네 번째 일자리는 석유로 벼락부자가 된 독일계 미국인의 집에서 ‘뺏들러(하인)’로 일하는 것이었다. 그가 맡은 일은 끼니때에 심부름을 하고 설거지를 하며,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외투 모자 등을 걸어주는 일이다. 그 외에 청소를 하고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된다. ‘뺏들러(하인)’에는 경험이 없었으나, 주인이 몇 해 전까지는 농부였다가 석유가 나오기 시작해 부자가 되었으므로 실수를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다. 크리스마스, 12월 31일 밤 같은 특별한 날에도 그는 쉴 틈이 없다. 크리스마스에는 주인집에서 손님을 초대하여 밤 9시부터 저녁을 먹는 바람에 새벽 4시까지 수백 여 개의 그릇을 닦는다. 12월 31일 밤에는 저녁을 11시부터 먹는데, 12시가 되니 각 공장에서 기적이 울고, 예배당에서 종을 친다. 저녁을 먹는 손님들이 ‘해피 뉴이어’라고 인사하는 동안 그는 그릇을 닦으며 새해를 맞고 있었다.

이전이 졸업할 당시 “일본인은 힘세고 부지런하다”라며 말을 거는 북유럽 노인에게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라고 화를 낼 만큼의 민족정체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족정체성과 자존심은 그에게서 점점 사라진다. 그는 일본인인 척하며 거짓말도 하고, 법으로 금

지된 일도 하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던 교회에 밥을 얻어먹으러 간다. 같은 지식청년의 신분이지만, 「첫사랑 값」 주인공 유경이 가지고 있던 지식인의 사명감은 보이지 않고, 오직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만 뚜렷하게 드러난다.

1차 세계 대전(1914년 7월 28일-1918년 11월 11일) 이후 피해가 없었던 미국으로 해외 자본이 밀려오면서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1920년대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시설의 기계화, 기업 조직의 거대화, 기업 운영체계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자본주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기업들이 1차 세계 대전 때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치권도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 기업이 합병과 독점으로 활개를 치고, ‘러시아 혁명’¹⁷⁴⁾으로 인해 미국의 노동운동은 위축되었다. 미국 사회는 점점 보수화되었으며 자유방임주의는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으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증권사로 몰리며 투기가 일어난다. 증권시장이 과열되면서 기업의 가치보다 주식이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이 생기고, 거품 경제가 발생한다.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연쇄 파산하게 되

174) 강상원, 『Basic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 사전』, 신원문화사, 2002.

러시아 혁명 [Russian Revolution, -革命] : 1905년과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보통은 1917년의 혁명을 가리킨다. 러시아 혁명은 2월 혁명(1917)과 10월 혁명(1917)으로 구분된다. 2월 혁명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장기화로, 제정 러시아의 여러 가지 모순이 표면화하여 제정은 붕괴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하였다. 노동자, 군사 대표인 소비에트와, 국회를 기반으로 한 임시 정부가 성립, 그 뒤 노동자, 농민과 부르주아, 지주 등 양자에 대표되는 세력의 대립 항쟁이 계속되었다. 10월 혁명은 전쟁을 속행하는 임시 정부에 대하여, ‘빵과 평화’를 요구하는 대중을 볼셰비키(소비에트 내의 레닌을 중심으로 한 세력)가 주도하였다. 볼셰비키 세력을 확대하여 10월 말, 무장봉기로써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가 권력을 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고, 대공황이 시작된다.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과일 생산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한다.

주요점은 1927년부터 1930년 2월 4일 평양으로 돌아오기까지 미국의 격동기를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는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추락하는 과정을 살살이 체험한 산 증인이었다. 이는 「유미외기」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지식인 서발턴 입장에서 백인이 원주민을 쫓아내고 어떻게 미국에 정착했는지, 인종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금주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회상이 어떠한지, 백인 중산층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관찰해 보이고 있다.

이전은 교육받은 지식인 청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빈곤한 처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도 깨어 있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를 면하지 못했고, 황금만능주의 미국 사회에 직면하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지식인이었음에도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미국에서 최하층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던 인물이다. 유색인종 디아스포라로서의 서발턴의 운명은 지식인이나 배우지 못한 노동자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유미외기」 결말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하여 조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놀기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처럼 수십 명의 청년이 모여 값싼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들이 마지막 내린 결론은 미국 문명이란 기계발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조선의 지식청년들이 미국으로 유학하여 고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 이민하러 온 사람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은 성공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 적응하여 어느 정도 성공한 이민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와 기회를 성취한 다음 단계의 목표 실현에는 보다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에릭 프롬이

지적인 대로 ‘-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라는 소극적 자유의 추구가 이루어진 다음, ‘-에로의 자유(freedom to)’라는 창조적이고 적극적 자유와 기회의 추구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⁷⁵⁾. 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유색인종 차별과 황금만능주의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인해 미국 사회의 중심에 편입되고자 하는 다음 단계의 목표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기회의 땅, 황금의 땅’이라는 미국의 허상만을 좇아 미국에 건너온 대다수의 조선인은 돈도 벌지 못하고 공부도 끝까지 마치지 못하며, 서발턴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타국에서 미국 사회의 최하층의 서발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모다 도미 이래 별의 별 고생을 다했다. 혹은 공부에 성공하고 혹은 돈을 이삼천 불 모아 노릇스나 다대수(多大數)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피상적(皮相的)으로 보자면 아주 타락해 버렸다고 단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누구나 (십년 전에 왔거나 일전에 왔거나) 도미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李)도 진심으로 거기 찬성이었다. 공통한 의견의 귀결은 이러했다. “미국문명에는 기계발달 외에는 다른 아모 것도 없다. 그 힘으로 공학이나 기계학을 학습하려는 이는 잠깐 와서 실습해가면 유리할 것이다. 그 외에는 조선청년으로 도미할 다른 아모런 이유도 없다. 더욱이 고향으로 오는 것은 우자(偶者)의 것이다” 라고.¹⁷⁶⁾

「유미외기」의 주인공 이진 역시 가까스로 공부는 마치지만, 빚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1924년 미국 이민법에 의해 미국에 오려는 동양인은 학생 신분으로만 체류가 가능했는데, 대학 졸업으로 학생 자격을

175) 송명희, 「재미동포문학과 민족 정체성 -미국 동부지역 워싱턴 문단을 중심으로-」, 『비교문학』32집, 한국비교문학회, 2004, 256-257면.

176) 주요섭, 「유미외기」25, 『동아일보』, 1930.04.10.

상실한 이전은 미국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전은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A시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전이 간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 시카고나 뉴욕으로 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캐나다나 남아메리카로 갔다고 한다. 이전은 지식인 서발턴으로 전락하며 실종자가 되고 만다. 바꿔 말하여, 이 작품은 미국 유학생의 서발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유학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고자 하는 조선 유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미외기」에 뒤이어 발표한 「구름을 잡으려고」에서는 노동자 서발턴의 입장으로 멕시코와 미국 이민자들의 실상, 로스앤젤레스의 호황기,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곡물 가격 폭락, 1929년 세계대공황 상황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이 작품은 미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경험담과 자신의 미국 유학 체험을 토대로 한 일종의 다큐멘터리 소설로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리얼리티를 살리며, 해외를 떠도는 주인공 박준식의 파란만장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다.

박준식은 북미 대륙에서 여러 방면으로 차별을 받는다. 그는 피식민지인, 디아스포라, 동양의 유색인종, 소수민족 출신의 노동자 등의 다중의 서발턴 운명에 맞서서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제도에 대항하지만, 죽을 때까지 서발턴 하층민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돈을 벌기 위해 제물포(인천)로 간다. ‘개발회사’의 꾀에 속아 미국으로 떠날 결심을 한 준식은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생각을 하고 배에 오른다. 그런데 이 배의 최종적 목적지는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였다.

소설의 서두에 “십구세기 맨 마지막 해 봄”이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준식이 조선을 떠난 해는 1899년이였다. 그런데 조선인들의 공식적인 멕시코 이민이 가능한 것은 1902년이였다. “근대 초 조선에서 멕시코 이민은

1902년 단 한 차례만 이루어졌다. 이때 멕시코 이민 브로커와 일본 이민회사는 상호 결탁하여 조선의 신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수록했고 대부분의 요건은 지켜지지 않았다.”¹⁷⁷⁾ 동시대 하와이 이민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자유노동자로서 도시로 이주하는 등 점차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데 반해, 멕시코 이민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계약 노동이 통용되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권력자인 농장주들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귀국하거나 더 나은 직업을 찾지 못한 채 현지 사회에 적응해야만 했다. 드물게는 멕시코에서 탈출한 노동자도 있었는데, 3년여에 걸친 여정 끝에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02년의 이 기록보다 준식이 멕시코로 떠난 해가 3년이나 빠른 것을 보면,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이민을 떠난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주요섭이 ‘시간적 배경’을 3년을 앞당겨 설정했을 수도 있다.

준식이 조선을 떠난 시기는 미국 한인 이민 초기에 해당한다. 초기 한인 이민은 조선 왕조 말기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재난의 연속이 원인이었다. 더구나 조선왕조의 내부 분열은 일본·미국·러시아 등과 같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 이권을 노려 침투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다. 전쟁과 식량난, 강압적 세금, 그리고 폭증하는 부채들은 농민들의 경제 사정을 참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모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게 하였다.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고 미국과의 외교 및 통상관계를 개시하는데,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세기 말 미국과 조선의 정치·경제적 통상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다.¹⁷⁸⁾

준식이 이민한 목적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에서

177) 서승희, 앞의 논문, 168면.

178) 윤인진, 앞의 책, 200-205면.

이미 최하층에 속한 서발턴 신분이었다.

밥, 밥, 밥! 이다. 밥 때문에 자기도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는 팔백리 길을 걸어왔다. 바로 왔으면 오륙백 리 길밖에 안 되는 것을 길을 잘못 들어 한찬 동아서 팔백 리를 온 것이다. 팔백리 길 내내 가고 또 가면 길 좌우편에는 모두 밭이 있었다. 도처에 보리가 벌써 한 뼘씩이나 자라나 있었다. 밥! 그 얼마나 얻기 쉬운 것이냐? 그 끝없는 밭에서는 쌀이 나지 않느냐? 조가 나지 않느냐? 보리가 나지 않느냐? 심고 김매고 거두면 거기서 밥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렇기는 한데 이상한 일로는 지금까지는 그 얻기 쉬운 밥을 얻기 위하여 팔백리 길을 찾아왔다가 얻지도 못하고 낫선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준식은 또 한번 여기저기 웅크리고 앉아 잇는 밥 찾는 무리들을 둘러보았다. 그 많은 밭에서 난 곡식은 모두 어디로 갔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밥 한 그릇을 얻으려 여기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¹⁷⁹⁾

준식은 조선에 살고 있던 서양 사람들이 모두 다 부자같이 보였다. 그렇게 돈 많은 부자만 사는 나라에 가서 노동을 하면, 조선 안에서 굶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선을 떠난다. 준식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조국을 떠나고자 했던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을 품고 이민한다. 미국으로 떠날 결심을 한 준식은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생각으로 미국 가는 배에 오른다. 어떤 일에 종사할지, 어디로 갈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생존을 위해 이민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었고, 오직 굶지 않겠다는 생각이 눈앞에 닥친 해결 과제였다. 하지만 준식이 도착한 곳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의 목화농장이었다. 그는 멕시코 농장에서 ‘노예’임을 알리는 화인(火印)을 팔뚝에 찍히는 신세가 된다. 노예로 팔려온 사실을 알게 된 준식은 분노하지만 아무런 소

179)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앞의 책, 275면.

용이 없었다. 준식은 4년 동안 농장노예로 살며 중노동에 시달린다. “무엇하려고 사는가?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러한 물음이나마 물어 볼 경황조차 없는 삶이었다. 준식은 짐승 우리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하루 세 끼 돌띠아(또띠야)와 맹물을 얻어먹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죽을 고생을 다한다. 자고 먹고 일하고 매 맞고, 이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이 꼭 같은 생활이 오늘 내일 모래 글피 한주일 한달 한해 두해 계속한다. 이 수다한 종들이 하루 돌띠아 서른 개 받아먹고 죽도록 나가 일한다. 휴식이라고는 밤에 잠잘 때와 오정으로 세시까지 가장 뜨거운 때밖에 없다. 그러나 일은 아침 네 시에 시작하니까 결국 하루에 열네 시간씩 푹푹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수로는 오직 돌띠아 서른 개, 물 세 사발, 한 달에 한 번 갈아주는 홀웃 한 벌, 돼지우리 같은 집, 욕, 매, 학대 이것들이 전부이다. 180)

준식은 4년 동안 농장노예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리지만, 짐승 우리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하루 세 끼 돌띠아(또띠야)와 맹물을 얻어먹으며 죽을 고생을 한다. 그는 농장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죽어버리거나 미쳐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준식은 독사에 물린 멕시코 홍인종 아리바를 구해 준 것을 계기로 미국으로 도망갈 기회가 생긴다. 아리바는 멕시코를 장악한 ‘디아스 정권’¹⁸¹⁾에

180)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앞의 책, 314면.

181) 강석영, 『라틴아메리카사』, 미래엔, 2001.

디아스 정권: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오아하카주(洲) 출신으로 믹스테카 족의 메스티소(백인 인디오의 혼혈인) 출신이었다. 그는 1855년 계릴라전에 참여하여 산타안나 체제에 도전하고, 자유주의 정권하에서는 프랑스군에 대항하여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는 1871년의 선거에서 군부 대표로 입후보하여 베니토 후아레스와 대결했으나 패배한 후 반란을 일으켜 4개월 만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그가 1876년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세바스티안 레르도 데 테하다 정권의 반성직 조치로 인해 교회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집권할 때 멕시코 농민들의 상황은 지역별로 다양하였다. 남부와 유카탄 지역의 농민들은 주로 용설란(Henequén) 농장의 노동자들로 노예 상태

대항한 토착민으로, 준식이 일하던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찰하던 중이었다. “당시 멕시코를 장악한 디아스 정권은 대규모 플랜테이션과 광산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을 참살하고 그들의 토지를 약탈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노예를 사들이고”¹⁸²⁾ 있었다. 준식은 아리바의 도움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탈출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차를 잘못 타 산간으로 간 준식은 그곳에서 벌목공이 되어 돈을 모으지만, 외로워서 도시로 나온다. 준식은 도시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게를 얻지만 지진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은 불에 타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한인 지도자의 권유로 조선 처녀 순애와 사진을 교환한 뒤 가정을 꾸린다. 하지만 준식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순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함께 준식이 모아둔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다.

준식은 아들 찜미를 홀로 키우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그는 화씨 백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아스파라거스도 캐고, 얼어붙은 땅을 파내어 파이프를 묻는 하수도 공사도 하고, 굴도 파보고, 콩도 파본다. 말 외양간에서 말 거두기, 돼지우리에서 돼지 키우기, 닭 화에서 닭 키우기도 해보고, 시골 여관에서 변소 닦는 일도 해 보고, 금주(禁酒)가 실시된 후에는 밀주 판매의 앞잡이 노릇도 해 보았다.

에 있었다. 인구가 조밀한 중부 지역은 많은 토지를 수용당해 토지 없는 농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북부지역은 농산물 수요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부족하여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일부의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주민이 없어 임금이 상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1876-1885년 사이에 외자를 도입하여 국가통합과 개발을 위해서 철도 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5-1900년 사이에 멕시코는 1300만 명의 주민들 중에서 91%가 빈곤 계층, 8%가 중산층, 그리고 겨우 1%만이 상위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디아스 집권기는 1876-1896년 사이의 평온기, 1896-1907년 사이의 번영기, 1907-1911년 사이의 정치적 소요에 따른 발전의 중단 및 체제의 붕괴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2) 서승희, 앞의 논문, 169면.

하는 일마다 실패한 준식은 그 사이 노인이 되었고, 채소 도매상인 이치덕의 도움으로 채소가게 막일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찜미의 어머니 순애를 다시 만나게 된다. 준식은 순애에게 찜미를 빼앗기기 싫어서 일자리를 그만두고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사는 집에서 일을 한다. 준식은 그곳으로 찾아온 찜미를 만나 행복해 하지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 그를 또 다시 떠나보낸다. 미국의 경제대공황 이후 준식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살다가 길에서 넘어진다. 그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늙은 어머니, 자신과 같이 미국으로 왔던 춘삼이, 자신을 도왔던 아리바와 경선이, 목사님, 아내 순애, 아들 찜미의 환영을 본다. 결국 준식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잡으려다 낙망한 채 죽어간다.

준식이 늙어서 야채상에서 일할 무렵에는 단골손님조차 그가 더럽다며 물건 사러 오기를 싫어할 만큼 영락한다. 평생 서러움을 당한 준식의 꿈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¹⁸³⁾ 고향에는 갈밭도 있고, 조밭도 있고, 수수밭도 있다. 거기서 그는 땅을 사서 기와집을 짓고, 고운 색시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딸 낳고 웅기종기 재미있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이 꿈을 평생 실현하지 못한다. 그는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최하층의 삶을 전전하다 죽고 만 것이다. 그는 자신이 왜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그는 환상으로 구름을 보는데, 죽기 직전 힘 있게 꼭 쥐 주먹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빈주먹을 들고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빈주먹을 들고 이 세상을 떠난다. 준식은 미국으로 건너와 30년 넘게 고생을 했으나,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멕시코 농장에서 죽을 고생을 할 때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도, 순애가 자신과 찜미를

183) 윤인진, 앞의 책, 206면.

최초의 이민자들의 인구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이국에서 빠른 시기에 큰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금의환향하려는 임시체류자의 성격이 강했다.

배반했을 때도, 쌀장사가 망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뿌리가 뽑힌 풀처럼 서 있을 기반이 없고, 기댈 곳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 사회에 정주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녀야 했다. 그는 언제나 ‘종,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것이다. 죽음의 순간, 팔뚝에 있는 노예의 화인(火印)을 보며, 그는 자신이 평생 이룰 수 없는 ‘희망의 노예’였음을 자각한다.

그가 구름을 잡는다고 팔을 쭉 내밀 때 그 팔뚝에 어룽어룽 허물진 화인만이 커다랗게 준식이 시선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이 화인은 그가 삼십년 전에 구름을 잡아보려고 조선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멕시코로 팔려가 가지고 그 목화밭 농장에서 불에 지지운 ‘종의 표’이었던 것이다. 종! 노예! 결국 그는 종이였다. 그의 팔뚝에 한번 불로 지진 이 ‘종의 표’는 마지막 날까지 준식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인생이란 결국 날 때부터 화인 맞은 종인 것이다. 희망의 노예! 바라고, 바라고, 바라고! 언제나 바라고 또 바라는 종들인 것이다.

184)

주요섭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다중의 억압을 받다 죽어간 조선 이주민 서발턴 노동자의 삶을 재현하였다. 이는 지식인 화자의 대신 말하기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여겨질 만큼 서발턴의 생생한 삶의 재현이다.

184)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앞의 책, 502-503면.

다. 서발턴의 몰락

주요섭은 「봉천역 식당」을 통해 중국 봉천지역에 떠도는 조선 여인의 몰락하는 과정을 재현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서발턴 여성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지식인은 “나 자신부터 상대방에게 수긍될 만한 타자로 만드는 법, 다른 사람의 서사들을 상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시 말하는 법, 그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을 키워나가야”¹⁸⁵⁾ 한다는 말처럼, 주요섭은 「봉천역 식당」에서 억압을 받은 서발턴의 모습을 잘 재현해낸다. 화자인 ‘나’의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서발턴 인물인 조선 여인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나’의 독백을 통해 서발턴 여성의 힘든 삶을 대변한다.

주요섭이 북경시절에 창작한 이 작품은 1937년 1월 『사해공론』에 발표했는데, 화자인 ‘나’의 시각을 통해 작가가 해외 이주시기에 목도한 바 있는 디아스포라 서발턴 인물을 소설의 장르로 형상화하고 있다. 당시 조선에서 육로를 통해 중국 관내로 가려면 대부분 신의주(新義州)-안동(安東)-봉천(奉天)의 코스를 밟으며 봉천에서 다시 내륙의 각지로 이동한다. 이 소설을 발표할 때 작가가 이미 중국에서 십여 년 생활한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작품은 그가 다년간 봉천역을 다니면서 보아온 재중 조선인의 삶을 한 여성에 집약시켜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⁸⁶⁾ 따라서 ‘나’는 이 여성을 보면서 “해외로 떠도는 조선 여성의 한 타입의 표본을 눈앞에 앉히고 보고 있는 것같이 생각”¹⁸⁷⁾된다.

이 소설은 봉천역을 자주 지나다니던 작중화자 ‘나’가 역내 식당에서 8-9

185) 태혜숙, 앞의 책, 102면.

186) 최학송, 「해방 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앞의 논문, 168면.

187)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237면.

년 사이에 네 차례나 목격한 조선 여인의 변화를 다룬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한 조선 여인이 행복의 절정에 놓인 순진한 여성에서 구슬프고 처참한 서발턴 여인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목격한다. 이 소설은 조선 여인과의 네 차례 만남을 통해 ‘나’의 눈에 비친 조선 여성의 변화를 영화같이 생생하게 드러내고, 서발턴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포착하여 세상사람 눈앞에 제시한다. 즉 조선 여인이 제 목소리로 발화하지 못하자, ‘나’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 조선 여인의 변화 과정을 전달한다. ‘나’의 시선을 통해 조선 여인이 행복의 절정에 놓인 순진한 여성에서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 조선 여인과 만난 8-9년 전에 ‘나’는 한 젊은이와 사랑에 빠져 행복의 절정에 놓여 있는 양장의 여인을 보게 된다. “옥을 굴리는 듯한 소프라노 목소리”, “맑고 복사꽃같이 발그스레한 두 뺨”, “우물이 옴폭 패고 메워지고 하는 관경”, “흑진주같이 빛나는 맑은 눈” 등의 조선 여인에 대한 묘사를 통해 17-18세인 아름다운 소녀의 이미지를 독자 눈앞에 그려 보인다. 이때 여인의 웃음과 복사꽃같이 생긴 얼굴이 “나이 스물 안팎인 총각이었던 내가 먹던 밥을 잇고 한참이나 멀거니 바라다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한다.

이 식당에 혼자 앉아서 삼지창으로 밥을 퍼먹고 있다가 갑자기 조선말이 들려오는데 더구나 그 조선말 목소리가 옥을 굴리는 듯한 소프라노일 적에 문득 눈을 들어 그 소리 나는 편을 바라다보는 것이 무엇 꾀이한 것 없는 평범한 일이겠지요. 더구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꼭 찌르면 터질 것같이 맑고 또 복사꽃같이 발그스레한 두 뺨의 소유자인 것을 발견할 적에 또 그 소프라노 목소리가 웃음소리로 변할 때마다 그 좌우 쪽 뺨에 우물이 옴폭 패고 메워지고 하는 관경이 (중략) 그 이성의 동포가 흑진주같이 빛나는 맑은 눈의 소유자일 적에 양장한 두 팔목이 대리석처럼 희고 부드러워 보일 적에 십칠

팔 세 난 처녀로 보일 (후략)¹⁸⁸⁾

두 번째 그 여인을 목격한 것은 처음 만난 날로부터 2, 3년 세월이 흘러 간 뒤이다. 나는 대여섯 명의 외국 남자들 사이에서 여인을 발견한다. 조선 여인은 이국 타향에 이미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여전히 조선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조선 여자인 걸요. 양장을 했지마는 현해탄 건너 여자보다는 한결 순후하고 중국 여자보다는 한결 명랑한 얼굴, 봉천 여자 얼굴처럼 우둔하지 않고 또 동경 여자처럼 감쪽하지 않고 복스러운 얼굴 그것이 조선 여자 얼굴의 특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은 조선말이 아니고 유창하게 하는 말이지만, 아무래도 조선식 악센트가 섞여 있는 말로 들렸다. ‘나’는 그 여자의 조선식 악센트와 타민족과는 다른 조선 여자의 복스러운 얼굴을 통해 그 여자가 조선 여인임을 알아본다. 여인은 이미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잃어버렸지만, 예전의 쑥스러워하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양장을 입은 여인은 화자인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며 뺨이 붉어진다.

아까부터 귀에 낯익은 목소리 그 말은 조선말이 아니건만도 그 목소리는 꼭 귀에 익단 말씀이지요. 그래 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다보았더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양장한 여성, 대여섯 남자틈에 오직 두 여성이 끼어 앉았는데 한 여자는 화복을 입었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양장을 했는데……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몸맵시 분명코 이삼 년 전에 이 식당 안에서 행복의 절정에 싸여 있는 때 보았던 그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중략)

보면 볼수록 그 소프라노 목소리라든지 말끝마다 찌르르 웃으면 웃을 때마다 뺨에 우물이 파지고 메워지고 하는 것이라든지 나는 언제나 한번 본 얼굴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노라고 늘 자랑을 하는 처지입니다마는 갈데없이 이 양장미인은 다른 여자가 아니고 삼 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얼굴이

188)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237-238면.

조선 여자인걸요. 양장을 했지만 현해탄 건너 여자보다는 한결 순후하고 중국 여자보다는 한결 명랑한 얼굴, 봉천 여자 얼굴처럼 우둔하지 않고 또 동경 여자처럼 껌쩍하지 않고 복스러운 얼굴 그것이 조선 여자 얼굴의 특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니 그 여자가 유창하게 하기는 말이지만 아무래도 조선식 악센트가 섞여 있는 걸요. (중략) 그의 일동일정을 추근추근히도 따르는 내 시선을 그 양장의 처녀(아마 그때는 처녀가 아니었겠지요마는)가 인식했는지 문까지 다가서는 잠시 내 쪽을 돌아다보다가 내 시선과 그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놀란 토끼 모양으로 얼른 고개를 돌립니다마는 그의 맑은 두 뺨에 홍조가 떠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¹⁸⁹⁾

그 후 삼 년이 지나 작중화자 ‘나’는 세 번째로 조선 여인을 보게 되는데,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라서 봉천은 전시 상태와 다름없었다. 이때 화자인 ‘나’는 “여행을 안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 무시무시한 감시와 취조를 받아가면서 봉천에 내렸던 것”인데, 여기서 그 조선 여인을 다시 보게 된다. 이런 시대 배경은 소설 속의 식민지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작중 인물인 조선 여성에 대한 민족적인 억압이 한층 더 심해졌음을 드러낸다. ‘나’는 조선 여인을 보며, “이번엔 나는 어찌도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람의 얼굴이 불과 2, 3년 사이에 그렇게 틀려지는 수도 있는지요”라고 생각한다.

꼭 누르면 터질 듯이 말롱말롱하던 그 두 뺨이 핏기 하나 없이 노래져버린 데다가 입가에는 벌써 가는 주름이 잡혀서 입을 꼭 다물면 우는 상 비슷한 기분을 일으키는 얼굴, 그 명랑하던 웃음은 어디로 가고 아주 우울한 얼굴의 한 권형이 되어버린걸요. 팔꼬뱅이부터 드러내놓은 그의 팔은 오륙 년 전 그

189) 위의 책, 240-241면.

때보다도 더 하얘졌는데 그때에는 대리석처럼 반지르르하고 아름답던 것이 지금은 회벽처럼 푸수수하고 거칠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그 흑진주같이 빛나는 두 눈만이 그래도 옛날 그 아름다움을 간직해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 눈만을 잠시 바라다보면 그 얼굴은 옛날 순진성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더 요염한 매력을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번엔 누구더냐구요? 혼자 와 앉아 있어요. 내가 식당으로 들어설 때엔 벌써 그는 저녁을 다 먹고 치웠는지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고 혼자 턱을 괴고 앉아서 담배만 자꾸 피우더군요.¹⁹⁰⁾

화자인 ‘나’가 조선 여인을 네 번째 만났을 때, ‘나’는 “그렇게도 우울한 얼굴이 세상에 다시 또 있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나’는 흑진주같이 빛나던 조선 여인의 눈이 광채를 잃고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안타까워한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도 눈물 날 만치 구슬픈 밥 먹는 태도를 나는 입때 본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첫 번째 만났을 때에는 “옥을 굴리는 듯한 소프라노 목소리”와 “맑고 복사꽃같이 발그스레한 두 뺨”, 그리고 “흑진주같이 빛나는 맑은 눈”을 가졌던 아름다운 소녀가 몇 년 사이에 몰라볼 만큼 변한 모습을 소개한다. 이 소설에서는 조선 여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 자연재해, 식민지의 통치 정책, 이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젠더적인 억압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조선 여인을 힘들게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도 우울한 얼굴이 세상에 다시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흑진주같이 빛나는 눈도 웬일인지 그 광채를 잃고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는 것같이 보여서 금시에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울고 쓰러질 것같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더

190) 위의 책, 242면.

균요. 내가 저녁을 한 절반이나 먹은 후에 그 여자가 들어왔는데 포근히 잠든
어린애 아마 네 살이나 났을까요? 한 아이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계집
애인데 교의에 내려놓으니깐 그냥 식탁에 두 팔을 얹고 엎드려 썩썩 계속해
자더균요. 양장의 그 여자는 이번엔 천장을 치어다보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
우고 오직 식탁만을 맞추고 그 위로 기어가는 재미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들여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뚫어지게 바라다보았으나 내
시선을 감각 못 했을 리도 없으련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세상에는 오직
그 식탁 하나밖에는 아무런 다른 존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듯이 한곳만 그
렇게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도 눈물 날 만치 구슬픈 밥
먹는 태도를 나는 입때 본 일이 없었습니다.¹⁹¹⁾

인간은 말을 통해 행위의 주인이 되어 세계에 참여한다. 세계 안에 행위
주체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물음
에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
으로 답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 스토
리를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주체’만이 세계 내의 행위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공적 활동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조건으로 한다.¹⁹²⁾ 그러나 모든 인간이 자기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데 무능하거나,
하나의 스토리로 자기를 설명할 수 없을 때, 또는 지배 권력에 의해 침묵
을 강요당하거나 발화의 공간을 박탈당할 때, 그 개인은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 조선 여인은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 일제

191) 위의 책, 245면.

192)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17집,
한국여성철학회, 2012, 36면.

통치 아래에서 조국을 떠나 이국 타향에서 모국어를 포기하고 타국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자 ‘나’가 목격했을 때, 이 여인은 엄마가 되어 있지만 슬픈 모습으로 앉아 있다. 8-9년 동안에 조선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조선 여인의 모습을 지식인 ‘나’가 대변한다.

이 소설은 ‘나’의 눈으로 조선 여인을 묘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식인 화자인 ‘나’의 내면적 독백도 유의미하다. 조선 여인과의 네 차례의 만남에서 언급한 ‘나’의 생각은 주요섭의 서발턴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처음 조선 여인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우아한 행동에 반했다. 화자는 “스물 안팎인 총각이었던 내가 먹던 밥을 잊고 한참이나 멀거니 바라다보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고백한다. 그리고 봉천역에 있던 ‘나’는 이국 타향에서 만난 그 여성에게 고백하려고 공연히 가슴을 두근거리며 앉아 있었고, 그 처녀와 마주 앉은 한 젊은 사나이에겐 질투 비슷한 또는 부러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처녀의 몸에 행복이 넘치고 흘러서 그 순진스런 즐거움이 온 방 안 공기를 진동시키고 남을 적에 그 눈길마다 그 움직임마다 그 목소리마다 사랑이(그렇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도 행복에 가득 찬 분위기를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쳐흐르는 것을 볼 때 그 처녀와 마주 앉아서 그 아름답고 고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 젊은 사나이에겐 향하여 내가 일종 질투 비슷한 또는 부러움 비슷한 야릇한 감정의 착란을 가조고 바라다보았노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한다고 나를 미친놈이라고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밤 차를 타고 나서 잠을 좀 자볼까 하고 일부러 침대차로 가서 누웠건만 잠은 한숨도 못 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생각은 별로 없고 그저 ‘그 둘이 물론 애인일 게다. 아니 혹은 오누인지도 모르지. 아니냐, 둘이라 그렇게도 행복스러

워 뵈든 걸 오누이 간에야 무슨 그렇게! 고향이 어데들일까? 무얼 하는 사람 들일까? 결혼했을까? 아니 분명 처녀야. 아직 처녀미가 있던걸. 오누이일까? 아니지 연인이지 연인이야.’¹⁹³⁾

두 번째 조선 여인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여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그 정체를 추측해보려 한다. 이 여인의 모든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혹은 어떤 음식점 웨이트레스가 되었는가 또 혹은 어떤 회사 사무원이 되었는가”라며 궁금해 한다. 심지어 그 여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날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말한다.

나는 호기심이 바짝 당겨서 그 정체를 추측해보려 했습니다마는 혹은 어떤 음식점 웨이트레스가 되었는가 또 혹은 어떤 회사 사무원이 되었는가 얼른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대관절 어찌 된 일일까? 그때 그 남자, 내가 연인이리라고 단정했던 그 남자는 어찌 되었는가? 어떤 관계로 저 사람들과 함께 밀려다니는가.’ 이런 온갖 생각에 휩싸여서 그날 저녁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날 저녁을 먹었는지 또는 보이가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고(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나도 역시 잊어버리고 안 먹지나 않았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아니 납니다.¹⁹⁴⁾

세 번째 조선 여인을 만났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세상에 사람의 얼굴이 불과 2-3 년 사이에 그렇게 틀러지는 수도 있는지요”라며 한탄한다. 복사꽃 같은 얼굴, 명랑한 웃음, 대리석처럼 생긴 팔목이 찢기 하나 없는 뺨, 우울한 얼굴, 회백처럼 푸수수하고 거칠어버린 팔로 바뀐 모습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193) 주요섭 저, 장영우 엮음, 앞의 책, 239면.

194) 위의 책, 241면.

나는 그만 놀라고 슬프고 기분이 이상해져서 멀거니 그 여자만 바라다보고 있었습시다마는 그는 한두 번 바라다보았으나(중략) 아마 내가 식당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담배를 대여섯 대 계속해 피웠지요. 나는 한번 말이라도 건네볼까 하는 호기심이 불 일듯 일어났으나 원래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 데다가 또 그 여자의 태도가 어떻게든 냉랭하고 청승맞은지 그만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보이가 내 주문한 밥을 가져올 때 그는 그만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95)

네 번째 조선 여인을 만났을 때, ‘나’는 실망과 슬픈 감정을 드러낸다. “그렇게도 우울한 얼굴이 세상에 다시 또 있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라며 처참한 실상과 실망감을 드러낸다. 여인은 처음 만났을 때의 흑진주같이 빛나는 눈도 광채를 잃고, 밥을 먹다 말고 울고 쓰러질 것같이 오직 식탁만 맞추고 이 세상에 오직 그 식탁 하나밖에 아무런 다른 존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듯이 한곳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환경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봉천 식당에서 서너 번 본 이 외에 그 여자에게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내가 그의 반생을 그려본다면 그것은 한 갓 내 추측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이 여자에게 대한 내 추측이 바로 사실같이 자꾸 생각 되어서 우울하고 구슬픈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치 해외로 떠도는 조선 여성의 한 타입의 표본을 눈앞에 앉히고 보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어서 처참한 감정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196)

195) 위의 책, 241면.

196) 위의 책, 246면.

마지막 장면에서 화자는 소설의 주제를 승화하여 “어머니가 딸에게 그 딸이 또 딸의 대에 대를 이어서…… 조선인으로서의 비극, 여자로서의 비극, 인류로서의 비극을 부단히 대 이어나갈 이 딸…… 이 죄사슬 같은 연쇄의 영원을 생각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라고 한탄한다.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 조선 여인의 몰락은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1936년에 실시한 조선 말살정책과 관련이 있다. 1936년 이후 조선민족의 위기의식은 더 극심해진다.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 건설을 위해 수십만 명의 조선인을 만주에 강제로 이민시키고, ‘만주문화회’라는 친일 단체를 결성하여 조선의 작가들에게 만주 발전을 예찬하는 글을 쓰도록 강권한다. 주요섭이 조선을 떠나 북경으로 떠나간 것도 그가 쓴 글에 대한 검열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대한 환멸과 저항의 측면이 있다. 주요섭은 소설에서 해외에 떠도는 서발턴 인물의 몰락 과정을 통해 당시의 일제의 조선과 중국에 대한 탄압과 사회폐단을 폭로한다.

주요섭은 국경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조선 여인을 통해 서발턴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의 간고한 삶을 조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조선 여인의 삶은 지식인의 거리를 둔 ‘말 걸기’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녀의 의식상에서 직접 서발턴 의식이 표출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작중화자 ‘나’의 시선에 묻어나는 연민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라. 저항에서 몰락으로

세계 속에서 행위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인 대로,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물음에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답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주체’만이 세계 내의 행위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공적 활동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조건으로 한다.¹⁹⁷⁾

그런데 주요섭의 소설에서 서발턴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매춘부, 유학생, 노동자, 해외에 떠도는 조선 여성 등 서발턴 인물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제의 민족적 억압, 자본주의에 의한 계급적 지배, 이국 주류문화로부터의 배척, 가부장제의 억압 등 여러 요인들의 다층적 억압 때문에 발언권을 상실한다. 소설의 텍스트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서발턴의 생활상을 기술하고 재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등장하는 서발턴은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방황하고 결국에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처럼 몰락한다. 서발턴의 변화는 주요섭의 이주 생활과 그의 사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상해시기에 발표한 주요섭 소설의 서발턴 인물들이 표출한 저항의식은 이 시기 주요섭의 혁명 활동 참여와 사회주의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의 소설에서 서발턴 인물들이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주요섭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다름 아니다. 「살인」의 주인공 우뽀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나아가 자신을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서발턴의 저항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197) 김애령, 앞의 논문, 36면.

우뽀의 인생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창문 앞을 지나가는 한 남자에게 사랑을 느낀 뒤 인생의 전환기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뽀는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매춘부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매춘하기를 거부하며 포주에게 반항한다. 굴욕을 감수하던 사회 최하층의 서발턴 여성인 우뽀가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자유를 향해 달려간다. 이 소설에서, 우뽀가 포주 똥똥할미를 죽인 행위는 주요섭의 급진적인 혁명사상과 불합리한 사회를 뒤집어보려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살인」의 결말은 우뽀가 살인을 저지르는 반항 행위로 끝나지만, 이 행위에서 서발턴의 풀뿌리와 같은 강인함을 찾아볼 수 있다. 우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매춘부 신분에서 벗어난 것만은 확실하다.

「첫사랑 값」의 주인공 유경의 반항의식은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다. 유경이 '5.30운동'에 참여한 행위는 제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지식인인 유경은 조국이 독립권을 상실하고 민족이 억압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괴로워한다. 유경은 상해로 유학해온 대학생 신분이지만, '피식민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발턴으로 전락한다. 유경은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이런 책임감은 중국인 여자 N을 만나면서 흔들리게 된다. 조국과 민족, 개인 욕망 사이에서 배회하던 유경이 상해를 떠난 행위는 조국과 민족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경이 개인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는 갈등의 고리를 끊으려 한다.

주요섭이 상해 유학을 마친 뒤 미국 유학 시기에 창작한 소설에서는 서발턴 인물들이 가난을 극복을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나서는 진취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 인물들은 남성이 주류를 이루며 크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진 않는 주변 인물로 등장한다. 이 시기의 주요섭 소설은 저항의식의 표출이 줄어들고, 서발턴 남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도전은 끝내 실패하고 만다. 이들은 교육을 받으려고 미국에 간 지식인이든, 돈을 벌려고 미국에 간 노동자든,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서발턴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 최하층에서 방황하며 살아간다.

미국 사회에서 방황하는 서발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주요섭의 고학생 신분과 미국의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요섭은 고학생으로 하층민층의 삶을 몸소 체험한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굶주림에 지쳐 음식점 유리창을 멍청히 바라보고,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값싼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이때 그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상해 유학 시절에 가졌던 급진적인 혁명의식과 사상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국에서 하층 노동자의 삶을 체험한 주요섭은 상해시기보다 미국시기에 발표한 소설에서 현실적 인식을 더욱 깊이 드러낸다. 또 미국의 사회제도도 주요섭의 사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 시기 소설에서 자본주의의 병폐인 황금만능주의와 상해시기에 겪지 못했던 인종차별을 소설 속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그의 이러한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유미외기」에서 ‘이전’은 식민지 지식인이지만 조국과 민족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 그는 황금이 널려 있는 미국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려는 꿈을 꾸며 미국에 간다. 하지만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종 차별을 받으며 오직 생존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는 3년 고생 끝에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지만, 빚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을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시각으로 미국 사회의 황금만능주의와 유색인종 차별 등의 병폐를 발견하지만, 사회체제를 바꿀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미국 이민법에 의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

『구름을 잡으려고』는 제명(題名)처럼 미국으로 이민 간 박준식의 붙잡을 수 없는 꿈을 다루고 있다. 하늘의 구름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박준식의 꿈 또한 하늘의 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준식은 30살에 조선을 떠난 후, 멕시코 노예로 살다가 미국으로 탈출한다. 이후 사진결혼으로 아내와 아들을 얻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어서도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아들 지미밖에 없다. 그는 죽기 직전 늙은 어머니, 자신과 같이 미국으로 떠난 동포, 자신을 도운 멕시코 흥인, 아내와 아들의 환영을 본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잡으려다가 낙망한 채 죽어간다. 해외에서 떠돌던 준식의 일생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부평초와 같았다. 그는 즐기치게 주류사회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만 것이다.

주요섭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잠시 『동아일보』에서 일하지만, 일제의 지나친 검열에 지쳐 북경으로 떠난다. 그는 북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과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보다 완전히 몰락한 서발턴 인물이 주로 등장한다. 이것은 주요섭이 중국에서 만난 디아스포라와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와 관계가 있다. 이 시기에 일제가 중국 동북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자 원래 이 지역에 살던 한인들은 곤경에 빠져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또 이 소설을 발표할 때는 일제침략과 민족탄압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일제 식민지 세력의 확장과 일제 통치의 심화 때문에 조선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처하자, 주요섭은 「봉천역 식당」을 통해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 여인의 몰락과정을 형상화한다. 이 소설에는 시국에 대한 애탄, 만주 한인에 대한 동정, 그리고 조국의 위기에 대한 우려 등을 담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중심으로 이주민이 겪는 민족정체성 의식과 서발턴 의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의 특질과 이들 작품이 담아내고 있는 소설적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이들 디아스포라 소설의 소설사적 위치를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1902년 평양에서 출생한 주요섭은 일본과 중국 상해, 미국에 유학한다. 1930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졸업 후 귀국한 그는 1934년 중국 북경 보인대학(輔仁大學) 교수직을 맡아 1943년까지 북경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벌인다. 주요섭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 유학을 통해 폭넓은 시야와 국제적 감각을 지니게 되고, 그의 독특한 이주 경험은 그의 작품 창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광복 이전 중국 상해와 북경,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며 창작한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주요섭의 국제적 감각과 넓은 시야가 잘 드러난다. 「살인」, 「첫사랑 값」, 「유미외기(留美外記)」, 「구름을 잡으려고」, 「봉천역 식당」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일제강점기 재외한인의 민족정체성 의식과 서발턴 의식은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이다.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와 지식인을 막론하고 계급·민족·인종·젠더의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차별이 빚어내는 지배와 종속의 문제, 즉 일제의 탄압과 수탈, 하층민 서발턴의 억압, 여성의 주변화, 유색인종의 차별 대우 등의 탈식민주의적인 문제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식민주의 비평의 관점으로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방법과 범위를 밝혔다.

II 장 ‘디아스포라와 탈식민주의’에서는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탈식민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들은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탈식민주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의 인물들은 이국의 낯선 언어와 문화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류문화에 들어가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서발턴과 더불어 민족정체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다. 주요섭은 해외 이주 기간에 접촉한 여러 디아스포라들의 경험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기록해 나갔다. 그는 중국 상해와 미국, 그리고 중국 북경 등을 배경으로 디아스포라 인물들의 형상화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의식과 서발턴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장 ‘주요섭의 해외 생활과 소설’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던 주요섭의 삶과 그 당시 발표한 디아스포라 소설의 특성과 주제의식을 개괄해 보았다. 또한 주요섭이 중국 상해, 미국, 그리고 중국 북경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생활환경 및 그의 내면세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런 요인들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분석했다.

상해시절에 주요섭이 발표한 소설은 매춘부, 인력거꾼 같은 사회 최하층 인물을 형상화하거나, 조선의 지식인 청년을 형상화한 소설도 있다. 이 시기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극단적이며 파괴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파괴적인 선택은 개인의 이상과 의롭지 않은 사회적 현실과 대립되면서 비극성을 드러낸다. 이 비극성은 독자에게 강한 정서적 충격을 주며 현실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이 시기에 발표한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살인」과 「첫사랑 값」이 있다.

주요섭이 미국에 살던 시절에 발표한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교육을 받으려고 미국에 간 지식인이든, 돈을 벌려고 미국에 간 노동자든,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디아스포라 서발턴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 최하층 계급에서 방황하고 몸부림을 치는 인물이다. 이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디아스포라 생활과 관련된 작품은 「유미외기」, 『구름을 잡으려고』가 있다. 두 소설의 등장인물은 모두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며, 미국 사회 최하층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발턴에 다름 아니다. 서발턴을 소재로 한 이 시기 주요섭의 작품은 사실주의적 표현기법으로 재미한인 유학생이나 노동자 등 하층 서발턴의 삶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경 시절에 발표한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는 항상 지식인 1인칭 관찰자가 등장하여 서발턴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들은 서발턴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력자나 관찰자 신분으로 등장하고, 서발턴의 생활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시대의 병폐를 폭로하고 한탄한다. 이 시기에 발표한 「대서」 「북소리 두둥둥」 「봉천역 식당」에서는 작중화자 1인칭 ‘나’는 지식인 신분으로 주변의 조선인 서발턴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주요섭은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 형세를 비판하고 조국과 동포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출한다. 「봉천역 식당」은 특히 그러한데, 이 작품은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IV장 ‘주요섭 소설의 디아스포라 의식’에서는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나타나는 ‘민족정체성 의식’을 살펴보면, 주요섭이 이주한 지역과 사상 변화에 따라 민족정체성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섭이 상해에서 발표한 소설에서는 민족정체성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후 미국과 북경에서 발표한 소설에서는 민족정체성 의식이 점차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해시기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는 애국사상이 나타나지만 같은 민족에 대한 관심과 동포애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인공들은 재외한인과 더불어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지도 않고,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들이 이주지에서 억압과 배제를 당할 때, 살인, 방화, 죽음 등 폭력적인 파괴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신경향파’ 소설 성향이 나타난다. 주요섭이 이 시기에 혁명단체에 가입하고 혁명 활동에 열중한 것은 그의 소설에서 폭력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시기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는 미국 자본주의 폐단에 대한 폭로, 같은 민족에 대한 관심, 의존심,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소속의식과 민족운명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전과 박준식은 미국에서 만난 동포에게 관심을 보이며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층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행위가 자주 나타난다. 결말에서 이런 인물들의 인생은 모두 실패로 끝나는데, 주요섭이 미국 이민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시기의 소설에서 나온 민족정체성 의식은 주요섭의 고학생생활과 관련이 깊다. 몸소 하층민중의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그가 미국유학 전에 가지고 있던 급진적인 사상은 약화되고, 애국심과 동포애, 민족소속 의식은 강화되었다.

북경시기의 디아스포라 소설에서는 재외한인의 생활형편, 민족과 조국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난다. 소설 「봉천역식당」에서는 조선 여인에 대한 네 차례의 관찰을 통해 재외한인이 점차 몰락하는 형편에 대해 관심과 동정심을 내비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 식민 통치 세력의 확장, 즉 ‘만주사변’ 때문에 만주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곤경에 빠져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또 1936년은 미나미 지로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표방하며 민족말살정책을 단행한다. 일제 식민통치의

확장과 심화에 때문에 주요섭이 이 시기에 「봉천역식당」을 발표한 것은 민족이 꺾박받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 만주지역에 다니고 있는 동포에 대한 애정, 시국에 대한 애탄, 자신의 애국사상과 강력한 민족정체성 의식을 표현했다.

이장에서 또 ‘서발턴 의식’을 통해서는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 등장하는 서발턴이 저항과 방황을 거듭하다 몰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소설에서 나타난 서발턴 의식은 주요섭의 생활환경과 그의 사상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해시기에 발표한 주요섭 소설의 서발턴 인물들이 표출한 저항의식은 이 시기 주요섭의 혁명 활동 참여와 사회주의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의 소설에서 서발턴 인물들이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주요섭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다름 아니다. 「살인」의 주인공 우뽀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나아가 자신을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서발턴의 저항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사랑 값」의 주인공 유경의 반항의식은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유학 시기에 창작한 소설에서는 서발턴 인물들이 가난을 극복을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나서는 진취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 인물들은 남성이 주류를 이루며 크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진 않는 주변 인물로 등장한다. 이 시기의 주요섭 소설은 저항의식의 표출이 줄어들고, 서발턴 남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도전은 끝내 실패하고 만다.

미국 사회에서 방황하는 서발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주요섭의 고학생 신분과 미국의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요섭은 고학생으로 하층민중의 삶을 몸소 체험한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굶주림에 지쳐

음식집 유리창을 멍청히 바라보고,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값싼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이때 그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상해 유학 시절에 가졌던 급진적인 혁명의식과 사상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국에서 하층 노동자의 삶을 체험한 주요섭은 상해시기보다 미국시기에 발표한 소설에서 현실적 인식을 더욱 깊이 드러낸다. 또 미국의 사회제도도 주요섭의 사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 시기 소설에서 자본주의의 병폐인 황금만능주의와 상해시기에 겪지 못했던 인종차별을 소설 속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그의 이러한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북경시기에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에는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과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보다 완전히 몰락한 서발턴 인물이 주로 등장한다. 이것은 주요섭이 중국에서 만난 디아스포라와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와 관계가 있다. 이 시기에 일제가 중국 동북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자 원래 이 지역에 살던 한인들이 곤경에 빠져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일제의 식민지 확장과 일제 통치의 심화 때문에 조선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처하자, 주요섭은 「봉천역 식당」을 통해 만주지역에 있는 조선 여인의 몰락과정을 형상화한다. 이 소설에는 시국에 대한 애탄, 만주 한인에 대한 동정, 그리고 조국의 위기에 대한 우려 등을 담고 있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떠도는 재외한인의 삶을 중국과 미국으로 이주 공간을 확장하면서 탁월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또한 매춘부·노동자·지식인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가 중국 상해와 북경, 그리고 미국에 이주해 있던 시기에 중국과 미국의 디아스포라의 삶과 디아스포라 의식을 탐구하여 여러 작품을 창작한 점, 다양한 이주 경험을 토대로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을 소설에 재현했다는 점은 주요섭 문학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

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은 중국 상해와 북경, 미국과 멕시코 등 디아스포라의 공간을 확장하여 소설화했다. 특히 「유미외기」 『구름을 잡으려고』는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미국과 멕시코 배경의 디아스포라 소설로서는 초기 작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동안 중국 배경의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는 만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주요섭은 상해와 북경으로 소설공간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중국 배경의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의 공간적 배경을 만주라는 공간을 벗어나 상해와 북경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재미(在美) 한인소설은 해방 전 하와이 이민자들이 발표한 작품이나 미국에 이민한 강용홀, 김은국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이창래, 미아 윤, 차학경, 노라 옥자 켈러 등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미국에 유학했다 귀국한 작가로서 미국 체험을 생생하게 재현한 해방 전 디아스포라 소설로는 주요섭 소설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도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이 갖는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문학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잃고 해외에 흩어진 이주 조선인의 재현과 연구에 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볼 수 있다. 그의 이주 경험과 그 과정에서 창작한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들은 디아스포라가 전 지구적 현상이 된 오늘의 시점에서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잊혀져가고 있는 근현대사를 재인식한다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요섭은 한국현대소설사에서 중요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그와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신경향파 작가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주요섭과 그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온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제강점

기에 발표한 그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주요섭과 그의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또한 주요섭 소설의 연구영역을 그의 전 소설로 확장하여 주요섭의 문학사적 위치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주요섭의 디아스포라 소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주요섭 재평가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주요섭, 「유미외기」, 『동아일보』, 1930.2.22-4.11.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동아일보』, 1935.2.17-1930.8.14.
_____, 『나의 문학적 회고- 재미있는 이야깃군』, 문학, 1966.
_____,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정한, 1975.
_____, 『신한국문학전집』, 현대문학사, 1981.
현진건, 주요섭, 『신선한국문학전집』2, 창우문화사, 1982.
주요섭, 조미령 엮음, 『사랑손님과 어머니』, 삼중당, 1983.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일신서적, 1995.
_____, 『한국남북문학100선- 사랑손님과 어머니』, 일신서적, 1995
_____, 『사랑손님과 어머니 외』, 홍신문화사, 2005.
_____, 『사랑손님과 어머니』, 소담, 2012.
주요섭, 이승하 엮음, 『주요섭 단편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주요섭, 장영우 엮음, 『사랑손님과 어머니』, 문학과지성사, 2012.
주요섭, 『주요섭 중단편선 사랑손님과 어머니』, 문학과지성사, 2012.

단행본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8권, 인물과 사상사, 2008.
강석영, 『라티아메리카사』, 미래엔, 2001.
고부웅,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4.
김기진, 홍정선 엮음, 『김팔봉 문학전집Ⅱ-회고와 기록』, 문학과지성사, 1981.
김정규, 『게슈탈트 심리치료-창조적 삶과 성장』, 학지사, 2015.
김도형, 『일제하 한국사회의 전통과 근대인식』, 해안, 2009.
김순전, 박제홍, 장미경, 박경수, 사회영, 김서은, 유철, 『일제강점기 일본어

- 교과서『국어독본(國語讀本)』을 통해 본 식민지조선 만들기』, 제이앤씨, 2012.
- 김선학, 『한국현대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현암사, 1984.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時代3』, 한길사, 1986.
-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 나도향, 『한국소설문학대계』22, 두산잡지 BU.
- 송명희, 『현대소설의 이론과 분석』, 푸른사상, 2006.
- _____, 『페미니즘 비평』, 한국문화사, 2012.
- _____, 『미주지역 한인문학의 어제와 오늘-캐나다·미국·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2011.
- _____, 『캐나다한인 문학연구』, 지식과교양, 2016.
- _____, 『트랜스내셔널리즘과 재외한인문학』, 지식과교양, 2017.
-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송하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첫사랑 값」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이만열, 『한국근대 역사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81.
- 이선옥, 『이기영의 여성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이영자·진규철, 『교육 사회학』, 학문사, 2000.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백인도 흑인도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2007.
- 정덕준, 『중국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사, 2006.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 조은주,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시학』, 국학자료원, 2015.
- 조용만·송민호·박병채,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현암사, 1982.
- 최강민, 『탈식민과 디아스포라 문학』, 제이앤씨, 2009.
- 최윤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 _____,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 피천득, 『인연』, 샘터사, 2008.
- 홍익희, 『세상을 바꾼 다섯가지 상품 이야기』, 행성비, 2016.

번역본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 바트-무어 길버트, 이경원 옮김,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 마르크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 이브르, 2010.
- 제인 프리드먼, 박혜경 옮김, 『페미니즘』, 이후, 2008.
- 존 맥클라우드, 박종성 외 편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아카데미, 2003.
- 피터 페타도·마이클 우드 저, 김희진·박누리 옮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역사1001 Days』, 마로니에북스, 2009.
- 크리스 비커, 이경숙·정영희 옮김, 『문화연구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00.
-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 김문환 옮김,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논문

- 강옥초,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82집, 역사교육학회, 2002, 135-161.
- 강일호, 『근현대 회화 작품에 나타난 가족이미지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6.
- 강진구, 「주요소설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문론집』 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247-274면.
- , 「한국소설에 나타난 멕시코 이미지 연구」, 『어문론집』60집, 중앙어문학회, 2014, 211-237면.

- 강지희, 「상해와 근대문학의 도시 번역 -주요섭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29집, 이화어문학회, 2011, 25-49면.
- 강희영, 「한인여성디아스포라의 이주경험과 트랜스로컬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구소련권 유학이주여성의 한국체류경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2.
- 고영(高瓔), 「휴머니즘의 측면에서 본 20년대의 경향문학과 -1924·5년도의 소설작품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석사논문, 1977,
- 김정현, 「근대 중국 동북지역 한인 이주와 항일투쟁의 기억기념」, 『만주연구』12호, 만주학회, 2011, 211-248면.
- 김광옥, 「주요섭 소설 속의 서발턴 연구」, 연변대학 석사논문, 2013.
- 김성곤,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1992년 여름호, 1992, 12-31면.
- 김영은, 「주요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 식민지 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17집, 한국여성철학회, 2012, 35-60면.
- 김정혜, 「최명희 『혼불』의 탈식민의식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논문, 2014.
- 김호웅, 「주요섭 -그 인간과 문학- 중국에서의 소설창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비교연구』5집, 국학자료원, 1997.
- , 「1920년대-30년대 조선문학과 상해- 조선 근대문학자의 중국관과 근대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23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7-41면.
- 김학균, 「주요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서발터니’ 연구」, 『배달말』49집, 배달말학회, 2011, 147-169면.
- 권유리아, 「이문열 소설의 식민과 탈식민 연구: 『시인』, 『영웅시대』, 『변경』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8.
- 박미지,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 윤리학 -마하스웨타 데비의 「익룡, 퓨란 사하이, 그리고 퍼사」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3권4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59-107면).
- 박영미, 「하와이 한인이민과 비교한 멕시코 초기 한인 이민과정에 대한 고찰 -제물포항에서 유카탄 에네켄 농장으로(1904-1905)」, 『스페

- 인어문학』28집, 한국서어서문학회, 2003, 651-669면.
- 박애경, 「신경향과 소설에 나타난 저항의지 연구 -최서해, 조명희, 주요섭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5.
- 방인석, 「감수영 시의 탈식민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11.
- 서승희, 「근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억과 재현의 윤리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6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159-185면.
- 송명희, 「캐나다한인문학의 정체성과 방향」, 『한어문교육』26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5-27면.
- _____, 「캐나다한인 소설에 재현된 문화적응의 단계 변화」, 『한어문교육』3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211-233면.
- _____, 「고려인 시와 캐나다한인 시에 반영된 문화변용의 비교연구-형성기 작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제171호, 국어국문학회, 2015, 535-572면.
- _____, 「2000년대 이후 캐나다한인시에 반영된 문화변용의 태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6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161-197면.
- _____, 「캐나다한인소설에 재현된 서발턴의 서사와 거주 공간의 분리」, 『비평문학』제5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5, 119-147면.
- _____, 「캐나다한인소설에 재현된 이민 가족의 황폐한 풍경」, 『한국문학이론과 비평』6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213-240면.
- _____, 「재미동포문학과 민족 정체성-미국 동부지역 위싱턴 문단을 중심으로-」, 『비교문학』32집, 한국비교문학회, 2004, 249-271면.
- 송소용, 「서발턴 여성의 억압과 자유 -주요섭 「살인」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34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287-306면.
- 손지봉, 「1920~3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 양국화(梁國花), 「한국작가의 상해지역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주요섭, 주요한, 심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1.2.
- 안준범, 「서발턴 역사 개념의 형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9.
- 왕가, 「만주국 시기 한·중 소설의 현실대응 연구 -안수길과 양산정의 작품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14, 26면.

- 우미영, 「식민지 시대 이주자의 자기 인식과 미국 - 주요섭과 강용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17집, 한국근대문학회, 2008, 325-359면.
- 유인순, 「현대 한국소설에 투영된 중국 중국인」, 『한중인문학연구』12집, 한중인문학회, 2004, 22-47면.
- 유선영, 「식민지민 디아스포라의 불가능한 장소성- 이동성의 한 유형으로서 부동성의 존재양식」, 『사회와 역사』98집, 한국사회사학회, 2013, 191-226면.
- 윤송아, 「재일조선인 문학의 주체 서사 연구- 가족·신체·민족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11.
- 윤정화, 「재일한인작가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0.
- 임인숙, 「일제 시기 근로정신대 여성들의 정신대 경험 해석과 의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임윤정, 「주요섭 소설에 관한 연구 - 작품론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0.
- 임명진, 「일제강점기 ‘재만한인소설’을 통해 본 만주의 문제」, 『현대소설연구』3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9-51면.
- 이연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14.
- 이주미, 「주요섭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이주일, 「주요섭 소설의 분석 연구」, 『명지어문학』19집, 명지어문학회, 1990, 215-229면.
- 이승하, 「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무대 소설의 의의」, 『국제비교한국학회』17권3호, 비교한국학, 2009, 399-427면.
- 정금희, 「김환기 예술의 디아스포라 이미지 분석」, 『디아스포라연구』8집,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2014, 95-117면.
- 정영훈,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13집, 재외한인학회, 2002, 5-38면.
- 장춘식,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3.

- 정정호, 「주요섭 문학에 나타난 정의 윤리와 사랑의 원리- 장편 『구름을 잡으려고』의 기독교적 읽기 시론」, 『비교문학』61집, 한국비교문학회, 2013, 303-328면.
- 최미선, 「한국 장편 소년소설의 전개과정과 소년상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25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3, 181-238면.
- 최학송, 「주요섭의 베이징 생활과 문학」, 『국어교육』142집, 한국어교육학회, 2013, 143-164면.
- 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39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149-175면.
- 최낙민, 「동방의 巴黎- 근대 해항도시 상해의 도시이미지 -프랑스조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75집, 경남사학회, 2010, 131-158면.
- 표언복, 「해방전 중국 유이민 소설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04.
- 하상일, 「식민지 시기 상해 이주 조선 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비평문학』50집, 한국비평문학회, 2013, 307-334면.
- 한점돌, 「주요섭 소설의 계보학적 고찰」, 『국어교육』103집, 한국어교육학회, 2000, 341-371면.
- 한만수, 「일제 강점기 문학 검열 연구를 위하여」, 『배달말』27집, 배달말학회, 79-96면.
- 김광옥, 「주요섭 소설 속의 서말턴 연구」, 연변대학 석사논문, 2013.
- 주주(周姝), 「유학 체험과 주요섭의 문학 창작」, 中國海洋大學 碩士論文, 2013.
- 장려화(張麗華), 「1920~1945年韓國現代記行文中的北京認識」, 山東大學碩士論文, 2014.
- 장춘식(張春植), 「朝鮮族移民小説与身份認同」, 『民族文學研究』3集, 現當代作家評論, 2008.
- 이재희(李在喜), 「異域視角的上海想象-以寓居上海的韓國作家 (20世紀20/30年代)爲例-」, 華東師範大學碩士論文, 2013.

기타

- 주요섭,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조선인」, 『別乾坤』16-17호, 1928.12.1.

- _____, 「상해관전기」, 『삼천리』, 1932.3.
- _____, 「상해관전기」, 『삼천리』, 1932.3.
- _____, 「1925년 5.30」, 『신동아』, 1934.5.
- _____, 「북평잡감」, 『백민』, 1937.
- _____, 「내가 배운 호강대학」, 『사조』 제1권 제6호, 사조사, 1958.
- _____, 「내가 배운 호강대학」, 『사조』, 1958.11.
- _____, 「나의 문학편역기」, 『신태양』, 신태양사, 1959.
- _____, 「유미외기」, 『동아일보』, 1930.2.22-1930.4.11.
- 「순국선열·애국지사 148명 훈·포장」, 『조선일보』, 2004.8.14.
- 정운현, 「정직한 역사 되찾기: 친일군상(24회)」, 『서울신문』, 1999.2.8.13면.
- 권재현, 「1919년 미국 의회, 금주법 가결」, 『경향신문』, 2010.10.07.
- 이범진, 「“한국인 이중징용, 고이소 총리가 지시” : 1944년 일본 각료회의 극비문서 발견」, 『주간조선』, 2004.09.03.